(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9-710 1981년12월30일(수) 3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December 31. 1981

JAN 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감격에 넘친 위니펙의 밤

본사주선 봉제사 위문공연에 300여명 열광

(위니펙=유승민기자)이 민선배로서 이민후배를 위안한다는 취지의 위니펙 봉제사 위문공연겸 위니펙한인회 연말잔치는 영하 30도를 치닫는 위니펙의 혹한을 거뜬히 녹여 냈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2시간반 거리인 위니펙 공항근처의 에어·라이너 호텔에서 27일(일)하오7시 180여 봉제사 아가씨를 비롯한 위니펙교민과 18명의 토론토교민 포함, 2백여명은 이날밤 새벽2시가 넘어서야 아쉬움을 남긴채 발길들을 돌렸다. 조명이 환해지면서"서울의 찬가", "고향의 봄"합창과 함께 손에손을 맞잡고 실내를 돌던 교민들은 밴드연주가 끝나고 예정된 1시가 지나도 좀처럼 자리를 뜰줄 몰랐다. "생전 처음으로 디스코를 추었다"는어느 아가씨의 말대로 이날밤 한인들은 춤과 노래, 웃음으로 한덩어리가 됐다. 위니펙의 날씨는 차안의 고성능 히터가 풀 가동을 해도 입김이 얼어붙어 시야가 가려질 정도였다.

위니펙한인회의 이하영 총무사회로 시작된 파티는 박종수 위니펙한인회 부회장의 인사에이어 김현모씨가 토론토교민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본사를 대표한 윤방현편집자문위원의 인사 에이어 토론토 동우회의 고광남이사장은 축사에서"지상을통해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만나보니 정말 반갑다. 우리 회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생을거쳐 캐나다에 정착했다. 이민 선배로 서 여러분을 무엇을 도울줄수 있나 하는 점에서 우리 토론토에있는 동우회원들 가정과의 자매결연, 나아가가 관광등을 알선하겠다고 말했다.

위니펙한인연합교회 유중서 목사의 식사기도로 시작된 디너후 4인조 권순근 악단의 밴드플레이로 파티무드가 서서히 무르익기시작했다.

밴드플레이가 계속되는 동안 토론토와 위니펙선배교민들이 춤을 리드하며 무대를 장식할때 까지 봉제사들은 망설이기만 했다.

사회자인 토론토Y합창단 총무 호세환씨의 기타반주를 곁들인 지도로 싱얼롱 "사랑해"와 "일요일밤에"를 불렀고, 토론토의 디스코가수 박소영양이 나와 디스코메들리를 엮어 나가자 분위기에 젖어든 아가씨들은 너도 나도 의자를 박차 되 나와 디스코 리듬에 젊은 정열을 내맡겼다.

이어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민요가수 박수연양이 "한강수 타령"등 우리 민요를 엮어 나가자 역시 한복의 한 아가씨가 등장, 고전무용을 간드러지게 추어대 좌중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토론토 교민 김현모씨도 이에 합세, 덩실덩실 우리 전래의 춤을 추었다.

노래자랑 순서가 되자, 사회자 호씨의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엄살과는 달리 20여 아가씨들이 신청, 시간관계상 10명으로 제한해야했다. 심사를 맡은 권순근씨는 노래자랑에 나온 전원의 노래솜씨가 심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프로급이었다면서 상품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고, 특히 우수한 1, 2, 3등에는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스트 싱어로는 토론토 교민중 장추신씨와 본사 송광호부장이 아마추어를 벗어난 솜씨를 관중들에게 선사했다.

토론토 교민들이 마련한 상품들을 놓고 복권판매가 시작됐을때는 서로들 사려고 몰려 준비된 복권이 매진됐다.

이날 1등상인 미도파백화점(대표 : 장주신)이 제공하는 여자용 오메가 손목시계는 봉제회사 정비공 김친기씨가, 2등상인 본사 제공의 디자이너 이라자씨 작품 파티용 한복은 홍간난씨가 탔다. 신세계 여행사(대표 : 김창범)제공, 위니펙↔토론토 왕복 비행기표는 김길순양이 탔다. 사회자가 "1장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김창범씨는 아직 싱글이라 1장만 준다고 조크했다.

에코시가구점 제공의 의자세트는 정영수양이, 본사제공 1년 무료구독권3장은 [illegible]영숙, 송하영양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커피, 화장품세트 쇼트닝, KAL 여행용 가방 등 많은 상품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권 판매를 담당했던 재봉사 아가씨들의 대표 민정숙양은 복권 판매 수익금 전액 262달러를 방위성금으로 한국에전해 달라고 본사에 기탁했다.

또 위니펙한인회는 이날 출연한 권순근악단에게 수고료 100달러를 전했 으나 연예인들은 이를 역시 방위성금으로 본사에 전했다.

◇권순근 악단의 연주에 도취 시선을 무대에 집중시킨 200여 양도시 교민들

◇간드러지게 고전무용을 치는 한 재봉사 아가씨.

디스코와 노래로 새벽2시까지 즐겨

1일생활권 접근

한국, 9개국과 속달우편제

(서울 24일=연합) 한국이 내년 1월4일부터 프랑스와 국제속달우편제도 사용을 시작함으로써 프랑스는 한국과 이 제도를 사용하는 9번째 나라가 됐다고 24일 한국 체신부가 발표했다.

이 제도아래서는 무역이나 상용문서및 상품표본같은 우편물이 가능한 최단 시간내에 배달된다. 즉 하루나 이틀안기 어느 지역에 도달한다.

한국과 국제속달우편 봉사협정을 맺은 나라는 프랑스이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쿠웨이트, 홍콩, 싱가폴, 타이완및 일본이다.

체신부대변인에 의하면 이 제도로 하루안에 우편물이 도착하는 곳은 타이페이, 홍콩, 도쿄, 오사까, 로스엔젤레스; 쿠웨이트, 런던, 뱅쿠버와 파리다.

이밖의 지역은 이틀 이상 걸린다.

우편료는 500g 까지 11,700원(미화 $17), 최고 중량은 15kg이다.

원화가치 또 떨어져

달러당 699.40원

(서울 26일=연합)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평가절하.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은 5%선을 [illegible]나 절하됐다.

26일 한국은행은 공인환율을 달러당 699.40원으로 책정, 하루전인 25일에 비해 0.60원이 올랐다.

이달로 들어선 이래 환율은 1.39%나 증가했다. 금년초 환율은 달러당 659.80원이었다.

현금거래환율은 달러당 709.90원, 전신환율은 701.50원이다.

요약성경 발간

보급위해 40% 로

성경은 분량이 너무 많고 복잡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만큼 널리 읽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착안한 리더즈다이제스트사는 이를 압축한 요약성경을 내년경 발행할 계획이다.

「다이제스트」사는 5년전 요약성경 발행에 착수, 2년간의 사전조사와 3 년간의 편집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 발행할 예정이다.

요약성경은 성경전서 분량의 40%로 편집자들은구약에서 절반 이상을 신약에서 3분의 1쯤을 잘라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 세냉
회비 : $18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
—콘도미니엄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보렌톤 스포츠사(이진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토론토

천주교 노인회
신년축하파티

우리 회에서는 희망에찬 1982년 새해를 맞아 아래와같이 신년축하 파티를 마련하였아오니 전원 참석하시어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월9일(토) 오후 1시~6시까지
장 소 : 던다스 구성당 강당
941 Dundas St. W.
863-0415
행사종목 : 장수상, 장기자랑, 복권추첨, 태권도시범, 기타 일반회원에 여흥.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노인회 임원
일동 드림

82년 봄학기
씨알학교 학생모집 안내

기 간 : 1982년1월9일부터 6월19일까지(20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자 격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프로그램 :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 한국어, 합창
1 시부터 3 시까지 — 영어교실, 예능교실(피아노 ·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수 업 료 : 학생1명당 — $100(등록비 $10)
한국어, 합창은 무료, 예능과 영어교실은 한 학생이 두과목씩 택할 수 있음.
버 스 비 : 학생1명 — $80(등록비 $10)
동쪽 — EGLINTON, DANFORTH, KINGSTON, GERRALD지역
서쪽 — REXDALE, LAKESHORE, HWY27, 427, WILSON, DUFFERIN지역
※현재 버스2대가 운행되고 있음.
신청전화 : 여 정 자 선생님 441-2986

謹賀 新年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탁구협회
회장 : 정영모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C
M5S 1A5

81년 교민사회 10대 뉴스

해마다 한해를 마무리지을 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81년도 한해는 유난히도 캐나다 교민사회에 화제가 많았던 해이다. 10대뉴스 선정을 위해 신문철을 뒤적여 보니 한인교향악단, 한인합창단등의 예술활동, 본지 일간발행, 트루도 방한등의 고무적 행사들도 많았지만 역시 뇌리에 크게 박히는 것은 TTC위조등 교민범죄사건, 한인회및 교회 분규등 가슴 아픈 사건들이다. 10대뉴스의 순위를 가리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지만 편집진의 견해를 종합, 그 순위를 정해본 결과 다음의 결과가 나왔다.

1. TTC위조, 부정담배, 마약혐의등 교민범죄사건

1월에 터진 TTC티켓위조사건은 교민들이 한국에서 인쇄해서 이민짐 속에 끼어와 토론토에서 판매했던 교민사상 최대의 범죄로 한국신문에서는 범죄역수입, 즉 해외교민이 고국으로 범죄를 끌어들인다는 비난을 받은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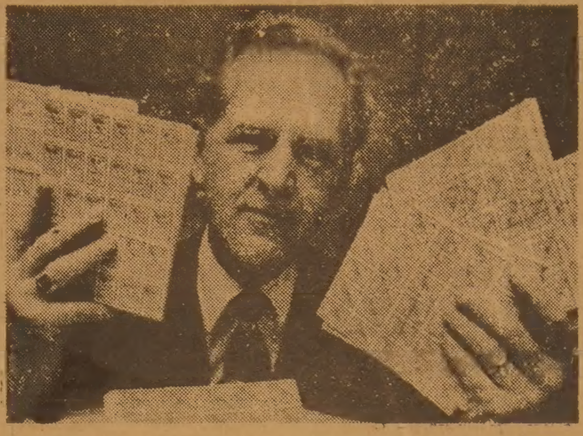
주범들과 판매 관련자들이 교민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사였다는점에서 충격이 컸다.

부정담배사건은 연초부터 터지기 시작, 11월중의 임페리얼담배 도난사건까지 연중내내 계속된 사건이었으나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부정담배를 거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개운치 않다.

경찰과 세무당국은 수차례 교민들에 경고및 호소를 보내왔으나 일부교민들의 "교민지가 교민을 보호하지 않고 들쑤셔낼 필요가 뭐어냐"는 항의도 있었다.

사회가 커질수록 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이겠지만 악의 싹은 뿌리에서부터 재거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마약거래 관련혐의 사건은 재판결과에서 곧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만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경각시켜준 사건이었다.



◇사기전답반의 로이·페스트경사가 압류된 가짜버스표를 보이고 있다.

2. 여행사 폭로 특집사건

많은 교민들이 항공요금에 대해 품었던 의혹이 집중, 터져나온 본지의 특집기사〈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는 복잡한 항공요금을 둘러싸고 교민업체가 교민의 특수성을 역이용했다는 비난을 파헤친 기사였다.

본사는 이 기사로 여행사의 광고를 잃은 대신 수많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를 받은 것은 물론 여행사들의 협정요금세도가 깨져 독자, 즉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

3. 일간 〈한국일보—토론토〉 발행및 「민족상」 제정

지난 6월1일자로 〈캐너더·뉴스〉는 종간되고,〈한국일보—토론토〉란 이름의 일간지로 발전, 캐나다 이민사회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북미에서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에 이어 토론토는 일간지를 갖는 4번째 도시가 됐다.

그동안 편집·제작상 의 애로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일간발행 1개월만에 우편파업으로 여름내내 제작진은 비지땀을 흘렸다. 본사는 각식풍점을 통한 무료배부등 신속한 뉴스전달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흡했었다.

한동안 중단됐던 윤전기도 이제는 순조로이 가동되고 있어 앞으로 본지는 모든 면에서 보다 활발한 신문이 될 것이다.

본지는 또 일간발행에 즈음 교민사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 주는 〈민족상〉을 제정, 박재훈, 전택균, 김용순, 장근수등4명이 수상했다.

◇민족상 수상자들이 민족상위원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원·구상회·이석현·장근수·김명규·전택균·이축길·김용순·강신봉·박재훈·김춘탁씨

4. 이민증가

교민사회 확장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이민증가는 여러번 신문에 오르내렸던 것과는 달리 실질적 수확을 못거두었다.

투자이민의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한국정부가 해외이민의 문호를 개방, 이민의 외화소지액을 최고 10만달러선까지 확대하는등 많은 기대가 걸렸으나 이민의 괄목할만한 숫적확대는 없이 부모·약혼자 초청의 경우로 그쳤다.

트루도 캐나다수상이 원자로 판매차 방한했을 때 교민들 은 한국정부가 캐나다정부와 이민확대에 관한 모종의 협상을 실현시켜줄 것을 은근히 기대했으나 기대에 그쳤다.

한때 2천명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됐던 재봉사 집단 취업이민도 중단. 현재 위니펙에서 일하고있는 3백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5. 교민의 북한방문

수년전부터 화제가 됐던 교민의 북한방문문제는 민정당 원내대변인인 봉두완의원이 토론토 방문시 "한국정부로서는 외국 시민권자의 북한방문을 강제로 막을 필요도 없고, 방문해도 북한의 실정을 비교할수있어 괜찮을 것으로 안다."는 요지의 발언이 문제되어 다시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교포가 간첩혐의로 FBI의 수사를 받았다는 뉴스도 있고, 교포Y씨는북한의 노모형제를 방문하고 돌아온후 구설수에 오르자 아에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6. 한인합창단, 한인교향악단, 초대작가전등문화행사.

작년 연말에 가족음악회로 시작된 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이 세계적대가급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씨,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를 초청, 협연함으로써 교민예술활동의 질과 규모를 변모시켰고, 한인합창단(지휘 박재훈)이 메시·홀에서 가진 헨델의「메시아」공연은 음악회라기보다 교민사회의 정신적 경험사로 기록될 것이란 평을들은 문화행사였다.

예술활동은 캐나다 문인협회가 주도가된문학분야, 사진협회의 촬영대회뿐 아니라, 미술계의활동도 왕성. 대표적인 예로 양로원기금모집을 위해 서울미술가들도 초청, 실시한 초대작가전이 꼽힌다.

양로원기금 12,000여달러를 모았던 초대작가전은그 목적에 있어서나 예술적수준에서 이민문화를 지방문화적인 기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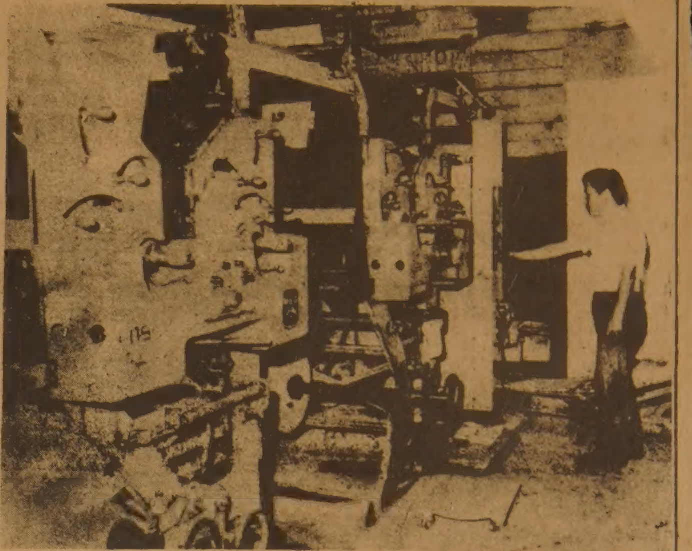
7. 한인회, 교회등 단체 분규.

불안하게 운영되던 한인회의 회장단이 총 사퇴하고, 이사회 이사장도 물러난 뒤 새 회장단과 새 이사회 진용으로 출범.

잡음이 들끓던 한인회의분규가 일단락 되었다. 한인회의 잡음은 토론토교민사회의 대대로 고질병이었기에 한인회 무용론까지 대두 되었다.

1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한인교회가 목사의 사임에 이어 무너지고, 일부 교회가 목사와 장로간의 마찰, 장로간의 세력다툼 등으로 와해 직전에 있다는 소문은 토론토교민사회의 가장 불행한 소식중의 하나였다.

단체나 교회 지도자의 자질문제는 새해에도 큰숙제로 남을것이다.



◇윤전기가 땀을 흘리며 돈다. 신문이 줄줄이 인쇄돼 나오고 있다.

8. 부동산거래붐·이자율 및 물가인상률 급상승

세계적인 불황속에 교민들의 경제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 상반기중 부동산매매붐을타고 많은 교민들이 서둘러 집을 장만했음은그만큼 교민들의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징조이기도 하나 20%를넘는 중앙은행이자율과 모기지율을 감당해 내야할 교민들의 고충은 아직도 계속되고있다. 최근 몇주 금리가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계속되는 불황과 물가고, 수퍼마켓의 가격경쟁은 교민 비지니스맨들의 크리스마스 대목에도 타격을 주었다.

◇최동원 투수

◇이덕희 양

9. 최동원, 이덕희등 모국선수들의 활약.

한국야구의 거물 최동원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입단키로 계약했다는소식은 교민스포츠계를 흥분시켰 으나 최선수가 계약에 불만, 이를 이행치 않고 한국 야구단에 머뭄으로써 교민야구팬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최선수의 법적문제는 새해의 숙제로넘어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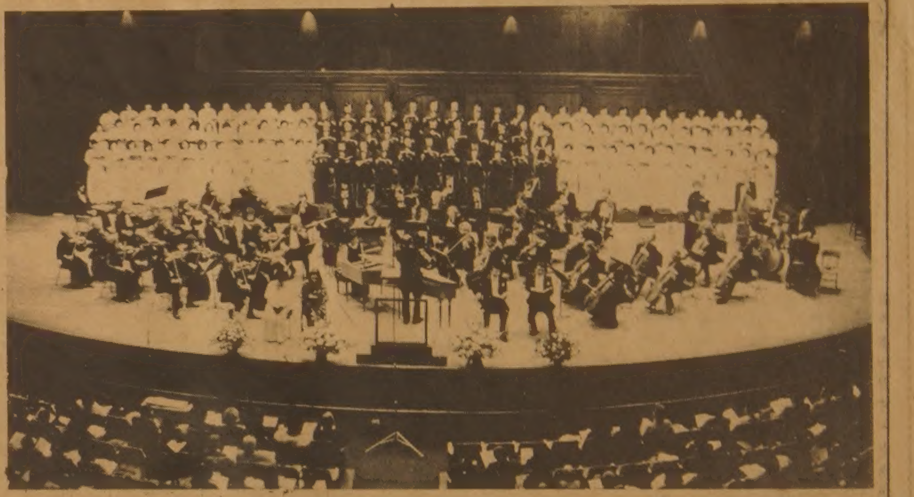
◇해산전 마지막 예배를 보는 신자들

소문없이 토론토에서 세계적 선수들과 대결했던테니스계 이덕희 선수의 활약도 큰 스포츠 사건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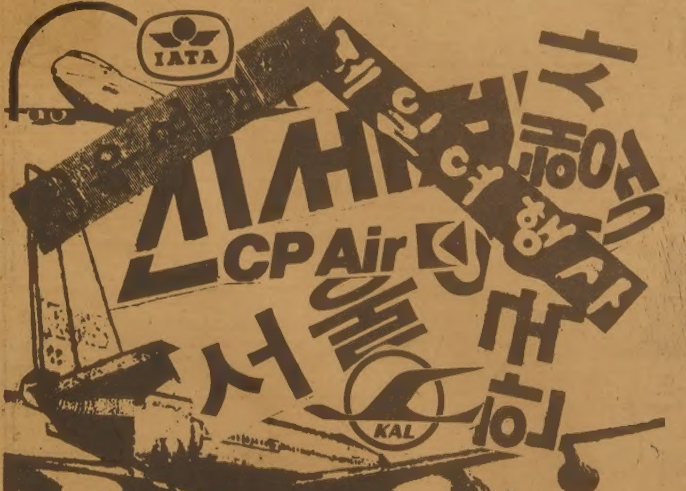
10. 실협선거

이형인 전실협회장의 조용한 퇴진과 아울러 보기드문 실력대결의 공명선거로 출범한 새 실협회장단은 교민사상 유례없는 회원의 투표참가율을 보였고, 선거후유증 없는 선거로당선됐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명실공히 교민의 실질적 이익, 경제적 실력을 다지기 위한 실협이니만큼 회장단에 보내는 기대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크다하겠다.



◇메시홀의 무대를 꽉 채운 한인합창단의 제1회 메시아 연주회 광경



서울한의원 특별봉사

한의원 개설 35주년과 타지방에 순천당 한의원(서울원이름) 개설을 계기하여 그동안의 사랑해 주심에 보답코저 특별봉사코저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월28일부터 1월25일까지

● 보 약 : 남여보약, 산후보약, 소아보약

● 치 료 약 : 각종 고질병, 간장, 위장, 화병, 고혈압, 부인병, 냉병, 산후병, 천식, 신경통등

● 가정상비약 : 사향소합원, 우황포령환, 불임증약

※ 장기치료 약은 건재(조제 안한것)을 실비 제공합니다.

● 주 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 : 247—9347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 장 석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1월1일(금) 1982년 휴업.

※다른날은 정상영업 합니다.

LONG WEEKEND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 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독자투고>

'88년 서울올림픽

(몬트리얼) 장 윤 천

1. 세계관광협회 이사들이 모여 회의를 경주에서 가졌고,
2. 세계여자농구 대회가 서울 잠실리에서 열렸고,
3. 해외에서 가진바 있는 한국의 「5천년 미술전시회」는 외국인들에게서 호평을 받았고,
4. 다년간 외교관들의 활동이 눈부신 바가 있었고,
5. 경제력이 신장되고,
6. 서울에서 가졌던 세계미인대회때 전세계 인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7. 일찌기 유치를 결의(79. 9. 19)해서 꾸준한 적공이 있었고,
8.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들의 바람직한 활동상,
9. 서울의 완벽한 시설과 만반의 준비태세,
10. 현지 사절단의 결사적인 유치활동

등의 성과로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

양의 동서, 때의 고금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는 누적된 밑천없이는 영광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올림픽 서울개최 결정에 따른 흥분을 승화시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성공적인 대회를 목표로 일로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가지 우견을 피력하려고 한다.

1. 범국민적인 기구

각계각층을 망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효율적인 안을 작성해서 실천에 옮겨 착착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올림픽 종료후에도 국력의 핵이 되기 때문이다.

2. 재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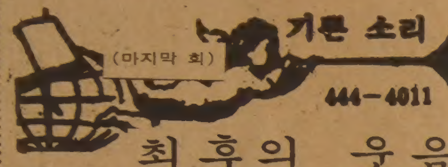
올림픽 서울유치단장 박영수 서울시장은 올림픽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22억달러(1조5천억원) 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중에는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건설비용 16억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장의 보완 확장등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계정은 6억달러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유 있고 후유증이 없는 재정운영의묘를 구현하기를 바란다.

3. 시설확충

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자, 서울시장은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는 IOC의 결정에 따라 88년까지 선수 숙박을 비롯한 모든 시설(선수촌 시설, 교통시설, 기타)이 훌륭히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IOC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모든 조직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고 공표한 바 있거니와 각국의 시설을 보다 충실히 조사 검토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정수적인 시설을 창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바람직한 선수육성

천재일우의 기회다. 하느님이 주시는 기회다. 타국보다 다수의 국내선수가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도 다룰 수 있고 산 공부도 될 것이다. 금메달20개에 못을 박지 말고,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형안으로 민족의 체질에 맞는 과학적이고도 창의성을 내포한 선수육성의 지표를 세워 효과적인 육성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최후의 웃음

—안 상 엽—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다. 철학의 조상이라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문호 톨스토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들이 대답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질문하고 또한 온전한 답을 찾고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설부터 시작되었고, 그 창조역사의 결정이 인생론으로 집착되어 있다. 즉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한된 "아담"(흙 혹은 먼지)에게 창조주로부터 부음받은 생명력이 담겨진 존재가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늘에 뜬 구름같고, 풀잎에 매달린 아침이슬같은 존재등으로 묘사했으나, 그중에서도 "나그네"라는 표현은 매우 깊은 뜻을 갖고 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어느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손을 뜻한다. 길목에서 생을 결산해볼 때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으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평안과 만족도 있으나 괴로움과 불만도 있는 것이다.

한해를 다 보내면서 "송구영신"을 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우선 사람들은 "망년회"를 열어 일년간의 모든괴로움들을 청산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슬픔과 괴로움도 물론 있으나, 대체로는 이웃에게서 오는 외부적인 괴로움인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땅에는 하루에도 평균 70명이 총알에 맞아 죽으며, 1년이면 평균 1만명이넘는다. 왜냐하면 북미의 인구 60%가 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수효가 5,500만개를 넘는다.

사람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반드시 총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움과 거짓과 싸움이 그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인 살인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안하다"는 말이나 술잔을 나누며 떠드는 망년회가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를 부활시키지 못한다.

살해자는 그보다는 훨씬 강력한 이성과 양심과 생명력을 통해 "자기반성"이 신 앞에서 있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무서운 "테로"행위가 새해에 또 다른 모습으로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순간 순간에혼연하게 웃음짓는 웃음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눈물과 피의 소리를 더욱 노엽게 한다. 웃는 얼굴 속에 악령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바로 최후의 웃음이 오는 날 녹아 없어질 죽음의 뼈요, 외식이요, 또한 죽음의 모습으로 증거될 것이다.

사람은 다 길을 가는 "나그네"다. 중국사람들은 길을 도로(道路)라 하는데, 도(道)는 남북으로 뚫린 길이요, 로(路)는 동서로 뚫린 길을 표한다.

인도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뚫린 사방 인생길에 다 괴로움(四大苦)이 가득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인생길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일직선의 나그넷길이다. 그 길에는 주님이보여주신 인생고가 있다. 의식주와 명예와 법과 윤리와 도덕율로 인해 죽으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웃음, 최후의 기쁨, 최후의 승리가어떤 것인가를 증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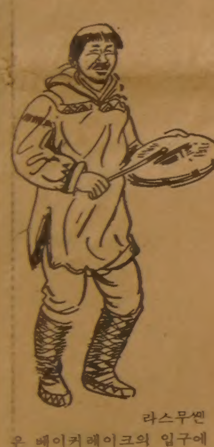
최후의 웃음만이 참웃음이 될 것이다. 디베리스 강변에서 시작된 작은 도시가 대로마제국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장구한 역사와 노력이 필요했다. 빠르다고 꼭 좋아할 것이 아니며, 늦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지만 공의의눈앞에서 최후의 웃음을 얻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요, 축복의 사람일 것이다.

(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13)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라스무센은 배이커레이크의 입구에서 리버 오브멘까지 여행을 했다가 한때 해변가에 살던 에스키모가 전염병때문에 북쪽으로 쫓겨간 소수의 내륙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잡동사니 사람들은 비록 내륙에서 살고 있었지만 민속과 풍습은 거의 해안문화를 갖고 있었다. 라스무센은 관찰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누이트 사람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고대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었다. 짧긴했어도 이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을 했던 관계로 그는 현재의 모든 에스키모가원시에스키모와 유사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분석했다.

그러나 라스무센은 이할미우트를 만나보지 못했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짐작도 못했던 것이다. 나는 미래에도 기록되지않을 역사의 빈페이지를 들춰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앙쿠니 레이크의 연변까지석궁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독자에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예수이전 수천년전 인간의 기억에도없는 먼옛날에 북아시아 대륙에 살던 여러 종족들이 시베리아의동쪽반도 사람들에 의해서언제나 저항할수 없는 압박을 받고살았다. 그 압박은 서서히 가해졌으며, 피할수가 없게되자 이누이트의조상들은 동쪽과 북쪽으로밀려나게 되었다. 일부는 오늘날 시베리아의 북해연안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해안에스키모들과 아주 흡사한 숙치라는 종족으로 살아남아있다. 도망을 치던 나머지 아시아인들은 현재의 축치반도의 좁은 정점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동진하게 되었다. 그때는 북미와 완전히 연결되는 땅이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링해협을 건너는섬으로 연결된 곳이 있고, 오늘날 섬을따라 아시아에서 알라스카로 오는것처럼 수월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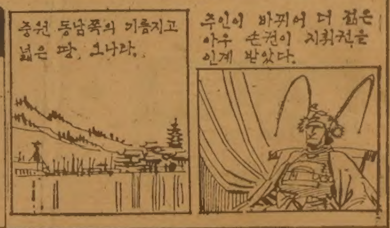
시베리아에 번지고있는 압력때문에 이쫓겨난 무리들이 대륙횡단을 하지않으면 않되었고, 그들이 알라스카 신대륙에 왔을때 이미 먼저 도착한 인디안들에 의해 해안선은 점령, 해안문화를 형성,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을것이다. 서쪽에서 서로 이동한 사람들은 아무도 정착하지않은 내륙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인 북알라스카의 부룩스마운틴 바렌을 거쳐 그레이트 되어 레이크 근처의 편편한 바렌까지 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레이트베어레이크의 동쪽과 북쪽의툰드라는 시베리아의 나무가 없는 북쪽평원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이 한없이 펼쳐지는 평원은 그들이정착하기에 안성맞춤 이었다. 자연환경이 같을뿐만 아니라 서식 동물들도 흡사했다. 사슴을 예로 들어봐도 그당시에 야생이거나 가축으로 기르는 순록이 어마어마한 떼를 지어 아시아의 평원에 살고 있었고, 이순록과 아주 비슷한 카리브는 북미주의 바렌에 큰 떼를지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이주자들은카리브를 따라서 새로운 삶의 토대를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당연히 그들은 같은 무기를 사용했을 터였으므로 자기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석궁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레이트 베어레이크에서 세력을 확장해감에 따라 두가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었다. 하나는 이들 카리브가 해마다 봄철이 되면 북극해안선쪽으로 이동을 했기때문에 내륙에 살고 있던 사람중의 일부는 이동하는사슴떼를 따라 계절적으로해안선까지 갔다.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지식을 얻어 바다와 카리브를 혼합한 문화를 형성해서 오늘날 배더스트 인렐 에스키모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여름철에 카리브를 잡아먹고 겨울철에는물개와 다른 해양동물들을잡아 먹고 산다.

두번째로 그레이트 베어레이크에 살던 사람들을동요시킨 요인은 훨씬 이후의 일일런지 모른다. 즉수세기전에 북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중심부는 캐나다의 밀림지대 남쪽에있는 대초원지대에 있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일부가 북쪽으로 쫓겨나기시작했고 북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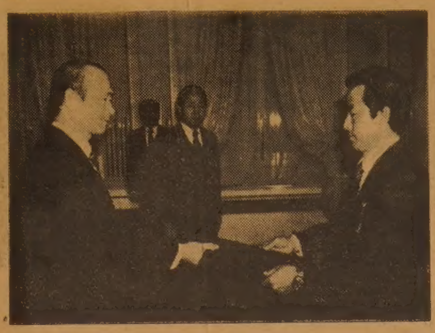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탁명환 교수 초청 신앙강좌
본교회에서는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시며 사이비 종교계의 권위자이신 탁명환 교수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신앙강좌를 실시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들의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제 : 바로믿고 바로알고 바로살자.
강 사 : 탁 명 환 교수(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장 소 : 성 도 교 회 87 ELMHURST DR.(At Islington)
전 화 : 745-7370
일 시 : 1982년 1월1일~1월3일까지 매일저녁 7시부터
후 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토)한인성서신학원, 미주한인장로회카나다노회, 국제종교문제연구소카나다지부
성도교회목사
김 용 진

내고향 통닭집
내가 등진 저바다 건너
고국하늘 밑에 살고있는 부모형제를 그리는
향수…, 벗과 함께 쌓이고 쌓인 그 모두를
통털어 여기에 자리잡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듯 기다리고 있는 전기구이
닭으로…, 아니면 고향의 내음이 담뿍풍기는 곰탕, 우동, 빈대떡, 만두 등등 조국의 얼로
집썹으며 마음 답답함을 달래보는 기회를 종종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 W
(블루어×매닝)



靑瓦臺政務제1首席비서관에 許和平 보좌관을 任命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공석중인 대통령비서실 政務제1수석비서관(次官級)에 許和平비서실보좌관을 임명, 이날상오 任命狀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사진)

◇許政務제1首席略歷▲慶北浦項출신·44세 ▲浦項高·陸士(17期)卒▲陸大卒▲대대장▲사단작전참모▲국방부特檢團진열관▲保安司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보좌관 ▲準將豫編

"職場은 제2家庭" 인식을

全대통령 九老工團방문 從業員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연말을 맞아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서울九老工團내 優美나일론주식회사(대표 河榮)를 방문, 『품질이 좋은 상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므로 종업원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만들기위해 誠과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이회사 식당에서 종업원 2백여명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이같이 말하고 『근로자들은 세계제일의 직업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내직장이 제2의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天職의식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서도 민족이 생존한것은 국민이 지혜가있고 부지런하며 단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 『기업체나 단체도 소속원 하나하나가 주인의식으로 단결, 성실하게 생산활동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면 국가경제도 좋아진다』고 말하고 『기업이 잘되려면 기업주와 종업원이 한덩어리가 되어야한다』면서 勞使간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경제가 잘되려면 이제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하고 생산성 提高와 품질향상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수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優美나일론은 지난달 9일불이나 4백50평의 작업장이 燒失(피해액9억5천만원)되었으나 근로자들이 공장재건에 앞장서 20여일만에 복구, 올해 생산목표를 달성한 勞使협조모범업체이다.

全대통령내외는 오찬에 앞서 이날상오11시40분부터 20분간 이공장의 작업장을 둘러보고종업원들을격려했다.

이어 全대통령내외는 工團내 泰林모피주식회사(대표 李鍾範)에 들러 공장내부를 돌아보고 작업중인 종업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 회사는 34명등 여성부자유자 36명을 고용하고있는 업체로 全대통령은 이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平和위협 어떤挑發도 분쇄"

全대통령 聖誕메시지 "生存위해 힘 길러야"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평화를 실현하고자하는 우리의 끈덕진 노력에도불구하고 北韓은 도발과 惡意에찬 선전, 간첩의 南派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지역의 긴장의 근원』이라고 지적, 『긴장이 계속되는한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는 단하나의선택이 있을 따름이며 그것은 힘을 기르고 준비태세를 갖추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駐韓미군 장병에게 보내는 聖誕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韓美동맹은 「지켜지지않는 자유」란 있을수 없다는 신념아래 자유를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전세계에걸쳐 금년에도 평화가 특히 위협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韓美연합사가 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도전도 이를 저지할능력이 있으며 또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駐韓미군장병은 비록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화수호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있으며 평화수호자로서의 이 역할은 우리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확고부동한 결의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1漢江 쌍둥橋 어제竣工 開通式

全대통령始走

全대통령내외는 24일 九老工團방문에 앞서 제1漢江橋확장및 上道터널개통식에 참석, 테이프를 끊고 始走했다.

光州사태관련등 1천1백13명 假釋放

聖誕맞아 9명刑執行정지·長期囚23명포함

정부는 성탄절과 新正을맞아 光州사태, 金大中등 내란음모사건및 기자협회사건 관련자 9명을 비롯 전국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중인 재소자가운데 모범수형자 9백57명과 전국소년원에 수용중인 모범소년원생 1백47명등 모두 1천1백13명에대해 형집행정지와 특별가석방및 특별가퇴원을 실시키로 했다.

25일 상오10시 전국30개교도소등에서 일제히 석방될 이번특사자중에는 光州사태관련자인 洪南淳씨(68·변호사)및 明魯勤씨(48·전 全南大교수)와 金大中등 내란음모사건관련자 朴正勳씨(40·한국정치문화연구원부소장)·전記協사건관련자 金泰弘씨(39·전記協회장)등 9명의 형집행정지처분자와 무기수1명, 장기수 23명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특사자의 선정기준은 ▲형집행정지처분자는 죄질, 범행동기, 개전의정및 석방후의 위해도등을 ▲가석방자는 형기의 3분의2이상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갖추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등을 고려했다.

李鍾元법무부장관은 24일 『이번 성탄및 新正경축 은전은 수혜자들에게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개전의정을 보이지않거나 상습범·마약범·유괴범·폭력범등 고질적인 사회악사범에 대해서는 법익보호와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구치소와 교도소별 가석방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구치소=54▲大邱=49▲釜山=74▲安養=99▲永登浦구치소=25▲城東=29▲大田=44▲光州=45▲永登浦=1백13▲仁川교도소=20▲水原=20▲全州=20▲馬山=34▲金海=30▲淸州=33▲順天=26▲金泉=21▲春川=15▲公州=28▲原州=18▲晋州=9▲安東=10▲木浦=24▲群山=16▲慶州=9▲江陵=8▲長興=19▲洪城=9▲忠州=11▲義州=17

3월 外相·5월 頂上회담

日, 1월實務접촉서 經協타결노력

【東京24日=聯合】일본정부는 내년1월 기우찌(木內昭胤)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한국에 파견, 60억달러 경협문제에대한 일본측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섭을 본궤도에 올려놓은후 3월에 외상회담과 5월에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한다는 일정을 검토중인것으로 24일 보도됐다.

아사히신문은 고위실무회담에서 양국간에 합의점이 발견되면 3월중 사꾸라우찌(櫻內義雄)외상이 訪韓, 60억달러문제를 최종 타결한후 이를 토대로 스즈끼(鈴木善幸)수상이5월께 訪韓, 全斗煥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관계전반을 협의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駐日波大使도 亡命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지드슬라프·루라즈駐日폴란드大使는 24일 일본정부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한다음 부인과 함께 망명대상국인 미국을 향해 출국했다. 駐日외국대사가 망명하는 경우는 루라즈대사가 처음이다. 이날 폴란드대사관은 문의전화를 일체받지 않았다.

行政調整室長에 孫守益씨를任命

◇孫守益실장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行政調整室長에 孫守益前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孫行調室長略歷▲全南興德출신·49세▲서울大法大卒▲京畿道坡州·富川군수▲내무부지방국장▲京畿지사▲내무부차관▲忠南지사▲行政改革委부위원장 ★얼굴 2面

江原大學총장 李敏載씨辭表

江原大學校 李敏載총장이 24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江原大총장 후임에는 李某씨가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

旅券수수료 印紙를 영수필증으로 代替

외무부는 새해1월1일부터 지금까지 旅券手數料납부때 사용해온 收入印紙 대신 영수필증을 발행키로했다. 영수필증제도는 현행 수입인지대와 동일하며 民願人이 이를 여권교부창구에 제출하면 영수필증의 일련번호가 등재된후 여권이 발급된다.

외무부는 지난해 권종수입인지대로 60억원이 國庫에 수납됐는데 내년 한햇동안 영수필증대로 1백억원을 計上, 이중 62억8천만원은 國庫에, 나머지 37억2천만원은 수입대체경비 사용규정에 따라 외무부자체의 운영경비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家電製品값이 떨어진다

새해부터시행、特別消費稅率 확정

公用自家用·전기냄비등 消費稅 면제
VTR·전자렌지등 4년간 잠정稅率
스키용품 40%、溫水器등 새로 賦課
家具類 免除대상 1조당 50만원까지

自動車는 稅率환원 값올라

小型TV·냉장고등 現行대로 적용

◇工場渡가격 변동상황 (단위 : 원·%)

품명	규격	稅前가격	세율 현행	세율 개정	稅後가격 현행	稅後가격 조정	인상률
응접세트 1조		290,000	20	0	401,940	319,000	△20·7
장롱 1조		490,000	20	0	679,140	539,000	△20·7
VTR	RSV7700	509,569	40	4	852,000	589,673	△30·8
VTR 테이프	VHS용	5,600	40	4	9,363	6,480	△30·8
전자렌지	RE700W	163,856	28	2·8	245,850	186,802	△24·1
전기남비	EF-1060	14,611	28	0	21,923	16,072	△26·7
전기난로	SE-1K90	12,842	28	0	19,269	14,126	△26·7
토스터	GT-802A	14,713	28	0	23,076	16,184	△26·7
가스오븐렌지	린나이615	161,818	0	28	288,000	392,831	36·4
천연약수	1702ml	182	0	20	200	252	26·0
사진기		290,000	40	0	484,880	319,000	△34·3
스키용품		454,545	0	40	500,000	760,000	52·0

특별소비세율이 24일 확정됨에따라 내년부터 TV등 일부家電제품값이 떨어지게되는대신 14%의 잠정세율을 적용해주던 승용차의경우는 내년부터 이를 환원, 본래의 20%특소세율을 다시 적용키로함에따라 자동차값은 오히려 오르게되었다.

이날 재무부가 마련, 차관회의에올린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스키용품, 주스등 천연과실음료, 천연약수, 크리스탈유리제품, 고급가스이용기구, 물엿, 1개당10만원이 넘는 노출계등 고급사진기 부대용품등에도 특별소비세가 새로 붙게되었다.

또 3급이상 공무원이 정부의 손수운전권장에따라 公用으로 自家用을 구입하는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

이밖에 전기남비나 화섭기등에는 특별소비세율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VTR·VTR테이프, 전자레인지등은 82년부터 4년간 기본세율을 낮춘 잠정세율을 적용토록했다.

가구제품은 세율을 내리고 장롱의 경우 면세대상을 현재 1조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으며 소형TV나 냉장고는 현행 잠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했다.

한편 이 시행령에 따르면 스키장에대해 특별소비세 10%가 부과되는것과 함께 스키、스키화、스틱등、스키용품엔 40%의 특별소비세가 붙는다.

고급가스이용기구인 오븐레인지 순간온수기엔 7%、크리스탈유리제품엔 28%、분리형TV튜너나 동수상기엔 40%、천연과실음료에 10%、초정약수등 천연약수에 20%、로얄제리 海狗腎에 20%、전자게임기 에어크리너 정수기 사우나바스 스팀바스 온수기 잔디깍기 이온수기등에 28%의 특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다.

또 물엿을포함한 澱粉糖엔 10%、휘발유등 석유제품을 원료로 가공해서만든 자동차나 엔진용연료엔 1백60%를 부과하며 대형모터보트(선체 8m초과)대형요트(〃9m초과)엔 40%세율을 60%로 인상했다.

가구제품은 세율을 현행20%서 15%로 내리는 한편 비과세대상을 조정, 장롱의 경우 1개씩 떼어 쓸수있는 독립식은 1개당 20만원、따로 뗄수없는 조립식은 1조당 50만원으로、응접의자는 1조 30만원、장의자 1개는 15만원、1인용1개는 7만원씩으로 규정했다.

전기음향기기는 현30%의 세율을 25%로、휴대용 카세트는 30%서 10%로 내리는 한편 비과세대상이던 리듬박스 음향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 컴퓨터오르간등에도 25%의 과세를하며 화섭기는 비과세키로했다. 고급사진기는 비과세대상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조정했다.

또 정부의 관용승용차 대체계획에따라 3급이상 공무원(별정직포함)이 스스로 운전하면서 업무목적에 쓰기위해 승용차를 구입할때는 1인1대에한해 비과세토록했으며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전기남비 전기난로 전기곤로 토스터등도 비과세키로했다.

이밖에도 VTR VTR테이프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82년부터 85년까지 3단계의 잠정세율을 적용, 우선 82년과 83년엔 VTR와 VTR테이프는 기본세율40%를 4%、전자레인지는 28%를 2.8%만 적용키로했다.

또 스키장은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공인선수가 사용하는것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당 49만원짜리 장롱은 현행 특별소비세가 붙은 67만9천1백40원이던것이 53만9천원으로 20·7%가 떨어지게 됐으며 VTR(SV7700형)는 85만2천원에서 58만9천6백73원으로 30·8%가 떨어지게됐다. 스키용품은 현재 50만원짜리가 76만원으로 52%、가스오븐레인지는 28만8천원짜리가 39만2천8백31원으로 36·4%가 오르게 됐다.

美、對폴란드經協 凍結

레이건警告 彈壓계속되면 蘇에도報復

◇레이건 美國 대통령이 23일밤 전국TV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워싱턴23日AP=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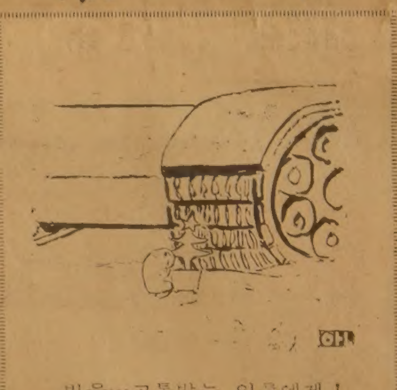
【워싱턴24日AP=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23일밤 미국의對폴란드무역중 중요부문을 동결시키는 한편 폴란드의 군사지도자들에게대해 「그들의 죄악이 값비싼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건대통령은 『폴란드의 전제세력들과 외부에서 그들을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죄악을 중지하지않을경우 그들은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한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자신이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만약 폴란드에서의 탄압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소련에대해서도 경제적 정치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같은 보복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양국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경제적 추가조치』라고만 했다.

社會漫評



빛을…고통받는 인류에게!

地平線

영어로 하면 과학소설(사이언스·픽션)인데 번역은 空想과학소설이다. 소설이란 말자체가 空想이란 뜻을 지닌 것인데, 새삼 空想이란 말을 덧붙이는 까닭은, 거기 담긴 내용이 황당무계하다든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空想이라해도 「과학적 空想」은 그처럼 허망한 것만은 아니다. 흔히 처음리는 예로, 1869년에 쓴 쥘베르느의 「달세계여행」은 달로키트의 발사지점·着水위치등, 꼭 1백년뒤 아폴로 우주선의 여행을 미리 본듯이 그리고 있다. 그가 「海底2萬里」에서 그린 잠수함 노틸러스는 「발명」한 그보다 빨리 현실화 됐고, 화염방사기 등은 몇 世代나 뒤처진 「在來式무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과학평론가요 과학소설작가로 꼽히는 아더·C·클라크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권위있는 과학자가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의 말은 거의 틀림없이 정확하다. 그러나 그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거의 틀림없이 빗나간다』 스스로도 인공위성의 우주통신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의 말대로, 가능성을 인정하는 과학적 空想의 예언능력은 과대평가될 만큼 높다.

▼또한사람의 과학소설가 H·G·웰즈는 이런 글을 쓴적이 있다. 『인생의 대부분은 고역으로부터 해방된다. 풍부한식량, 편리한 가구, 의료보건서비스, 주택과 수송수단, 아름다운 교육, 사회보장이 인류에게 제공된다』 이글은 31년 「리버티(自由)」에 실린 「50년뒤의 세계」중 한토막이다. 그러니까 바로 금년, 81년의 세계를 묘사한것이다.

▼그러나 장미빛 「50년뒤」는 어떤 「기적」을 가정한 꿈의 희망일뿐, 그의 예언은 전혀 다른 색깔이다. 『50년뒤 사람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한층 불안정하고 衣食住는 결핍으로 시달릴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밟아들일 기력도 없이 남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世界史大系」의 저자인 웰즈는 문명비평가로서 더 알려진 사람이다. 「과학적空想」과 史眼을 겸비한 그의 예언은 섭섭하지만 적중됐다고할 수 밖에 없다.

▼이제 크리스머스를 지나고 며칠만 있으면, 웰즈가 비관했던 81년은 영영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그의 「51년뒤」、82년도 그럴까. 다행히 예언자 웰즈는 「기적」을 말하고있다. 그것은 「정신적 에너지의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는 마당에 음미할 만한 대목 일것같다. 아무래도 세밑은 회한과 희망속에, 생각이 많은 철이다.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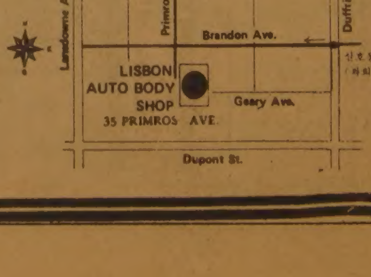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영두, 이건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核戰이후의 世界는 없다"

教皇廳、軍縮協商 즉각개시촉구

대량虐殺사태…生存者도 治療불능
「事前예방」유일한 對策

【바티칸시티23日UPI=聯合】바티칸교황청은 23일 核전쟁이 발발하면 의료시술이 불가능한 대량학살의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지도자들에게 核무기감축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교황청은 美蘇등 5개국 과학자들이 작성, 이날 교황청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보고서를통해 核폭탄이 투하되면 많은 인명이 몰살될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기회를 거의 완전하게 상실한채 고통을 받다가 곧 사망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고서는 核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을수있다는 주장들은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을 반영한것으로서 核전쟁이 발발하기만하면 필수적으로 죽음과 병고가 뒤따를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한꺼번에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면 의료진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된다고 말했다.

이보고서는 1메가톤의核폭탄이 인구2백만의 도시에투하될경우 약25만명이 사망하고 50만명이 부상할 것이며 1백82㎢의 지역이 완전폐허가 될것이라면서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원자탄은 겨우 15kt에 불과, 요즘의 어떤 전술核무기보다도 그 파괴력이 약하나 그피해는 엄청난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 보고서는 또 최상의 시설을 자랑하는 美매사추세츠州의 보스턴의료센터도 한꺼번에 40명의 중화상자가 몰려들면 거의 손을 쓰지 못할것이라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병원도 核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核전쟁과 관련해서 내릴수있는 유일한 결론은 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 바티칸당국에 의해 美·蘇·英·佛등에 전달됐다.

◇세계平和호소하는 教皇 추기경들앞에서세계평화를 촉구하고 폴란드를위해 기도해줄것을 호소하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바티칸시티23日UPI電送=聯合】

緊張感속 조용한 祝祭무드
巡禮·觀光客맞을채비 끝내
聖地베들레헴 표정

【베들레헴23日UPI·AP=聯合】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지 베들레헴시당국은 성탄절을 맞기위한 모든준비를 끝냈으나 최근 이스라엘점령군과 주민간의 충돌사건으로 긴장분위기가 감돌고있어 금년 성탄절이 빛을 잃을까봐 잔뜩 우려하고 있다.

엘리어스·프리에지시장은 『금년 성탄절이 예년에비해 적막할것 같다』면서 『시민들도 즐거움 보다는 우울함을 느끼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에지시장은 또 『지구상의 전인류에게 보내는 평화와 사랑의 성탄메시지가중동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의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점령지인 요르단江 서안의 신임 메나헴·밀손시장은 여곳 상인들이팔레스타인가옥파괴에 대한보복으로 성탄절축제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위협하자 파괴된 가옥을 복구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긴장감속에서도 23일 20대의 비스에 분승한 순례객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등 축제무드는 점차무르익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관광성 관리들은 성탄전야축제에는 약 2만6천2백명의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참가할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간 蘇軍 9萬으로 증강
侵攻2周…국민저항도 강화

【워싱턴23日AP=聯合】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병력은 9만명으로 증가시켰으나 아프간 국민들의 저항은 그어느때보다 더욱 강화되고있다고 23일 미국의 한 아프간사태평가보고서에서 밝혀졌다。美관리들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2주년에 즈음한 이 평가보고서에서 아프간의 반란부족들이 이나라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련군을 철수토록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정부는 아프간人들의 5분의1이 난민들로서 약2백50만은 파키스탄으로, 약1백만은 이란으로 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련은 지난 79년12월27일 바브라크·카르말의 소련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5만5천명의 소련병력을 아프간에 진입시켰으나 1년후에는 8만5천명으로 증강했으며 현재는 9만명으로 늘린것으로 美국무성은 추산하고 있다.

이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소련군사상자수가 1만5천~2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망자의 유골이 고향으로되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전했다.

對蘇·波 제재조치에 美·西歐견해차 심각

【브뤼셀23日UPI=聯合】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서구회원국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폴란드와 이를 사주한 것으로보이는 소련에대한 제재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상당한 견해차이를 빚고있다고 나토소식통들이 23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나토서구회원국들이 이날 주례대사급회의에서 폴란드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만 표시했을뿐 미국이 제의하고있는 對蘇및 폴란드 제재조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구각국을 방문중인 로런스·이글버거美국무성 유럽문제담당차관보는 22일 영국·서독및 프랑스등 서구맹방들의 외상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對蘇무역및 기타제재조치에 대한 이들의 의사를 타진했다.

白堊館 두補佐官 미즈·베이커反目說

【워싱턴23日=聯合】레이건미국 대통령의 두보좌관인 에드윈·미즈고문과 제임즈·베이커수석보좌관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23일 보도했다.

메아리

세계스포츠의 벽은 높다. 특히 중공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우리는 우선 아시아에서 중공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정상을 바라볼수 있다.

『아시아를 장악하라.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라』이런 구호를 중공은 운동선수들에게 내렸다. 10억 인구를 밑천으로 그들은 스포츠에서 「세계속의 중공」을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한해 2억5천만달러의 예산을 스포츠에 쏟아 넣고 있지만 이것으론 넉넉지 못하다. 투자의 한계때문에 중공은 소수분야의 나이어린 선수들에게 집중 투자를 한다.

눈앞의 목표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이다. 그다음 이미 참가의사를 밝힌 88년서울올림픽이다. 전세계를 놀라게 할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를 친다. 적어도 스포츠에선 중공은 후진을 벗어나 선진대열에 올라섰다.

서울올림픽개최 확정은 저물어 가는 이 해가 우리에게 안겨준 화려한 빅뉴스였다. 86년 아시안게임마저 유치해 스포츠 강국이란 자신감이 넘친다. 이 긍지가 앞으로 「서울의 수확」으로 거둬 들여져야 하겠다. 결실의 씨앗이 새로운 얼굴에서 찾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 新人體育賞

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일보사는 「신인체육상」을 제정하였다. 젊은 선수들에게 새 희망과 자극을 주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우리 국내 체육수준을 국제적으로 이끌어 올리려는 의지도 담겼다.

19년의 연륜을 쌓아 올린 한국신인체육상 수상자들의 얼굴을 모아 보면 그야말로 기라성 같다. 한국 스포츠의 「스타 앨범」이라고도 할수 있을법 하다. 「신인」으로 발굴된 수상자들은 그대로 우리 스포츠의 대들보로 자라 나갔다.

한국신인체육상은 선수의 기량만을 따지지 않는다. 엄격한 스포츠맨십이 요구된다. 어떤유망주는 그가 소속했던 팀의 판정불복사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일까지 있었다.

올림픽유치의 환호에 젖은 올해도 그감격을 메고 달릴 수상자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들은 곧 내일의 주역이다. 未完의 大器에 어려운 사명이 맡겨졌다.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86년, 88년의 고지를 이들이 뛰어 넘어 줘야 한것이다. 수상자들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며 정진을 당부한다. 젊은이의 힘은 무한한것이다.

폴란드被檢者들 속옷만 입은채 추위속 天幕생활

수용소 自由勞組지도자를 蘇에 이송說
야루젤스키知識人69명과 戒嚴후첫對話

2천 鑛夫항쟁계속

【빈·런던23日UPI=聯合】폴란드계엄당국이 일련의 對국민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운데 광부·자유노조·가톨릭교회간의 3者대화가 23일현재 계속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당국에 억류중인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모종의 중대성명을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런던에서 청취된 바르샤바방송은 지난 13일의 계엄령선포와 함께 휴교조치가 내려졌던 전국의 초중등학교들이 내년1월4일을 기해 일제히 개교할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바르샤바 방송은 실레지아탄광지대의 2개탄광에서 여전히 2천여명의 광부들이 계엄당국에 대한 지하 갱내 항쟁을 계속하고있다고 보도하면서 실레지아탄광지대의 이같은 광부파업사태가 전국노동자들에 큰 충격파를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釋放者4명 再拘束

【빈23日AP=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최근 자유노조의 역할을『정치적으로』재평가하는 문제를 계엄당국자들과 논의한다는데 동의한것으로 23일 빈에서 보도됐다.

이 통신은 현재 교황청을 방문중인 폴란드주교회의의 사무국장 브로니스와프·다브로프스키 주교의 말을 인용, 바웬사가 자유노조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는 문제를 당국과 논의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바웬사가 최근 다브로프스키주교가 입회한 가운데 정부관리들과 만났다고 덧붙였다.

戒嚴후첫 정세협의

【빈23日UPI=聯合】최고의결기구인 국군사령의회를 이끌고있는 폴란드 공산당제1서기겸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는 당정치국회의가 소집된지 하루만인 23일 과학자·대학교수등 69명의 지도급 지식인들과 회담을 갖고 폴란드에 애국적합의가 성취될수있도록 협력해줄것을 호소했다고 빈에서 청취된 관영 바르샤바 방송이 보도했다.

야루젤스키가 민간지도자들과 직접만나 현 국내정세를 논의한것은 지난13일 계엄령이 선포된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야루젤스키와 회담한 69명의 지식인들중 대학교수들은 야루젤스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의 대학및 고등학교에서의 조용한 학문、교육활동을위한 여건을 조성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있음을 강조했다고 바르샤바방송은 전했다.

民間人과 접촉꺼려

【파리23日AP=聯合】그다니스크연안의 3개주요도시에서 구금돼있던 수많은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들이 소련으로 이송되었다고 23일 폴란드 가톨릭교회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계자는 폴란드여객선 바벨號편으로 스웨덴 남부의 이스타드항에 도착후 스웨덴방송과 가진회견에서 자유노조지도자들이 그다니스크지역의 여러 수용소에 수감된 다른 폴란드인들과 접촉하는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이송조치가 취해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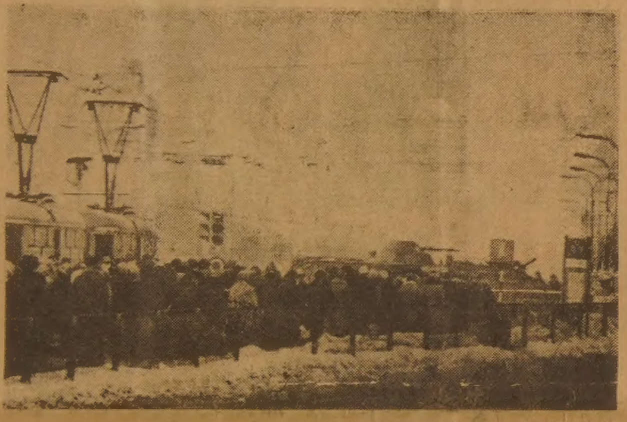
폴란드人 3만抑留

【런던23日AP=聯合】폴란드의 계엄통치하에서 약 3만명의 폴란드시민들이 강제수용소에 억류되어있으며 이들 피억류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23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 방송은 폴란드로부터 비밀리에 BBC에전달된 녹음테이프를 인용、이들 피억류자들이 추운 날씨속에서 천막생활을 하고있으며 빵과물만으로 연명하고있다고 폭로했다.

이 방송은 또 피억류자들은 파자마만 걸친채 떨고있으며 체포될때 입고있던 겉옷들은 모두 벗겨져 계엄당국이 보관하고있다고 말했다.

BBC방송은 폴란드 가톨릭교회와 로마교황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것도바로 이같은 피억류자들의 참상이라고 말했다.



◇電車기다리는 波국민들 눈덮인 바르샤바 거리에서 많은 폴란드人들이 전차를 타기위해 줄을 서있다。줄앞쪽에 탱크2대의 포탑이 보인다。오른쪽탱크의 기관포끝이 위를 향해있다。【바르샤바23日AP電送=聯合】

◇썰매타기에 추위도 잊고… 날이 추워져서 얼음이 꽁꽁 얼수록 개구장이들은 신이난다。여자아이、남자아이、온동네 아이들이 다몰려나와 하루종일 얼음을 타며 시간가는줄 모른다. 【경기도烏山에서 鄭在斗기자찍음】

十字春秋

「利益이 2倍라면…」

鄭範錫〈國民大 총장〉

1939년의 9월3일이던가, 獨逸의宣戰布告로 유럽大陸은 전쟁에 휘말려들게되고 마침내는 세계로 확산되어 제2차世界大戰이 되고말았다. 선전포고를 한 3일후 독일정부는 전국에 配給表를 배포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엄격히 통제하였다고한다. 배급에 의한 소비생활은 항상 생활필수품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暗去來가 나타나곤 한다.

이에 독일정부는 嚴罰主義로나가 암거래의 질이 나쁜경우에는 사형에 처했다고 들은듯하다. 그러나 암거래는 극형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익이 2배、3배로 크게 될듯하면 계속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청탁을 없애기위하여 온국민이 합심협력하고 있어 큰성과를 올리고있다. 不正하게 돈을 써가면서 請託을 하여 이권등을 한다면, 이권의 내용이 대단한 것이라면 투입한 비용의 2배보다 훨씬 많은 5배、10배의 利益을 볼수도 있을 것이다.

2배의 이익만 생겨도 극형을 무릅쓰면서 범죄행위를 하게되는데 5배、10배의 이익이 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유혹에 빠지기쉬울듯하다.

우리는 키필코、부정부당한 청탁을 배격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자세가 굳건해야 하지만 동시에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청탁에 불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請託을 받은 사람이 유혹에 못이겨 응하게 되면 일을 꾸며 文書化하게된다. 그런데 단체가 크고 복잡하고 결재하는 서류가 많을 때에는 최고책임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부지런하더라도 외부의 간섭을 막고 그 문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다. 請託받은 사람은 이런 기회를 惡利用할듯 하다.

그러기 때문에 文書 특히 중요한 法令의 起案 이나 거액의 이권에 관련된 起案은 일정기간동안 보존하여 재점토·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法令이 실시되고, 일정한 政策이 실시되어 시간이 지나면 그 法令과 政策의 功罪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起案者·관련자 우가차없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起案者에 대한 신상필벌이 실현되어야 한다.

波사태관련 對蘇제재싸고 美·西獨 팽팽한 줄다리기

美國"가스施設계약취소"요구
西獨"事態만 더욱 惡化시킨다"

레이건 온건政策의 배경

【워싱턴24日=曺淳煥특파원】레이건美대통령이 23일 美수출입은행의 수출차관보증중지등 폴란드를 상대로 취한 일련의 경제제재는 극적이아닌 온건한 조치였다.

하지만 레이건대통령은 20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폴란드국민들에 탄압이 계속되면 폴란드뿐아니라 소련에도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을 경고했다.

레이건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국무성고위관리가 기자들에게행한 배경설명에서 미국이 폴란드와 소련에 더 강력한 재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미국의 對폴란드및 對蘇제재는 폴란드군부가 얼마만큼 탄압정책을 완화하느냐와 미국이 얼마만큼 서방우방들과 단합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취한 ①수출입은행의 對폴란드수출차관보증중지 ②폴란드항공의 미국취항중지 ③폴란드의 미영해어로작업중지 ④對폴란드고도기술수출억제를 우방에 건의한다는 4가지 조치중 마지막 것을 빼놓고서는 모두 미국이 우방과 협의없이도 제재효력을 낼 수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방과 협의해야효력이 나올 것은 유보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구금된 폴란드자유노조간부등 정치범의 석방、계엄령 해제、언론자유및 자유노조의 기능회복을 야루젤스키에게 서한을 보내 촉구한 것은 도의적 호소로서 물론 서방과 협의했지만 단합을 하지 않고서도 호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미국무성의 고위관리는 미국이 우방과 단합한 제재조치를 바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미국이 국제적의 무에 따라 단독 제재도 필요할 경우에는 하게될것이라고 배경설명에서 말했다.

하지만 2년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대한 제재로 미국이 對蘇곡물금수가 우방국들과 충분한협의없이 취해져서 제재효과도 거두지못했을뿐아니라 서방국간의 불협화음을 빚어낸것을 미국은 기억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첫단계로 폴란드에 온건한 경제제재를 가한것은 우방간의 불협화음을 피하며 아직도 야루젤스키군부가 자유노조및교회와 협상·타협할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것을 뜻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연설에서 폴란드에 억압이계속되면 더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폴란드정부가 준수키로한 그다니스크 협정과 같은 문서에 규정된 기본인권을 존중하면 미국은 산조각난 폴란드경제를 돕는데 기꺼이 일익을 담당할것』이라고 말한데서 잘 나타나있다.

서방우방국들 가운데 제재문제를 놓고의견이 가장대조적으로 대립되어있는 나라는 미국과 서독이다. 지난3일동안에 이글버거미국무성유럽담당차관보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타진하고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했으나 특히 서독과의 의견이 폭넓게 대립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폴란드에대해 현단계에서도 강력한 외교및경제제재의견을 내놓은데 대해서 서독은 성급한제재는 폴란드국민을 더불행하게 만들며 동서관계를 악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구권의 자유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미국과 서독의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나 서독의 강력한 제재반대에 다소 회의를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對蘇경제제재에관해 서방국간에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은 소련과 서독간에 한달전에 체결된 시베리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수십억달러의 가스공급파이프선건설계약취소라고 한다.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서독이 이계약을 취소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서독은 미국이 연간 2천3백만톤의 곡물을 소련에팔고있는한, 그리고 소련탱크가 폴란드국경을 넘지않은한 계약취소는 않을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미국여 현단계에서는 對蘇곡물금수를 취할 의향이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PHONE ....

謹賀新年

송구영신하는 계절을 맞아 고객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지난 한해동안 후의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려식품

원재훈 (전화 : 531-2242)

年末年始 음주운전 特別단속
들뜬기분에 "한잔" 조심을
적발되면 法定最高刑에
遊興街·간선도로 24시간단속
全交通警官·탐지기 4백여대 동원
어제부터 10일동안…合意봐도 處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한 10일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집중단속된다. 치안본부는 24일 망년회등 각종모임으로 들뜬 세모분위기속에서 술을많이마신 자가운전자등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을것으로 보고 새해1월4일까지 각종차량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기간동안 서울의 70여대를 포함, 전국적으로 4백여대의 음주감지기와 전교통경찰관(서울은 하루평균 9백여명)을동원, 유흥가와 호텔주변, 교통이 혼잡한 도심간선도로 등지에서 24시간 단속키로했다.

◇음주운전단속 첫날인 24일하오 교통경찰관이 용의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붊게해 알콜농도를 측정하고있다.

단속기준은 음주감지기로 측정결과 혈액1㎖당 알콜농도가 0.5㎎이상, 또는 호흡량 1ℓ당 0.25㎎이상일때인데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형사입건된다.

이같은 주량은 보통 한국사람을 기준, 청주1홉 맥주(큰병)1병반정도, 소주반홉정도를 5분이내에 마신후 3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정도인데 웬만한 술꾼이면 모두 위험선을 넘는것으로 돼있다.

형사입건됐을경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평균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2개월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고▲연간2회 이상 입건됐을경우 면허자체가 취소된다.

경찰당국자는 들뜬 세모기분과 내년부터 교통사고를내더라도 합의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때문에 방심하는사람이 많아 음주운전이 많아질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같은특례법이 실시되더라도 음주운전의경우는 8대중과실에 속해 합의와는관계없이 형사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은 영업용 차량보다는 자가운전자가 심한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경찰집계에 따르면 지난11월말현재 전국에서는 모두 3백2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모두 형사입건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천1백65건이 발생, 2백15명이 숨지고 1천9백33명이 부상했다.

10월말 현재 전국의 자가용승용차는 38만9천2백9대로 영업용 15만5천7백31대의 배가 넘고있으며 전국의 차량은 모두 56만3천7백2대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속도감과 차선, 방향감각등을 둔화시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있어 선진외국에서도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만은 엄중히 단속하고있는 추세에 있다. 【具用書기자】

장난감拳銃 은행強盜미수
請願경찰이 20代덮쳐逮捕
大邱

신탁銀 大新洞지점

【大邱=聯】은행에 모의권총과 흉기를든 20대강도가침입, 현금을 털려다 경비중인 청원경찰과 격투끝에 검거됐다.

23일하오5시50분께 大邱市中區大新洞103 서울신탁은행 大新洞지점(지점장 李기수·46)에 金孟洙씨(23·전남光陽郡玉谷面太仁里)가 모의권총1정과 과도를들고 침입, 청원경찰 徐명교씨(28)등을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하다격투끝에검거됐다.

범인 金은 이날 은행뒷문을 통해 오른손에 모의권총을 들고 왼손에는 과도를 들고 들어가 경비중이던 徐씨의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현금을 요구했다.

金이 가진 권총이 장난감권총임을 눈치챈 徐씨가 「가짜권총이다」라고 소리치자 출납계 행원 金晟佳씨(24)가 재빨리 의자를 집어 범인 金을 향해 던졌다.

이에 놀란 범인 金은 뒷문을 통해 1백50m쯤 달아나다 뒤쫓아간 청원경찰 徐씨와의 격투끝에 검거됐다.

이날 은행에는 다른 행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청원경찰 徐씨와 행원金씨등 2명이 남아있었다.

◇범인 金孟洙

범인 金은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전국을 배회하다 연말을 앞두고 용돈이 궁해 지난22일 釜山에서 大邱로올라와 은행강도할것을 결심하고 시중에서 장난감권총과 과도를구입, 범행에나섰다』고 말했다.

大入學力考査 30일발표
文務部 席次등 기재한 通知表 教委서나눠줘
컴퓨터採點 예상보다 빨라

문교부는 24일 82학년도대학입학학력고사의 수험생성적과 전국단위의 계열별전체 석차발표를 예정했던 내년1월7일보다 8일앞당겨 오는 30일상오10시 실시키로했다.

문교부는 24일 학력고사성적발표일을 이처럼 앞당기게 된것은▲올해새로도입한 4대의 컴퓨터로 답안지채점과정이 단축됐고▲예비고사가 올해부터 학력고사로 바뀜에따라 계열별, 지역별 커트라인이 없어지고 3修감점제가 폐지됐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30일 고등학교졸업자및 졸업예정자는 출신고등학교에서▲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해당 市·道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에서 일제히 개인별성적과 전국단위의 계열별(인문·자연계)、남녀별석차 통지표를 주게된다.

전국단위의 성적분포는 1점간격으로 인문·자연계열과 그계열내의 남녀별 석차를 알수있게했는데 성적통지표를 본인이 직접받을수없을때는 그가족에게도 교부한다.

이번 성적통지서는 학력고사 부정행위자3명, 4교시를 모두 결시한 1만4천여명, 방송통신고수료자중 고등학교졸업인정평가시험에 불합격된 26명에게는 교부되지않는다.

人波로메운 歲暮의거리

◇성탄절 이브인 24일하오 도시민들의 발걸음은 그저 부산하기만하다. 歲暮는 아직 1주일 남짓 남았으나 시민들의 표정에는 한해를 결산하듯 明暗과 희비가 차분히 깔렸다. 연말경기는 불황과 검소풍조탓인지 인파로붐비는 일부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와 시장이 한산한가운데 한해는 조용히 저물고있다. 【서울明洞入口에서】

遺産싸움이 怨恨으로
연탄工場등 登記移轉문제로 잦은다툼
4촌매형 槃殺청부사건 共犯2명검거

◇수배된주범李鍾安

속보=사촌매형청부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麻浦경찰서는 24일 이사건의 교사주범 李鍾安씨(23)의 아버지(58·서울西大門區延禧1洞413의106)와 큰아버지(77년사망)등 유족들간의 재산다툼으로인한 원한이 빚어진 것으로 단정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金幸民씨의 장인이자 李鍾安씨의 큰아버지명의로 등기돼있던 충남保寧郡大川邑소재 연탄공장등 6억대의 재산이 지난77년11월 큰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후 동생인 李씨아버지 명의로 등기이전된것과관련, 그동안 유족들간에 『형의 인감을도용 불법으로 등기이전한것』이라고 주장, 재산을 돌려줄것을 요구, 재산다툼이 잦았었다는것.

한편 경찰은 24일하오 공범 黃무섭씨(29)와 裵用植씨(33)등 2명을 경북榮州에서 검거하고 이들이 착수금으로 받았던 2백만원중 1백30만원을 압수했다.

교사주범 李씨는 잡히지않았다.

莞島에 디프테리아
1명死亡, 1명入院

【光州=聯】전남莞島지방에 디프테리아환자2명이 발생, 1명은 숨지고 1명은 全南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전남莞島郡金日面덕우리 金선례씨(36)의 장녀 姜宥順양(5)이 지난13일부터 디프테리아에걸려 이날 全南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치료를받아오다 24일 새벽6시께 목이부어 질식 숨졌다.

또 이병원에는 金日面소랑리 金현기씨의 아들 炳男군(8)도 디프테리아에 걸려 입원중이다.

한국인職員들 출근
日勸業銀 노사분규

속보=일본계 第一勸業은행 서울지점(지점장 佐野晃)소속 한국인직원 26명은 24일부터 전원 출근키로하고 앞으로 노사쌍방간 대화를통해 분규를 해결할것에 합의했다.

한국인직원들의 이같은 결정은 23일상오10시 노동부서울南部지방사무소측이 노사쌍방대표를 불러 조정한결과 회사측이 8명의 사표수리를 철회하고 한국인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점차 시정하겠다는 약속에따라 이뤄졌다.

주방장에 令狀
釜山南浦洞 화재

【釜山=聯】속보=釜山市南浦洞 민표면옥 화재사건을수사중인 釜山중부경찰서는 24일 석유버너를 잘못 취급해 불을내게한 주방장 裵炯燮씨(41)를 중실화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한 주인 金용조씨(42)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파면처분取消청구 白樂晴교수 敗訴
大法院, 원심확정

대법원특별부는 21일 전서울大 문리대 교수 白樂晴씨(44)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74년당시 白씨가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참석, 유신헌법개정등을 주장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명백히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를이유로 문교부장관이 白씨를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白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7년만에 확정했다.

白씨는 지난74년11월27일 서울鍾路區鍾路5街 기독교회관에서 尹潽善 千寬宇씨등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참석, 선언문에 서명한것이 문제가돼 문교부가 그해 12월2일 『유신체제 철폐및 구속인사 석방등의 주장이담긴 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금지하고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암소67마리 密屠殺
溫陽서 서울로密搬出 7명拘束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4일 서울의 정육업자와 식당주인들의 부탁을 받고 생후1년5개월 미만의 한우 암소만을 전문으로 밀도살해온 閔殷植씨(44·충남牙山郡溫陽邑溫泉里80의4)등 밀도살꾼 7명을 붙잡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충남牙山郡溫陽邑 權谷里에 15평크기의 외딴 민가를 빌어 지난10월22일부터 지금까지 溫陽·天安등지의 소시장에서 사들인 1년5개월미만의 한우암소 67마리(마리당80만원·싯가5천3백60여만원)를 밀도살한뒤 가짜고무인을 찍어 서울로 밀반출해왔다는 것이다.

洛東江 옛목 探査
63㎞항해、民俗등수집
海洋소년단원 出發

【金山=聯】洛東江옛목 탐사대가 23일 하오5시 경남密陽郡下南邑 守山다리를 출발, 5박6일의 장도에 올랐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소속 단원72명으로 구성된 이탐사대는 지휘선인 모터보트1척을 선두로 카누형 보트형 10척등 20척과 해 守山다리∼三浪津∼원동∼金海∼龜山을 따라 洛東江 63㎞를 항해하면서 갖가지 활동을편다.

이탐사대는 해로와 연안의 고·나루등을 알기위해 장도에 올랐는데 탐사대에는 수질및 조류학자 13명도 포함돼있으며 이들은 ▲낙동강유역에 흩어진 전설·사투리등 민속자료수집 ▲수질오염상태조사 ▲철새도래현황 ▲지형변화등에 따른 실태도 조사한다.

이탐사대는 탐사를 벌이면서 강변을 청소하고 낙동강 주변주민과 자매결연을 하며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서는 먹이를 뿌려 새보호작업도 함께벌인뒤 오는 28일하오 을숙도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열차·高速버스표 金浦공항에 豫賣所

金浦공항관리공단은 내년 1월5일부터 열차및 고속버스표예매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예매창구는 충돌근로자를비롯, 외국여행에서 귀국하는 지방거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방안으로 국제선도착 1층 카운터에설치된다.

青瓦臺서 캐럴연주
恩光女高 밴드部서

서울恩光여자고등학교(교장 李康稙)브라스·밴드부 42명은 크리스마스 이브를맞아 24일 하오 청와대를방문, 비서실앞 정원에서 성탄과 새해를 축복하는 크리스마스·캐럴을 연주했다.

文化短信

한국문학협회賞에 鄭孔采시집「海店」

한국문학협회(회장 설창수)가 제정한 한국문학협회상 제1회수상자로 시인鄭孔采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海店」. 시상식은 26일하오2시 한국잡지협회 회관에서 거행된다.

金眞姬「바리더기」 국립극장 戲曲당선

국립극장의 81년도 장막희곡 당선작으로 金眞姬씨(문화방송제3부차장)의 「바리더기」가 뽑혔다. 「바리더기」는 바리공주 설화를 소재로한작품. 가작으로는 鄭聖珠작 「어떤날」이 결정되었다. 심사위원은 呂石基, 車凡錫, 李根三, 柳敏榮, 張民虎씨.

현대미술관회 제2기 受講生모집

현대미술관회는 내년 1월6일부터 12월까지 제2기수강생(82년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회원및 일반인 3백20명을 대상으로 1년간실시될 과정은 미술개론과 造形論등 일반이론에서부터 디자인論이나 실내디자인이론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각계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수강시간은 상오10시부터 하오4시까지며 연락처는 ㉒6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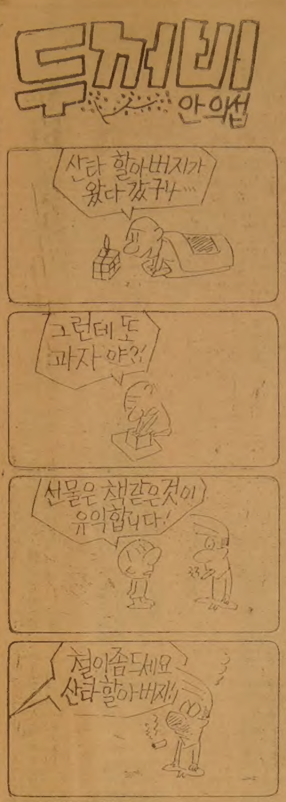
연희청소년학교 일요학생들모집

연희청소년학교(전화㉒9059)는 근로청소년및 미진학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요학교 남녀학생을 모집한다.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나뉘어진 일요학교의 접수마감은 30일.

Y영동지회 생활용품 바자회

Y영동지회 어머니회는 생활용품 바자를 31일까지서울YMCA영동지회 체육관입구(잠실5단지 소재)에서 열고있다. 첫갈류와 김 미역 꽃감등을 판매하며 이기금으로 양로원 고아원 일선자매부대를 방문한다.

두꺼비 안의섭



SUN-LIFE
생명보험..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주간女性
(416) 533-2361

한국일보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브리지게임을 하는동안에도 꼭 먹어야만 하겠어?" "가볍게 먹는거야"

"스페이드 4점 [illegible]어" "마요네즈 좀 건네주겠어"

"그리고 고기도"

"난 그만두겠어! 저친구 칠면조 고기조각으로 내에이스 카드를 뭉개 버렸어"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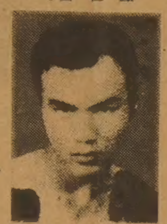
老鍊과 新銳의 決戰場

14全KO勝의 白仁鐵 守備에 헛점

金得九·張正九의 國際戰도

OPBF J미들級 27일 챔피언決定戰

◇白仁鐵


◇李商虎

14연속KO승의 강타자 白仁鐵(20·극동중앙)과 지난이의 李商虎(25·대원)가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 미들급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27일 저녁 문화체육관서 타이틀결정전을 벌인다.

OPBF 주니어미들급 1위인 李와 2위인 白의 결정전은 챔피언이었던 日本의 미하라(三原正)가 세계챔피언이 되면서 지난 5일 타이틀을 반납 함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지난해 5월 프로에데뷔하여 현재 14연승(14KO)을 기록하고있는 白仁鐵은 지금까지 상대선수를 초반에 KO로쓰러뜨린 강타자이나 선수경력이 짧고 공격력에 비해 수비기술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있는 유망주.

반면 前한국챔피언이었고 朴鍾八과 라이트급을 벌인바있는 李商虎는 75년7월프로생활을 시작, 현재 11승(7KO) 5패3무를 기록, 전적면에서는 白仁鐵에 뒤지고있으나 노련하고 투지가좋은 복서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날 한국 라이트플라이급1위 金得九(동아)는 日本의 오구보·가스히로를 맞아 10회전을 벌이는데 金得九는 동급 OPBF챔피언 金光政에도 전할 계획. 한편 주니어플라이급의 유망주 張正九(한국1위)는 26일 장충체육관서 金煥珍의 첫방어전 상대였던 알폰소·로페스(파나마)를 맞아 10회전을 벌인다. 張의 전적은 11연승(5KO). WBC슈퍼페더급8위 李은 26일 大田서 파나마의 세계랭커인 알바라도와 10회전을 벌인다.

創立1주년 강연회 스포츠科學연구소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과학연구소(소장 李錫柱)는 29일 설립1주년을맞아 기념강연회를 체육회 강당에서 갖는다.

오는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과학발전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어 이번 강연회는 한국스포츠과학의 청사진이 제시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지난해 全斗煥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설립, 기초작업을 1년간 해왔고 3백만달러상당의 스포츠과학기재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黃善愛 시드1번에 랭크

全日本배드민턴 1월 14일 개막

【東京23日聯合】全日本남녀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韓國의 黃善愛와 인도네시아의 루디·하르토노등 19개국 72명의 선수들이 참가, 내년 1월14일부터 4일간 日本서부고오베(神戶)에서 열린다고 日本배드민턴협회가 23일 발표했다.

日本배드민턴협회는 금년 全英배드민턴대회 여자단식결승에서 덴마크의 레네·쾨펜을 누르고 우승한 黃善愛와 全英남자단식타이틀을 8번이나 따낸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스타 하르토노가 각각 남녀부 1번시드를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남자부에서는 하르토노에 이어 印度의 프라카시·파두코네가 2번, 스웨덴의 토마스·킬스트롬이 3번시드를 각각 배정받았으며 여자부에서는 黃善愛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베렌이 2번, 인도네시아의 베르와티·위하르조가 3번시드를 각각 배정받았다.

새해豫算 2억원

핸드볼協定總

내년도예산 2억1천35만5천5백원을 통과시켰다. 핸드볼협회가 마련한 8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내년1월중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2회국제핸드볼대회참가를 비롯 9건의국제경기와 4건의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국내에서는모두12건의 국내경기와 3차례의국가대표팀훈련을갖기로되어있다.

메이저리그 强打者 슈미트

年俸 120萬弗로 6년계약

【필라델피아AP聯合】美프로야구(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에서 2년연속 MVP의 영광을 차지했던 강타자 마이크·슈미트(32)가 21일 소속팀인 필라델피아·필리즈와 연봉 1백20만달러(한화약8억4천만원)의 6년계약을 맺었다.

이것으로 美프로야구선수는 연봉 1백만달러가넘는 선수는 놀란·라이언(휴스톤투수) 론·기드리(양키즈투수) 데이브·윈필드(양키즈내야수) 등으로 손으로 꼽을수 있는정도.

필라델피아가 월드·챔피언이 되었던 80년시즌 마이크·슈미트는 월드·시리즈 MVP가 됐으며 9년 경력에 골드·글러브賞 6회를 기록했다. 통산 홈런 3백14개, 금년시즌 홈런31개, 91타점.

71년 필리즈와의첫계약때 3만2천5백달러를 받았고 82년말 연봉 56만달러의 6년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쿠웨이트國際농구大會

남자팀 派遣결정

농구협회는 내년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국제초청 농구대회에 남자대표팀을 파견키로 23일 결정했다.

이 대회에는 韓國을비롯, 中共·이탈리아·스페인·모리타니·프랑스·세네갈등 11개국이 초청됐다.

都心서 닭싸움도박

1명구속 35명即審

【釜山=聯】부산東萊경찰서는 23일 도심지에서 닭싸움을 붙여놓고 구경꾼들에게도박을 시켜 판돈을 뜯어온 金문섭씨(44·東萊區久瑞洞44)를 도박개장등혐의로 구속하고 尹만조씨(54·東區凡一洞1338)등 구경꾼 35명을 무더기로 즉심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22일 하오1시께 부산東萊區長箭洞 釜山대학앞 공터에서 35명의 구경꾼을 모아놓고 닭싸움을 붙인뒤 두마리 가운데 승산이있는 닭에 판돈을 걸게 한다음 판돈가운데 10%를 개장비조로 받았다.

密輸금괴운반 女人 구속令狀 신청

【釜山=聯】부산東部경찰서는 23일 재일동포가 밀수입해온 금괴를팔기위해 서울로 숨겨가던 鄭삼순여인(42·부산西區槐亭2洞701의12)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蹴協, 分委長등결정

대한축구협회는 24일 각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진을 결정,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학교기술지도委=孫壽榮 ▲사업기획委=朴東熙 ▲국제委=吳完建 ▲상비군운영委=金政云 ▲경기委=文正植 ▲심판委=尹一[illegible]

◇상임 이사 ▲총무및섭외=金昌基 ▲기획=柳志聲 ▲재무=李潤植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㉔

航路 1백70마일

6泊7日…마침내 九味浦도착

巡威島를 지나 옹진반도로 나가는 길목에는 드래건아일런드라는 작은섬을끼고 길이가 8마일쯤되는 좁은수로가있다. 넓은곳은 폭이 1마일 좁은곳은 반마일정도의 이바닷길은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배에서 바라보면 옹진반도 쪽으로 환상적인 모습을한 기암괴석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섬쪽으로는 반짝반짝빛나는 백사장이 넓게 펼쳐있었다. 그림같은 경치속에 파묻힌 초가집에서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 검경은 한없이 평화롭기만했다.

옹진반도 龍塘浦이 포구를 이룬곳에서 「검은오리」號는 한동안 돌풍을 피했다. 파도가 높을때는 해안에 바싹 붙어 조심스럽게 항해를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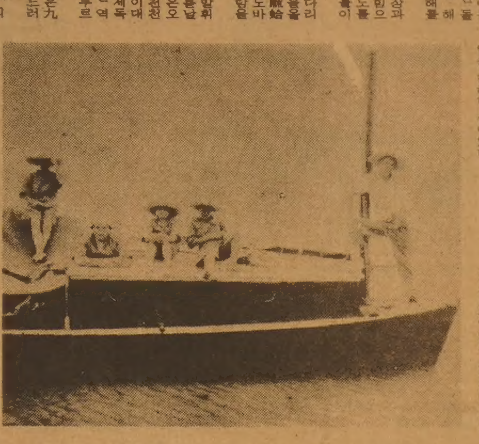
이런 때는 모터의 힘보다 선장과 요리사, 그리고 꼬마선원들의 힘으로 항해했다. 모두가 열심히 노를 붙잡고 매달린 덕택으로 파도를이겨나갈수 있었다.

오랫동안 노를 젓다가도 기다리던 순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돛을올리고 즐거운 휴식을 가졌다. 麻蛤島사이의 바닷길에 들어섰을때도바람이 불지않아 닻을 내리고 바람을 기다리기도했다.

이런때가 멋진 수영실력을 발휘할수있는 기회이기도했다. 이름났동이를 몇 실바람을 만나 「검은오리」號는 워츄세트灣을 따라 천천히 항진했다. 이곳은 한국이름이대동만이지만 1867년 슈펠트제독이 이끄는 워츄세트號가 진입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여 이렇게 부르고있다.

이만에 들어섰을때는 풍광좋은九味浦항이 저만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항해가 계속되는동안 元漢慶, 피셔 두분은 텁수룩이 자란 수염을뽐냈으나 소래해안에 도착해서는 그 수염을 말끔히 깎았다. 작은 「검은오리」號가 6박7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린 시간은 7월10일 상오9시반께였다. 톱니바퀴처럼 들락날락한 해안을누빈 거리까지 합하면 무려 1백70마일을 항해한 셈이었다.


◇「검은오리」號의 선원들. ⓐ로부터 롤·로드 元一漢 원요한 피셔박사 원제학.

특별한 記錄못세웠으나 많은追憶과 경험 쌓아

이 항해가 어떤 기록을 깨지는못했을망정 두고두고 추억이 되기에는 너무나 멋진거였다. 비록 장비도 허술하고 기술도서툴렀어도 항해는 그런대로 합격점을 줄만했다.

「검은오리」號의 첫항해는 이렇게 장황한 성공담을 전할수 있게되었으나 3년후엔가 있었던 우리가족만의 항해에서는 뜻아니한 걱정을 여러사람에게 끼친일은 지금도죄송하게 생각한다.

첫항해때 어머니 에델·반·와그너女史가 참여치 못한것은막내여동생 마거리트가너무어렸기때문이었다.

여동생이 3~4세되었을때 우리집 일곱식구가 전원승선하여 첫항해때와 똑같은 항로로 왕복항해한 것이다.

첫항해에서 모터가 말을듣지않아 무척 고생했다함은 이미 쓴바 있으나 우리가족항해때는 모터를 새로 바꿨기때문에 6박7일이아닌 3박4일로 거든했다고 기억된다.

그런데 우리가족을 태운 「검은오리」號는 九味浦에서 기항중 옹진반도 근해에서 태풍을만나 인근섬으로 대피했다. 그섬이름은 기억할수없으나 우리가족은 그곳에서 3~4일가량 묶은다음 처음떠났던 양화진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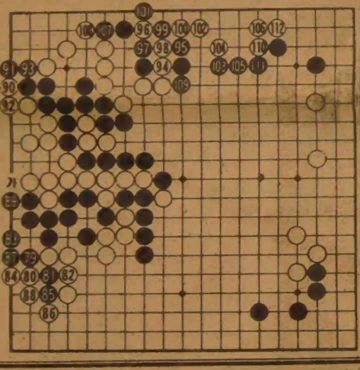
그때 배에서 건너다보니 양화진나루터에 많은사람들이 하얗게모여있고 검은오리號의 무사귀항이확인되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빨리달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새문안 교회에서는 우리가족 모두가 태풍을 만나 익사했을 것으로 단정하고 장례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검은 오리號의 귀항일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우리가족은 배에서 내리는길로 새문안교회로 직행 감사기도를 드렸다. 목사님도 달리 설교를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하느님 언더우드 가족이 우리곁에 무사히 돌아올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라고거듭되뇌었을뿐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5譜 79~112 (각5시간)



白(6段) 徐能旭 〈0勝2敗〉
黑(7段) 徐奉洙 〈1勝1敗〉

黑79로젖히고 白80으로 막았을 때 徐7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長考로.

좌변白은 여차할때 패가있는반면 黑은 어쨌건 갇혀있는 신세다. 당면한문제가 바로 제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나인데 그 自活策이 좀체 보이지않는가싶다. 마치 묘수풀이같은 모양에서실전상그묘수를발견하기는어렵다.

徐7단은 黑의수단을 조마조마 기다리기를 15분. 이윽고 黑81이 기세좋게 떨어졌다. 실로묫박이었다. 일부러 81한점을 버린데에 묘수의효력이 있는것이다.

우선 해설자인 趙南哲8단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黑81은 묘수. 白이82로 87에젖혀 들면 黑은 83에막아 패를하자는 것이다. 黑의 패감은 가사黑 「가」에 젖히는따위도 절대적이어서 白도82로 후퇴했다』

黑81妙手로 完生

상대가 15분동안은 수에대해 白82는 5분. 첫수가어려울뿐이지 어에대응하기는 비교적 쉬운때문일까. 좌우간 아슬아슬한데서 白은88까지 후퇴하고 黑은 살게한다음 자기쪽대마도 90, 92로서 살았다. 이런식의 형상은 프로바둑에서는 흔히 보게되는것. 어느한쪽이 완착하기를 바라는 아마추어로서는 좋은길이 빠질는지 모른다.

다만 이결과 白이 형세를 제법만회했다는 결론이니 徐6단도 그것을 계산하고서후퇴했음이 분명하다.

戰場은 상변에 옮겨져 白94이하의 싸움이 발발했다. 그리고 白96때 黑97, 99는 一見하여 어지수단 이상으로 난폭한도전이었다. 그러나 白12까지로된 후에 黑의작전은 정확한 수읽기에 바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凡】

골프코너

◆…한국골프협회는 82년도에 [illegible] 8개대회를 [illegible] 했다.

◆경기일정 ▲아시아 서키트·골프(9월22~25일·미정) ▲KGA오픈(10월13~16일·남서울) ▲제11회시니어골프선수권(10월20~21일·유성) ▲동해오픈골프(6월30~7월3일·미정)

◆…제16회 타이페이 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崔上鎬는 3백3타로16위, 韓長相은 3백18타로 29위를 차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臺北선수권서 한국팀 不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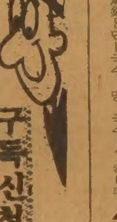
15명중 10位圈 한사람없어

한국 프로는 모두 15명이 출전했는데 10위이내는 1명도없다.

이대회서 홍·코스의 許勝三은 2백90타로 우승했고 呂明釗와 日本의 후지끼·사부로가 2백91타로 동타2위를 마크했다.

◆…수입골프볼이나 클럽에 대한 관세와 특별소비세가높아 수입상들이 울상을 짓고있다. 골프볼의 경우 슐레진저, 던롭·맥스플라이, 벤·호건, 렉스턴등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원가의 거의 3배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日本서 가장 좋다는 렉스터의 경우 日本소매가격이 1개 6백엔, 1타에 7천2백엔하는 볼이, 수입상을 거쳐 골프상회에 공급되는 최저가격이 2만5천원이나 된다. 【炳】


구독신청은 533-2361

映協연기委 總會

위원장 張東輝씨

映協연기위원회는 23일 총회를 열고 張東輝위원장을 유임시켰다.

주간女性

바둑소식

7大棋戰 本選리그進出 25명 成績발표

曺薰鉉8단 1位

○…한국기원은 금년도 국내의 7대棋戰 본선리그에서 활약한 기사25명의 성적을 발표했다.

이들 기사들의 성적은 7대棋戰본선리그이상 대국의 전적인데 성적제1위는 5冠王으로 군림하고있는 曺薰鉉8단으로 27승11패, 2위는 徐奉洙7단의 30승20패로 밝혀졌다.

曺8단은 금년초 最高位와 國棋戰에서 徐7단에 연속으로 타이틀을 뺏겼으나 名人戰·棋王戰·國手戰에서 徐7단을 물리쳐 최근에 벌어진 最高位戰에서는 徐7단으로부터 다시 타이틀을 되찾아 막강한棋力을과시했다.

7대棋戰에서 활약한 기사들의성적은다음과같다.

▲曺薰鉉8단=국수, 명인, 기왕, 패왕, 최고위등 5개타이틀보유, 27승11패 ▲徐奉洙7단=국기, 왕위등 2개타이틀보유, 30승20패 ▲趙南哲8단=4승7패 ▲金寅8단=왕위, 국기, 기왕, 패왕본선, 15승9패 ▲尹奇鉉8단=왕위본선, 국기, 패왕본선, 14승11패 ▲金在九7단=왕위본선, 2승6패 ▲河燦錫7단=왕위본선, 국수, 왕위, 명인, 국기, 패왕본선, 18승15패 ▲姜哲民6단=국수, 명인본선 ▲鄭昌鉉7단=[illegible] 3승14패 ▲盧永夏7단=[illegible] 4승11패 ▲高在熙6단=5승5패 ▲鄭壽鉉4단=기왕본선, 7승6패 ▲姜[illegible]=국수, 명인, 국기본선, 8승12패 ▲[illegible]勳4단=국수, 명인, 기왕, 패왕본선, 18승14패 ▲洪太善4단=왕위본선, 4승15패 ▲李[illegible]4단=왕위본선, 4승13패 ▲金日煥4단=최고위, 26승5패 ▲黃元俊3단=왕위본선, 26승6패.

日「圍碁俱樂部誌」古今10傑 趙治勳首位

讀者투표로 결정

○…일본기원의 기관지 「圍碁俱樂部」誌는 古今의 棋士베스트10을 선정, 발표했다.

독자투표에 의해 선정된 이 베스트10 설정은 비록 독자들의 인기투표에 의해 다할지라도 趙治勳9단이 일본棋壇4백년사를 통틀어 1위로 浮上했다는 것은 趙9단의 명실상부한 최강자로 더이상그를 누를상대가 없음을 뜻하는것으로 풀이되고있다.

1위가 名人과本因坊位를쥐고있는 趙治勳9단, 2위가 吳清源9단, 3위후지사와棋聖(藤澤秀行), 4위사까다9단(坂田榮男), 5위本因坊秀策, 6위本因坊秀哉, 7위오다께9단(大竹英雄), 8위 다까가와9단(高川格), 9위本因坊丈和, 10위 本因坊道策으로 나타났다.

베스트10에 랭크된 기사를 보면 6명이 현역기사이고 나머지4명은 작고기사로 名人중의 名人들.

道策(1645~1702)은 제4대 本因坊으로서 棋力13단의 실력을 지녔던것으로 평가된 인물. 명실공히 棋聖으로 추앙되고있다.

丈和(1787~1847)는 제12대 本因坊으로 스케일이크며 깊은 수읽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明治前까지만해도 道策을 前聖으로, 丈和를 後聖으로 평가했었다.

流星의 賦

感傷異國月 ㉟

< 269 >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김성일은 사신으로서의 체모를 빈틈없이 지키고자 하는 엄격주의자였다면 황윤길은 피차 무리가 없는 절차를 통해 국서를 교환하면 그만이란, 좋게 말하면 활달주의, 나쁘게 말하면 그럭저럭주의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자가 서장관 허성이었다. 허성은 예조(禮曹)로 부터 받은 의주(儀注), 즉 외교지침(外交指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온당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것을 주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 의주에 없는 경우엔 일본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사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성일은 의주(儀注) 이상의 절차를 일본에게 요구했다. 예를 들면 수길(秀吉)에게 어떤 절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조정의 의주는 수길을 일단 일본국왕으로 보고 정하배(庭下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성일은

『조정에서 그런 의주를 발한 것은 수길이 일본국왕인줄 알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 수길이 일본국왕이 아니고 대신(大臣)이다. 대신에게 어떻게 국왕으로서의 예를 다할 수 있는가. 정하배는 안된다』

고 고집했다.

『형식은 그렇지만 수길이 지금 일본천하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수길의 명엔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길은 실질적인 국왕과 다름없소』

하고 허성은 정하배도 무난하다고 맞섰다.

일국의 사신이 일국의 원수에게 정하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실질적인 원수(元首)와 다름 없는 수길에게 정하배를 했대서 우리의 국왕을 욕되게 하는것이 아니란 변명도 가능하고, 아무리 실력자이기로서니 원수가 아닌 사람에게 정하배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니, 이런 일로 시비를 벌이는 것은 정말 딱하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황윤길과 김성일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면 서로 얼굴을 맞대지도 않았다.

황윤길의 눈엔 김성일이 형식적인 일에만 구애하여 후일 환국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 했노라하고 뻐길 재료만을 작만하는 놈으로 보였고, 김성일의 눈엔 황윤길이 나라의 체모, 임금의 위신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가 편한 것만을 바라는 염치없는 놈으로 보였을 것이 확실하니 그 분위기의 따분함은 짐작할만 하다.

허성 또한 김성일의 고집엔 지쳤다. 의주에 없는 것은 중국의 춘추법(春秋法)까지를 박인방증(博引傍證)하여 주장하는 김성일의 박식은 놀랄만했고, 그 언변이 또한 이로정연 청산유수 같은 데야 도시 대항을 못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성일이 시키는대로 하려면 사사건건 일본과 맞서게 되어 교섭은 결렬되게 마련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하면 또한 성일의 성화가 가만있지 않아 골치가 아팠다.

허성이 어느날 차천로를 보고 말했다.

『차공, 우리의 난물은 수길이가 아니고, 산(山)봉세. 그것도 아주 높은 봉우리』

차천로는 빙그레 웃었다. 알아들었다는 시늉이다. 김성일의 호가 학봉(鶴峯)이었던 것이다.

한국일보 533-2363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교민여러분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빌며,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카나다지부
회장 이병권및 임원일동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 신방및 침구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탐플렐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남자 스토아 헬퍼구함
FULLTIME
☎ : 447-2116 MR. 윤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7-098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베이뷰 & 휜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8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구 혼

구 혼 : 31세남, 유학생으로 현재대학원 재학중임 〈전공 : M. B. A.〉
☎ : (213) 383-2518 〈L. A. 저녁시간요〉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광고 내시는 요령
체크나 모니오더를 동봉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접수후 다음날부터 즉시 게재됩니다.
● 2줄 1칸(50자 이내)
○ 3회 $10.00
○ 6회 $13.00
○ 24회 $26.00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록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84-3346(R) MR. LEE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취식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流星의 賦 〈26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㉞

대마사(大馬寺)의 경내는 꽤 넓은 것이어서 정부사이하 일행 모두 백 수십명이 대소의 집으로 나뉘어 갈이 지낼 수가 있었는데 당초부터 문제가 시끄러웠다。정 부사간에, 또 부사와 서장관사이에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생겨난 것이다。

김성일부사는 국서(國書)를 전달하기 전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외출(外出)은 안된다고 고집하고, 황윤길 정사는 방자한행동만 없도록하여 규율을 세워 시중(市中)에 파한소요(破閑逍遙)케 한도 가하다고 했다。성일은

『나라의 사신은 사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어늘, 아직 국서도 전달하지 못한 주제에 파한소요부터 먼저 하라고 한은 건 얼토 당토 안한 일 이옵니다』

하고 반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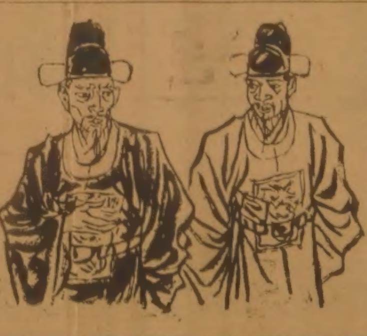
황윤길은

『수길이 귀경할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부사의 말대로라면 두달이고 석달이고 이 절안에 갇혀 있으란 말이 아닌가。모두들 사신으로서의 체모는 지킬줄 아는 사람들일 것이니 활달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줄 아오』

하고 어떻과 숙의한 끝에, 하졸잡배(下卒雜輩)의 행동은 엄하게 규제하되 관위(官位)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직책에 구애됨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김성일이 승복한 것은 아니다。정사의 말이었으니 하는 수 없이 묵종 했을뿐이다。

김성일과 허성간엔 묘한 확집(確執)이 생겨나고있



는듯 했다。그것은 대마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김성일이 대마도에서 평의지(平義智)가 교자를 타고 좌석 가까이 온 것을 못마땅하다고 자리를 차고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김성일은 조선인 통사 진세운(陳世雲)을 중인환시 중에 매질했다。이 소식이 일본측으로 돌아가 평의지는 그들이 실례한 원인이 가마를 멘 교부(轎夫)들에게 있다고 해서 교부를 죽이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허성은 이 일을 두고 김성일의 태도를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적당하게 해두었으면 되었을 것을 괜히 트집을 부려 중인환시 중에 통사에게 매질한 것도 옳지 못하거니와 그로 인해 왜인이긴 하나 불쌍한 목숨을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군자(君子)가 할 노릇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일은 나라의 체모, 사신의 도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논박했다。의(義)가 정(情)보다 중하다는 것이다。예법(禮法)에 어긋나는 어떤 짓도 할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 였다。

그런데 황윤길은

『오랑캐와 상대로 하는데 무슨 정해진 예법이 있단 말인가。적당하게 하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를 취했다。

『우유부단하고 무사안일하기만을 원하는 미련한 자…』

김성일은 속으로 황윤길을 이렇게 욕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저런 관계로 해서 통신사의 숙소로된 대덕사의 공기는 사뭇 답답하기만 했다。

바다에서 플룻을 〈12〉

梁順錫 作
金鈴 畵

네시간 남짓 달려온 버스가 마바지의 안간힘으로 대관령고개를 무사히 내려서 제속도로 편지를 미끄러질때 바깥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앉은 자리에서 차창을 바라보면 거기에 어둠의 빛깔로 그려지는 한여자의 얇은 얼굴이 있었다。여자의 얼굴은 유리에 끼워진 얇디 얇은 종잇장같기도 하였고 한장의 목판화같기도 하였다。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왔는가。무엇을 기대하고 쫓기듯이 황황히 도시를 떠났는가。그리고 유리에 비친 저 여자의 얼굴 뒤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나는 유리에 비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았다。판화처럼 유리에 끼워진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둠을 흐르고 있었다。차는 속도를내며 달렸으나 유리에 비친 두 얼굴은 차와는 무관하게 그저 긴 강물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낮은 촉수의 실내등이 안온하고 애뭇하게 그 흐름을 밝혀주고 있었다。그 실내등 아래에서 흐름에 맡겨진 두 얼굴이 하나의 정물처럼 반사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유리에 비쳐진 그의 눈은 더이상 시리지 않았다。자신의 슬픔을 거부하지않는 남자의 회벽였으나 따스한 얼굴이 나의 각이 지고 메마른 얼굴을 어루만지듯이 연민하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만 돌리면 마주 바라볼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다。그러나 그도 나도 서로의 눈을 유리 이외으로 돌리지 않았다。다닿을 수 없으면서도 가장 가까운곳에 그는 있었다。가슴 저밑바다으로부터 잔잔한 슬픔같은것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일상의 시간과, 그 시간이 주도해온 모든 이룰 자랑수 없는 감정들이 일순 정지하고 나는 평화와 행복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탐냈던 행복이란 언제나 위태롭지 않았던가。행복은 꼭 그만큼의 불행을 요구하였고 빛은 어둠을 누르고 내게로 오지 않았던가。참으로 짧은 순간의 충만감、그것은 순간에존재하므로 느껴지는 허망한 빛이 아닐까。

유리에 비추인 또 다른 그와 내가 이편에 앉아있는 그와 나에게 살아있음의 욕망과 본능、덧없음、위악의 잠재된 모습들을 힐책하고 있었다。어둠의 강을 흐르고있는 정제된 두 얼굴이 이편에 앉아있는 육신뿐인 두 사람의 간악함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육신의 선대에서 울리는 말이 아닌、정제된 유리의 혼에게 말을 붙여보고 싶었다。

『보여요?』

『……』

『육신에서 빠져나간 우리의 혼이 흐르고 있는 것같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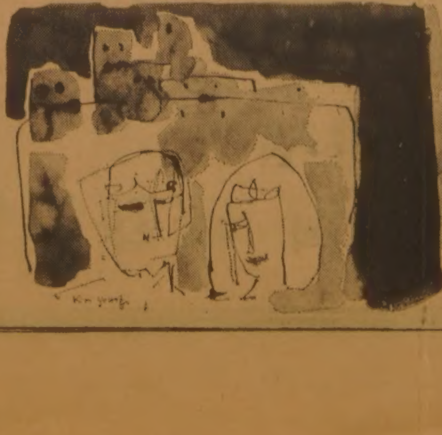
그는 침묵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을까? 내가 그윽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유리너머의 먼 불빛、혹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침묵을 지켰고 나는 침몰의 구도를 부수고 내 얼굴을 유리에 바짝 붙이었다。유리의 섬뜩한 냉기가 이마에 퍼졌다。소도시의 진입로 몽롱이 스쳤다。

상점의 불빛、자전거의 불빛、음침축인 회색산 앞의 가바이드불빛、가로등이 마을 속에서 겨처럼 떠나가 가까이 다가가면 회신처럼 을 밝혔다。내가 떠나온 시의 일부나 다른 것이 아다。

다시 잠에 텐 이마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저편에서 등이 지않은채 진 나를 향하고 있었다



중 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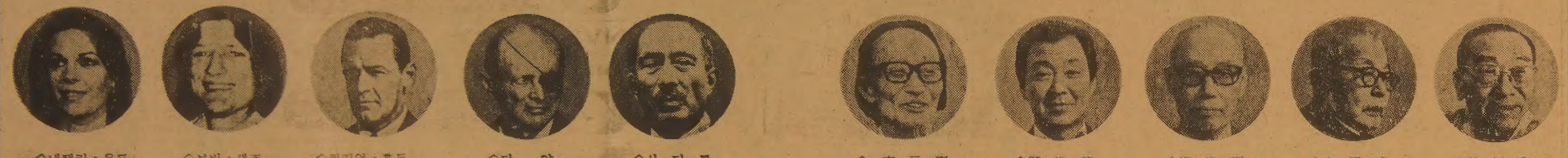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저무는 81년 辛酉 한해 ——— 저무는 81년 辛酉 한해■

이해에 간 별들



◇내털리·우드 ◇보비·샌즈 ◇윌리엄·홀든 ◇다 얀 ◇사다트 ◇李元壽 ◇鄭進基 ◇柳光烈 ◇李甲成 ◇朴鍾和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속에 1981년 辛酉의 한해도 저문다。多事多難했던 한해의 끝머리에서 뒤돌아 본 이해에도 큰 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라져갔다。生者必滅이라는 眞理앞에 人間은 한날 티끌의 존재임을 알면서도 추모와 함께 적막을 느끼며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사학자 申奭鎬·李相玉、철학자 金斗憲
극작가 李瑞求、서예가 孫在馨、화가 李馬銅 他界

1월13일 20세기와 함께 인생을 시작했고 격동의 한국 現代史를 살았던 한국 현대문학의 巨木이며 예술원장인 月灘 朴鍾和씨(80)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1월24일엔 아동문학을 본격문학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고향의 봄」작가인 李元壽씨(71)가 봄이 오기도 전에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났다。2월13일 역사학자이며 學術院 종신회원인 申奭鎬박사(78)가 노환으로 타계했고 2월14일엔 역사학자인 漢陂 李相玉박사(74)가 세상을 떠났다。

3월25일엔 근세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 유일한 생존자인 研堂 李甲成옹(94)이 병석에서 쓰러진지 1주일만에 자택에서 숨졌다。『통일은 못보고 가는구나』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4월20일 전 京鄕新聞 주필 徐廷檍씨(75)가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치여·성모병원에 입원중 숨졌다。4월21일「순정해협」「찔레꽃」「마도로스」등 40여편의 영화를 연출한 元老 영화감독 申敬均씨(70)가 눈을 감았고 5월5일엔 북에이레의 보비·샌즈(27)가 66일간의 단식끝에 죽었다。

샌즈는 18세의 나이에 에이레 공화군(IRA)게릴라가 되어 생애의 약1/3을 옥중에서 보냈다。73년 두차례의 권총강도및 무기 소지죄로 5년 징역형 선고를 받고 특사로 76년4월 출감한후 IRA벨부르크 사령관에 지명됐으며 77년 한 가구점 폭파사건에 관련되어 1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5월17일엔 전 체신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역임한 制憲議員 張基永씨(78)가 세상을 떠났다。

5월25일 劇作家 李瑞求씨(83)가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5월30일 大檢 특수부장、공안부장、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韓沃申씨(61)도 숙환으로 갔다。

6월15일 서예계의 원로 素荃 孫在馨씨(78)를 잃었다。孫씨는 6세때 부터 서예를 배워 21세때 書道展 심사위원으로 발탁되고 우리나라 서예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그는 예총회장、국회의원(4·8代)、예술원 종신회원을 역임했다。7월17일 每日經濟新聞 鄭進基사장(52)이 갔다。59년 평화신문정경부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후 경제기자로 활약했다。65년 매일경제신문사를 세워 언론의 창달을 위해 노력했다。7월23일 한국火藥그룹 金鍾喜씨(58)가 당뇨병으로 사망했다。8월14일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오키스트러 지휘자이며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 음악작품의 전문해설가로 널리 알려진 카를·뵘翁(86)이 수개월간의 병고 끝에 숨을 거뒀다。8월30일엔 이란 회교강경파에 반대하는 수상 집무실 폭탄테러사건으로 모하마드·알리·라자이 대통령과 호자톨레슬람·모하마드·자바드 바호나르首相이 폭사하여 6월27일의 베헤슈티 대법원장을 비롯한 72명의 폭사사고와 9월5일 호자톨레슬람·알리·고두시 검찰총장 폭사등으로 이란 정권의 수뇌부 공백상태를 야기 했다。

9월9일、61년부터 70년까지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池弘昌박사(61)가 급환으로 세상을 떠났다。池씨는 우리나라 종두접종을 최초로 도입한 池錫永선생의 장손。10월5일、在美중이던 원로 서양화가 李馬銅화백(75)이 시카고 근교 아파트서 별세해 시카고의 한인 묘지에 묻혔다。10월6일은 안와르·L·사다트(62)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동북부 외곽 기자市의 나스루공설운동장에서 73년10월전쟁(욤·키푸르戰爭) 8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를 사열도중 이집트군 장병 6명으로부터 수류탄과 기관총공격을 받고 피살됐다。

사다트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이스라엘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해 옴으로써 아랍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친밀한 우방이 되었으며 소련의 영향권에서는 급속히 멀어져나갔다。10월22일 淑明女大총장을 지낸 철학자 金斗憲박사(78)가 노환으로 별세했고 10월26일엔 한창 검은 안대를 차고다녀 애꾸눈 장군으로 이름날린 모셰·다얀(66)이스라엘 전 국방상이 위암으로 사망했다。그의 지략에 의해 67년 6일戰爭에서 이스라엘은 국토의 4배를 얻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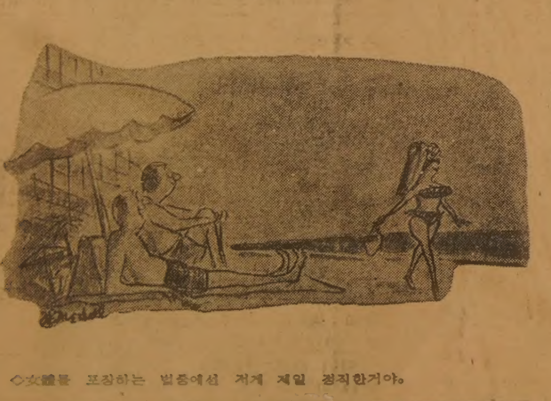
수필가 金素雲、평론가 趙演鉉、감독 申敬均
徐廷檍·張基永·韓沃申·金鍾喜·池弘昌·崔暎海·사다트 殞命

10월28일 崔暎海 正音社 사장(68)이 타계했다。1943년 정음사를 창립한 이래 38년동안 1천여종의 우수도서를 간행、우리문화와 출판계의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11월1일엔 만년기자、평생기자 였고 한국일보社賓인 稲石 柳光烈옹(83)이 세상을 떠났다。11월2일엔 詩人이며 수필가인 金素雲씨(74)가 위암으로 눈을 감았다。1907년 부산출신으로 渡日하여 詩人 기따하라(北原白秋)에게 사사했으며 地上樂園의 동인으로 일본文壇에서 활약했고 수필문학의 독보적 경지를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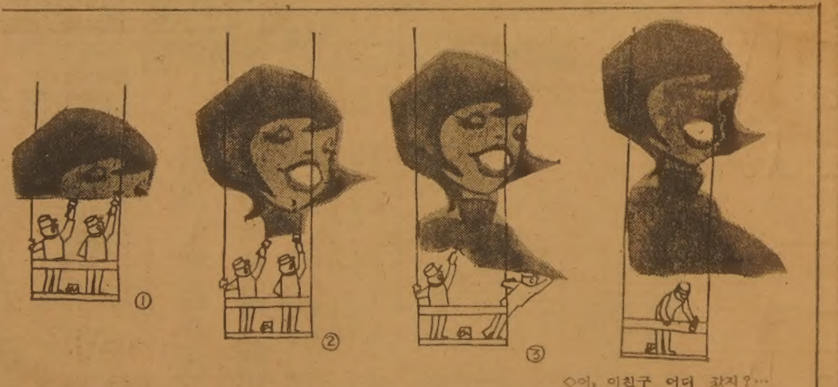
11월16일「콰이江의 다리」「모정」「제17 포로수용소」등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영화배우 윌리엄·홀든(63)이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됐다。11월24일엔 回甲기념으로 부부동반해 동남아를 여행중이던 문인협회 이사장 趙演鉉씨(61)가 日本에서 심근경색증으로 타계했다。11월29일 영화「草原의 빛」에서의 강한 인상때문인지 항상 풋풋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남아있던 미녀 배우 내털리·우드(43)가 캘리포니아 휴양지인 캐털리나섬 연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고、12월8일엔 독립유공자이며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설립에 많은 공헌을 한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李永植목사(87)가 남태평양 사이판섬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李목사는 그동안 사이판에서 해외 희생동포 유해 봉환사업과 희생동포 2세들에 대한 후원사업및 안중근의사 동상건립 기금 모금활동을 펴왔다。<張孝雄기자>

해외 걸작 만화



◇女體를 포장하는 법중에선 저게 제일 정직한거야。



◇어, 이친구 어디 갔지?…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GOT SICK AND TIRED OF HOTELS.

한국에 있는 Westinghouse에 적을두고 한국생활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고있는 미국인 친구가 얼마전 미국을 다녀간후 필자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중에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호텔생활이 진절머리가 났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살것같다」I got so sick and tired of hotels that it was really great to get back here to Korea. 라는 대목이었다。

이 문장중에 sick and tired란「진절머리가 나다」「지긋지긋하다」는 뜻으로 일상 회화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독신생활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때는 I'm sick and tired of the single life. 「그친구 변명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I'm sick and tired of listening to his excuses. 「햄버거 먹는것도 이제 지겹다」I'm sick and tired of eating hamburgers. 이같이 사용된다。

A : I heard you recently took a trip to the States.
B : Yes, I did.
A : How did you like it?
B : I got sick and tired of hotels and hotel food.
A : I can imagine. How long were you there?
B : Two weeks.
A : 최근에 미국여행을 하셨다고들었는데요.
B : 예, 그렇습니다.
A : 어떠 했나요?
B : 호텔생활과 호텔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읍니다.
A : 짐작이 갑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체류했읍니까?
B : 2주동안 있었읍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초면인 미국인들과 얘기를 하게되면 대화중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게된다。그러면 우리는『한국음식을 먹어 본적이 있나요?』라고 묻게된다。이런경우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라고 하면된다。이때 try는「노력하다」의 뜻도 있으나「맛을보다」의 뜻도 있는것이다。

만약에 미국인이『못먹어 보았다』No, I haven't. 『먹어보았다』Yes, I have. 하면『무엇을 먹어 보았느냐?』What have you tried?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요즈음 시카고에 있는 한국음식점 들이 Chicago Tribune 등 주요일간지에 자주 음식맛이 좋다고 오트내리는것은 한국음식을 먹는 우리로서는 듣기좋은 소리다。

A : Have you ever tried Korean dishes?
B : No. I haven't
A : Is that right? I have to take you to a Korean restaurant one of these days.
B : Sounds great. When can we go?
A : How about tomorrow night?
B : Fine. I'm looking forward to it.
A : 한국요리를 먹어본적이있나요?
B : 아니오. 못 먹어 봤읍니다.
A : 그래요? 가까운 시일에 한국식당에 한번 모셔야되겠군요。
B : 반가운 소리군요。언제갈수 있을까요?
A : 내일저녁이 어떻습니까?
B : 좋습니다。기대합니다。
※주 : try:노력하다。시식하다。예。「멕시칸 음식을 먹어 보았다」I've tried Mexican food. dish : 접시。요리 예。나는 한국요리를 좋아한다。I like Korean dishes.

본 칼란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 쇠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8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3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謹賀 新年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NORTH YORK CHEVROLET
김 병 권
881-5000

근하 신년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후의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한분 한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KIM'S 미용실
전화 : 532-7094

謹賀 新年

지난 한해동안 호남향우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향우 여러분과 교민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리오며, 새해를 맞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구 호남향우회장
박 주 삼

Y신년인사 교환회

때 : 1982년1월2일(토)오후3시 부터 5시까지
곳 : 15 ROBINA AVE. YMCA 2층강당(OAKWOOD 와 ST·CLAIR의 동북쪽 1부락)
회비 : 없음
후원 : 한인회, 교역자협의회,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아저널, 뉴코리아타임즈, 와이즈멘즈클럽

1981년12월 일

토론토한인YMCA
이사장 : 전택균, 구상회, 김순창
총 무 : 김창열 드림

한국의 戀人들

사랑의 呪術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1982년 임술년에는-」 새롭게 사리는 각오가 재산·건강·명예의 축적이겠지만 남달리 사랑의 불꽃을 활활 지피고자 염원하여 연인에의 꿈을 설계하는 이도 있을것이다. 그러한 연인의 꿈을 살리기 위하여 옛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탑을 쌓아 왔을까 알아 보자.

꿈에 신비로움을 부여하고, 꿈이 영험스럽다고 믿었던 한국인들-. 비록 그 꿈이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겠지만 한국인의 가슴마다에 이슬비 혹은 소나기를 안겨주었던 사랑꿈을 보면 매우 소박하다.

사랑이 이루어질까 조바심인 사람이 공원을 거니는 꿈이나 호도 껍질을 깨는 꿈을 꾸면 기뻐해도 좋다. 왜냐하면 행복한 꿈에 공원을 거닐면 행복한 사랑이 무르익고, 호도 껍질을 깨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꿈도 그렇다. 꿈에,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니까.

애인이 아직 없거나, 애연과 이별한 사람은 신꿈을 꾸면 좋다. 즉 꿈에 신발을 보면 애인을 만나고 꿈에 갓과 복숭아를 먹으면 이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애인을 상징하는 꿈이 신발이며, 갓과 복숭아를 먹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신거나 먹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인데, 애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총각신세를 면할 길몽들이 있다. 남자 꿈에 새세숫대야를 보면 미인이 나타날 조짐이고 (새 세숫대야가 아니고 제수와 관련된 도구를 보더라도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꿈이다) 새 돛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서 벗을 받아도 그렇다. 거울을 얻는 꿈도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길몽이다. 그러니 사랑의 빗방울로 가슴이 적셔지기를 바라는 노총각·노처녀는 정초에 꿈을 꾸려 노력하고, 그 꿈을 놓치지 않으면 되겠다. 프로이트식으로 꿈을 해석하면 거울을 갖고 싶다고 뇌거나 거울을 자주 만지면 거울꿈을 꾸고, 신발 역시 그렇게 하면 신발 꿈을 꾸더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만일 승을 추지 못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조짐을 엿볼수 있다. 아니, 일상생활에서 조짐을 만들 수가 있다. 아침에 맨 먼저 해를 보면 좋은 아내를 얻는다더까 새벽해를 보기 위해 부지런하면 될 것이다. 이 말은 부지런한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벽에 만난 남녀가 사랑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에 만난 남녀는 훨씬 아름다와 보이게 마련이니까. 달빛에 비낀 남녀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콩을 볶아 마음속에 점찍었던 그에게 먹임으로써 인연을 맺었었다. 즉 4월8일(음력)에 콩을 볶는데, 소금을 조금 치고 볶아서 길거리의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면 인연이 맺어진다 하였다. <東國歲時記>에는 서양 사람들이 밸런타인 데이에 여자가 남자를 적극적으로 헌팅하는 방법을 연상케 한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사랑의 샘과 연리목(連理木)을 찾으면 된다. 사랑의 샘은 옴폭 패인 바위틈에서 솟는 샘물을 말하는데, 옴폭 패인 바위란 조개처럼 생긴, 즉 여자의 성기처럼 생긴 바위다. 이런 곳에서 흘러내리는 음수(陰水)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 샘물을 마시면 누군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다. 연리목의 잎을 삶은 물을 마셔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연리목이란 나무가 자라다가 서로 다른 가지가 뒤엉켜 한 가지가 된 나무를 말하는데 이렇게 된 나무의 잎사귀를 삶아 그 물을 마셔도 되지만, 금실이 좋지 못한 부부가 연리목 주위를 돌아도 효험이 나타나 애정이 돈독해진다. 마치 나무가 뒤엉키듯. 그런데 연리목을 돌더라도 효험이 가장 좋은 때가 있다.

바로 달밝은 밤이다. 달밝은 밤에는 추남·추녀라도 아름다와 보이니 부부가 나무를 돌다가 서로 아름답게 느낄테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부부의 금실이 좋아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처럼 슬기로왔던 한국인들은 탑을 돌면 임을 만나고, 식은 애정이 뜨거워진다 하였다. 탑돌이 역시 달 밝은 밤에 거행해야 효과가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허전한 마음들이 탑을 돌다가 달빛에 비낀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청년을 만났을 때 두근거리지 않을 리 없고 제 남편, 제 아내가 달라 보이지 않을 리 없지않은가 (같은 이유로 술꾼들은 술집의 모든 여자가 아내보다 아름답다고 느끼고, 불빛흐린 카바레에서 만난 남녀가 아주 쉽게 뜨거운 사랑의 불길에 휩싸인다). 이처럼 매력을 발견할 줄 알았던 옛 한국인들은 얼마나 기름지고 멋진 사랑을 나눴을까.

이러한 효험을 믿고 연리목을 뜰안에 심어도 좋을 것이다. 여느 나무도 연리목이 될 수 있으나, 웬일인지 예부터 자귀나무를 일러 연리목·합환목(合歡木), 애정의 나무라 부르는데 자귀나무가 뜰안에 있으면 부부의 애정이 돈독해져서 이혼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자귀나무를 뜰안에 심지 않으며 (과년한 딸이 바람난다는 이유에서), 등나무와 포도나무도 뜰안에 심지 않는다. 등나무와 포도나무는 뒤엉키거나 꼬이는 형태로 성장하는데 부부가 갈등을 일으켜 애정에 금이 간다는 속설(俗說) 때문이다.

복숭아나무도 자귀나무와 같은 이유로 뜰안에 심지 않는다. 복숭아나무가지가 담을 넘으면 딸이 바람난다는 이유 때문인데,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 아름다와질뿐 아니라 속살(陰核)이 쪄서 화냥기가 돈다는 것이다. 또 복숭아잎 삶은 물로 뒷물을 하면 음력(陰力)이 강해져 처녀는 총각에게 추파를 던지고 유부녀는 제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몸부림친다고 믿어 왔다.

公園거닐거나 호두껍질 까는 꿈꾸면 사랑이 무르익고
자귀나무 집안에 심으면 夫婦애정 깊어져 離婚등 안해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수단으로 어렵사리 사랑을 낚았더라도 이를 잘 싸잡지 않으면 헛수고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애인이나 약혼자에게 손수건·구두를 선물하지 않는다. 손수건을 선물하면 이별하고, 구두를 선물하면 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상대방과 정을 지속시키고 싶으면 물을 줄때 조금만 떠줘야 좋다. 그릇에 물을 많이 떠서 갖다 주면 정이 없어지니까.

여자가 대추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배추뿌리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배추뿌리를 먹으면 소박 맞고, 대추를 많이 먹으면 아름다와지니까.

그리고 만일 옷이 찢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아내를 잘 감시해야 한다. 옷이 찢어지는 꿈은 아내가 외도를 할 조짐이라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아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는 더 좀 밝은 얼굴로 대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FBI 手의 얼굴에 不可能은 없다

2백만$ 증발사건 解決로 알아본 그 스토리

세계적 꾼들을 모았던 外換은행 2백만달러 증발사건이 미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사건발생 1개월만에 범인 3명이 검거됨으로써 그 수사능력에 또 한번 화제를 뿌렸다. 과학수사의 대명사로, 「최후의 경찰」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FBI 스토리-.

FBI는 各州와는 無關하게 미연방 전체의 수사기관으로 활약하는 특별수사관 9천5백여명과 일반직원 8천명을 가진 방대한 인적 자원이 특징이다.

단 3명의 런던 주재요원으로도 영국의 구석 구석의 정보를 수집할수 있을 정도로 노련한 요원들이 9천5백여명이나 되고 있다니 막강한 인적자원을 짭게 마련이다.

거기다 1924년과 1935년의 개편을 거쳐 오늘날까지 성장을 거듭한 FBI가 가진 각종 정보자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며 철저하게 분류돼 있어 요원들의 수사활동을 돕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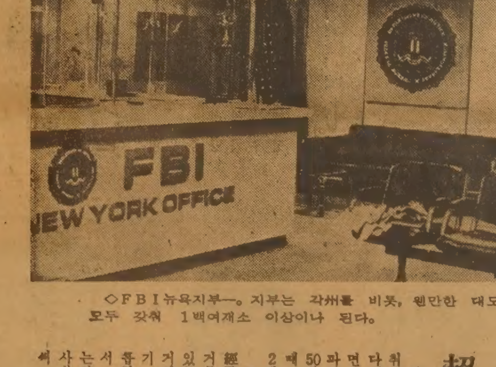
FBI본부 身元局에는 30만평방피트에 달하는 끝도 없을이 만큼 방대한 鐵製지문 보관함이 있고 그 속에는 2억개의 지문철이 들어 있다. 지문식별 전문가는 수사요원의 요청이 있으면 3분 이내에 신원카드를 제공하며 과학수사연구소는 총포·혈액·독물·頭毛·섬유등의 系를 가진 물리화학과와 필적·위조문서·공갈서신·연소된 문서분야를 취급하는 文書課가 있어 각종 과학수사를 지원하게 돼있다. 특히 文書課에는 참고철이라는 과학수사의 각종 자료를 따로 비치해 모든 위조수표의 복사에서부터 각종 타이어의 모형, 미국서 제작한 각종 타자기의 활자형, 각종 동물의 털, 구두 축의 견본등 일반이 믿을수 없을정도로 철저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가닥의 머리털, 구두, 외투에 묻은 흙부스러기만으로도 알리바이를 뒤엎을수 있는 「자료의 무기」를 가졌다.

FBI의 수사권은, 지방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상호 협력관계일 뿐이다. 수사가 경합돼도 FBI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예는 거의 없고 共同수사 형식을 갖는다. 수사권이 미치는 영역은 내란·스파이·사보타지및 軍에 대한 방해행위등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에서 인신매매·유괴및 납치·은행강도·절도및 은행직원 횡령부정·州와 州사이의 수송물도난·연방공무원의 증수회·대통령 암살음모·수표위조및행사·사기범죄및 民權문제 사건등등 연방법 규정의 1백80여개 사건에 미친다.

FBI는 스스로를 「최후의 경찰관」이라 자처하는 만큼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해서 요원자격요건도 까다로와 대학졸업 학력에 강인한 체력과 외모를 갖춘 23~36세의 젊은이에게만 임용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같은 자격요건은 일반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의 요원자격보다 높은 수준이며 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기본요건 강화와 자부심은, 지방경찰이나 이민국·관세국·마약단속 기구들이 때로 큰 독직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는것과 대조되어 「비교적 공정한 기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게 한다. FBI요원으로 대규모 부정에 관련됐다는 기록은 50여년 역사에 거의 없다. 요원들의 복장은 아직도 보수적이며 머리털은 짧다. 간혹 수사상 필요해서 수염을 기르더라도 「히피」라고 동료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다. 이들의 정보수집 방법은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것이 부단히 개발되고 쓰여진다. 한 예로, 어떤 요원이 평상시처럼 종이봉투를 팔에 끼지않고 서류가방을 들고 있다면 손잡이엔 마이크로폰(미음확대기)이 숨겨져 있게 마련이고, 가방속에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는게 틀림없다. 또 자주 입술연고를 사용하는것은 그 조그만 연고갑이 원거리 교신마이크 장치다.



◇FBI뉴욕지부—. 지부는 각州를 비롯, 웬만한 대도시에 모두 갖춰 1백여개소 이상이나 된다.

요원들과 정보원들은 몸에 녹음기를 숨겨 훗날 이를 자료로 쓰게 될지도 모를 실내의 모든 사건과 대화내용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외에 신문스크랩, 사진수집, 서류복사등 자료수집은 철두철미하다.

자료수집에서 빼놓을수 없는 또하나의 수단은 한동안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지적된 일도 있지만 전화 도청이다.

FBI에 관해 말할 때는 과학수사 외에 각 요원마다 거느리고있는 정보원(Informer)을 빼놓을 수 없다. 정보원은 요원들이 수단껏 발굴, 활용하는데 이들을 때로는 범죄조직에도 가담시킴으로써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며 증거물 확보를 돕기도 한다.

또한가지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FBI의 강점으로는 풍부한 資金力이랄수있다. 한 예로 76년당시 증가일로의 노상강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 얘기를 꺼내들수 있다.

◇FBI요원들은 채용된 뒤에도 사격훈련등 부단한 훈련을 쌓고있다.

最高인텔리로 構成…義理깊고
超과학수사…最後의 경찰自處

이때 FBI는 아예 장물취급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했다. 이를 수개월동안 운영하면서 고객의 명단을 낱낱이 파악해 뒀다가 한꺼번에 1백50여명을 검거해버렸는데 이때 장물규모가 3천5백점에 2백50만달러가 들었다던것.

FBI의 수사임화중엔 神經戰이라는것이 있다. 원체 증거주의 표본국가라는 정평이 있는 만큼 범정증거가 어렵거나 구체적 증거를 잡수하기 곤란한 경우엔 범인을 괴롭히는 작전인것이다. 호텔에서 개집단의 비밀집회가 있는것을 탐지한 FBI는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비밀집회장엔 기자들이 몰려들어 초장에 집회가 깨지게 하는 따위다.

강력한 개조직의 보스 마피오소의 딸이 곧 결혼할 예정이란 사실을 알아낸 FBI는 한 교회의 결혼식장을 악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결혼식장인 것까지 밝혀낸 다음 이 업소가 안전규정 위반을 눈감아 주도록 판한 소방관 파출소장에게 뇌물을 바쳐온 혐의에 대해 州소방서에 밀고해버린 일이 있다. 州소방부는 이 업소를 영업정지시켰는데 문을 다시 열자면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만 되는 것이다. 범죄집단의 범행물증 확보가 어려울땐 이런 식으로 괴롭힘으로써 피해를 주고있다.

FBI의 큰 임무중의 하나는 勤共업무다. 특별정보과는 50년도에 원자탄의 원리를 훔쳐 소련에 제공한 에텔·로젠버그, 가짜 여권으로 미국에 잠입해서 아파트옥상에 초단파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모스크바로 정보를 흘린 57년도의 루돌프·아벨대령사건등 거물 간첩 검거실화는 지금껏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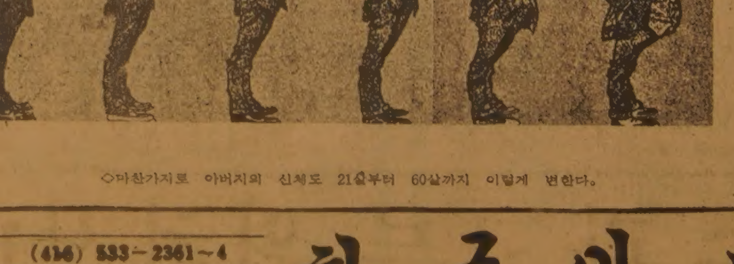
FBI가 소련에 대해 품고있는 기본적 견해는 소련의 KGB가 어떻게든 미국사회에 침투해서 사회조직을 전복시키려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 아래에서 대첩보 업무는 출발한다.

소련 첩자들은 시민 깊숙이에 침투해 시민의 여론이 조화를 못 이루는 곳을 포착하여 이를 십분 이용하는데 이럴 때가 FBI로선 가장 곤욕스럽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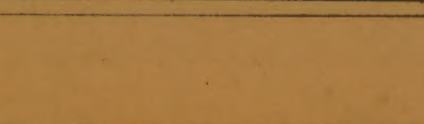
FBI 요원간의 義理는 아주 유명하다. 융금 병가가 끝났어도 계속 병상에 있는 동료를 위해 요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돈을 거두는 일은 당연사로 돼있고, 동료가 죽을 요원의 유고시에 성의껏 돕는 일은 不文律로 지켜지고 있다. 동료가 죽었을때 그 미망인에게 온갖 도움을 아끼지 않는 相扶相助 전통과 내부의 불문율에 불평을 하거나 비협조로 나올 때엔 동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다. 〈漢〉

해외 걸작 만화

◇어머니의 신체는 21살부터 60살까지 이렇게 변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신체도 21살부터 60살까지 이렇게 변한다.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416) 533-2361~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⑤5

길거리마다 축제기분이었다. 대형 크리스머스 트리엔 휘황찬란한 불꽃이 춤을 추었고 골목마다 경쾌한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다. 갈수록 연말의 분위기는 들떠가는 것 같았다.

「남의 생일날 왜 악바치게 노네。」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 다혜가 곱지 않게 흘겨 보았다.

「크리스머스가 왜 남의 생일야?」

「좌우간 그거 외제 아냐。」

「지금 찬이가 입고 있는 옷은 뭐야?」

「그렇게 따지니까 외체군。」

「너무 흉내 내지 마. 꼿꼿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휘청휘청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도 있어。」

「넌 마치 배고픈 역사선생 같은 소릴 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 그만 해. 좋은 날 만나서 좋은 소리 놔두고…쓸데 없이。」

다혜가 팔짱을 힘주어 꼈다。

「어디 갈래?」

「글쎄 말야. 서울은 너무 갈 곳이 없는 도시야.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발 뻗고 자는 사람들 보면 용해。」

> **지난줄거리**
> 황변호사를 구출해 낸뒤 김회장집으로 달려온 춘찬은 사위인 비서실장과 배다른 아들인 기획실장을 늘씬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도 김회장은 의연하게 황변호사를 시켜 그의 자리에서 유언장을 다시 썼다. 김회장은 모든걸 덮어두고 은퇴하며 춘찬과 넙치를 데리고 떠나려 한다. 곰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두사람은 화려한 출세가도를 포기하며 물고기는 물에서 살겠다고 선언한다.

다혜가 투덜거렸다. 정말 서울이란 데가 젊은 사람들 기 죽이게 만들어진 것은 확실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옥 설계하라고 하면 기찰 거야。」

다혜가 웃었다. 사람들 표정은 모두 들떠 있는 것 같았다. 더러 한복 입은 여자들 모습도 보였다.

「저 한복이 우리 전통복장인 줄 알고들 있겠지。」

「그럼 누구 거야?」

「김춘추라고 알지。」

「말해봐。」

다혜가 저돌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도 한복을 꽤 즐겨 입는 여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 친구가 때놈 끌어들여서 영토를 삼분의 이 이상이나 줄여놓고 당나라에 여자조공 바쳐 가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우리나라 복장을 중국 것으로 고치게 해 달라고 빌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중국 옷을 입힌거야。」

「혹시 꾸며대는 거 아냐?」

다혜가 못믿겠다는 듯이 말했다.

「본디 신라복장이란, 텔리비전 보면 태권도복 비슷한 거 입고 나오는거 봤지. 그런 거였단 말야。」

「그렇게 유식한 거 믿어도 돼?」

「식민지사관에 몸 바치는, 왜색 칠한 학자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다혜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서낭당을 미신이라고 파 없앤 사람들도 아직 청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갑자기 왜 그래?」

「나도 가끔은 썩 괜찮은 선생을 만난다구.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돌대가리라고 생각하면 안돼. 나도 한땐 무초스님 밑에서 종아리 맞아가며 공부하던 놈야。」

「그래서, 서낭당이 어쨌다는 거야。」

다혜가 장난기 서린 말투로 물었다.

「사람들이 서낭당에다 절하고 빌고 하니까 국민학교 아이들한테까지 미신이다, 그런 행위가 나라를 좀먹는다 어쩐다 으름장 놔서 다 없애 버렸잖아。」

「별걸 다 아네。」

「나도 별걸 다 아는 때가 있지. 그런데 사실은, 그 서낭당은 미신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녔어. 그건 단순한 헝겊조가리나 걸고 돌멩이나 던지는 곳이 아녔어. 그건 우리 백성들의 병기창고였어。」

「병기창고?」

「그래, 병기창고. 옛날에 방어무기는 두개골이었고 공격무기는 돌멩이밖에 더 있겠니?」

「후훗 말 된다。」

「우리 백성들이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공격용 무기, 돌멩이를 모아두었던 곳이 바로 서낭당이었어. 그러니 마을을 지켜 준 그곳을 좀 위했다고 해서 그걸 미신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켜 목숨 바친 조상들은 왜 떠받드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글쎄 말야。」

「그나 저나 다시 봐야겠어. 그런걸 어떻게 알았지?」

「엉터리 학자 말고 진짜 학자 한 사람이 내 선배가운데에도 있어。」

「맨날 똥통학교라더니…。」

「괴놈 왜 떼쳐먹지 않고 진짜로 공부하는 내 선배가 전국을 누비며 캐낸거야. 서낭당의 위치、마을과 서낭당의 지형적 관찰과 고증을 통해 캐낸 거야. 아뭏든 서낭당을 없앤 친구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장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떡치듯 두들겨 맞게 될 거야。」

날 위해 짠 계획이 고작 한잔하고 호텔에 가자는거야
만날때마다 첫날밤 해 버리자니 어디 病난것 아니니

「그만해. 오늘은 크리스머스 이브야. 우리 어디 가서 한잔 꺾지。」

다혜가 흥분해하는 내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를 끌어당겼다.

하나님、내 말 틀렸읍니까? 더러는 옳은 소리 한다는거 아시죠. 내가 공부 못한게 기뻐실 겁니다. 나같은 독종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쳐봐요. 여럿 잡았을 겁니다.

우리는 인파 속에 휩쓸려 명동쪽으로 걸었다. 통행금지가 없어진 밤은 언제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같은걸 던져주는지도 모른다. 그 짧은 4시간의 구속력을 젊은이들은 미워하고 있었다.

「어디 갈까? 흔들면서 마시는데 갈래?」

「흔들면서 마셔? 우린 그런 곳에 갈 나이가 지났어. 고고홀에 가기엔 우린 늙었어。」

「그럼 어디 갈 거야。」

「조금 걷다가…뜨거운 코피를 마시고…명동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그리고 가는 거지 머。」

다혜는 가고싶은 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명동바닥에 아직도 근사한 게 있다면 성모마리아상이 있는 성당같았다. 그 옆에 서낭당의 돌무더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을까.

강가에 나가 예쁜 조약돌을 주워들고 와서 그곳에 던지며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할테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할아버지 사진사가 대를 물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할 순 없을까.

「나를 위해 아무 스케줄도 짜지 않았단 말야?」

다혜가 물었다.

「짰지。」

「뭔데。」

「가볍게 한잔 하고 호텔에 가서…。」

「저렇다니까. 생각한다는게 저런 것 뿐이라니까。」

「이거 왜 이래. 호텔에 가서 뜨거운 코피 마시고 콜택시를 불러 집 앞까지 얌전하게 모셔다 드린다 이거야。」

「내가 졌다。」

다혜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취직했다고 사기쳐놓고 내 입술만 더럽힌 죄를 어떻게 보상받을까 생각했어。」

다혜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꺼득거리기만 했다. 입사한 뒤에 별로 일다운 일도 해보지 않은채 사표를 썼기 때문이었다.

「널 다 준다면 끝내주는 데 취직할 용의도 있지。」

「나 위해서 취직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잠깐 침묵했다. 서로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오늘 첫날밤 해버릴까?」

내가 애원하듯 말했다. 다혜 얼굴에 금새 장난기가 서려졌다.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미치겠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랬어?」

「사람 잡고 있네. 이거 왜 이래。」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들어. 만날 때 마다 왜 그래. 어디 병난 거 아냐。」

「난 네 마음을 모르겠다.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이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봐. 그런 건 개도 안물어 간다구。」

「개가 물어가라고 팽개치기나 한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넌 감정도 욕망도 호기심도 없니? 우린 어차피 죽어. 살아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못해보면 언제 하겠니。」

「넌 너무 지독한 거 같아. 난 널 강제로 갖긴 싫어 네가 스스로 옷을 벗을 때까진 참을 거야。」

「결혼하면 어련히 안벗고 배길까。」

「요새 첫날밤까지 악쓰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넌 어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 됐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하잖아。」

「걱정 마.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떼가지고 갈테니까。」

「귀찮게 뭐하러 그런 걸 떼고 그래. 나한테 신체검사 받으면 될 걸 가지고 점수 후하게 줄께。」

다혜가 내 등짝을 후렸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 두 사람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다.

「저기 가서 따끈한 코피라도 한잔 하자。」

우리는 북적거리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쌍쌍이었다. 그들은 우리처럼 모두 젊었다. 축제는 확실히 젊은이들 것이었다. 오늘밤은 어디를 가나 젊은이들 뿐이었다.

「이게 낼 모래면 우리 나이가 스물 셋이 돼. 세월 참 빠르구나。 삼십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말야。」

「삼십? 그때 우린 어떻게 변해 있을까。」

「뻔하지. 다혜 아이를 두엇 낳아가지고 주글주글 할테고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등뼈가 휘어지게 일하고 있겠지。」

「이거 참 애매한 나이야. 어른이랄 수도 없고 아이들이랄 수도 없고 말야. 아이들은 우릴 어른 취급할테고 어른들은 우릴 아이들 취급할테니 말야。」

다혜 말이 맞았다. 우리 나이가 애매한 나이였다. 대개의 사내들은 군대에 가있거나 군대에 가야하는 나이였고 대개의 여자들은 결혼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게 서있는 나이였다.

「동갑내기끼리 결혼하면 남자가 손해라던데. 넌 쉽게 늙을 거구 난 천천히 늙을테니까 말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보고 오늘 밤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야?」

「들어가. 이따가 성당 앞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밤도 다혜를 훔치기는 틀린것 같았다.

소갈머리 없는 계집애라면, 스물세살을 목전에 둔 보통 계집애라면, 지금 쯤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 너댓번 쯤은 어머니가 되려다 말았어야 할 계집애였다. 더구나 나처럼 만날 때마다 조르는 사내가 있으면 진작 마지못한 듯 끌려다녔어야만 했다.

데리고 놀 여자는 못되나 데리고 살 여자론 적격자지
총각딱지 떼어준 그아가씨 만나러 성당에 온 거라구

화는 삭지 않았지만 다혜의 그런 고집이 싫지도 않았다. 그만큼 정숙하려는 그녀의 의지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다. 다혜는 데리고 놀 여자는 아니었다. 데리고 살기에는 가장 알맞는 여자일 수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 나는 어머니에게 다혜를 소개할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국민학교 교장선생의 딸이란 사실과 간호원 출신이란 사실만 가지고도 찬성할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선생님과 의사, 암행어사와 용한 무당에게 끔찍 기가 죽는 면이 있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심야 미사가 시작된 뒤였다.

「우리 저기 가서 기도해. 서로를 위해서 말야。」

다혜가 내 손을 잡고 앞서 걸었다. 성모상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다혜는 자꾸 나를 끌어당겼다. 되도록 앞쪽으로 가서 기도를 할 모양이었다.

「여기서 대충 하자니까 그래。」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왕이면 앞으로 가지 왜 이래。」

「너야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렇지만 나야 어디。」

「죄받을 소리만 하구 있네。」

우리는 앞쪽으로 나갔다. 성모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서있었다. 주위를 비추는 불빛속에서 성모 마리아는 엷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찬이、저기 봐. 명식씨 아냐?」

다혜가 구석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명식이가 합장을 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한쪽 발이 짧아서 약간 기운 자세였지만 녀석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다.

「저 녀석 공부하라고 올려보냈더니 여기 와 있군。」

명식이는 지금 쯤 암자에 있어야 할 녀석이었다. 설악산에 다녀온 뒤에 바로 짐 싸가지고 떠난 녀석이었다. 한 두번 내려왔었지만 볼일을 보면 후다닥 짐을 챙기던 녀석이 지금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가만둬. 기도 끝날 때까지。」

다혜가 내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녀석은 13평짜리 아파트를 끝내 거절했다. 춘삼이 형이 약속대로 아파트를 사줬지만 녀석은 한사코 그걸 거부했다. 모든 걸 사법고시에 패스한 뒤로 미뤘다. 합격하지 않는한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떠났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명식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 자리에서 떠날것 같지 않았다. 내가 녀석의 뒷덜미를 잡았다. 명식이는 졸린 듯한 눈으로 뒤돌아 보고 씨익 웃었다.

「이게 정신 못차리고…。」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명식이는 뒤뚱거리며 돌아섰다. 녀석의 손에 찬송가 책이 들려 있었다.

「임마, 소식도 없이 내려와서 네가 제일 싫다는 이 저자거리에 서있을 게뭐야。」

「다혜씨도 오셨군요。」

명식이는 다혜에게 말을 건 뒤에 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이거 밤이다. 다혜씨랑 까먹어라. 내가 산에서 따온 거다。」

「임마, 어딜 가려고 서둘러. 잘데나 있어?」

「하늘 아래가 다 내 집이다. 어디가면 잘데가 없겠니。」

「너 뭐 먹을 거 있다고 내려왔어。」

내가 채근하듯 물었다.

「서유리라고 알지? 설악산에서 만난애. 오늘 약속했거든。」

「서유리하고 약속? 이거 미치고 펄쩍 뛰게 만드네。」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서유리라면 설악산에서 명식이의 총각딱지를 떼어준 천사같은 여자아이였다. 지금쯤은 춘삼이 형이 좋은 자리를 내주어서 그런 고생은 하지않을 여자였다.

「그때 한 약속이지. 이번 크리스머스에 여기 와서 서로 기도해주기로 약속했거든. 걔 세자였거든。」

「그래서 내려온거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명식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났냐?」

「서로 얼굴만 봤어. 내옆에서 기도하다가 이걸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갔어。」

명식이는 묵주를 내밀었다.

「한마디 말도 안했단 말야。」

「애초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난 초저녁부터 여기서 꼼짝않고 기도하고 있었어. 우리가 올줄 알았지. 걔도 한마디 말도 하지않고 내가 넣어준 밤을 한 톨 깨물어서 반을 내 입에 넣어주고 갔어. 우린 내년 크리스머스에도 그러기로 약속돼 있어。」

「독하다, 독해。」

나는 안가겠다고 버티는 명식이를 끌고 성당에서 내려왔다. 다혜가 군、밤을 사들고 서있었다.

「나 잠깐 봐。」

나는 명식이를 세워놓고 다혜가 끄는대로 따라갔다.

「서유리가 누구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께. 우선 저 녀석 저녁이나 먹여야 돼. 초저녁부터 저러고 서있었대。」

「알아. 그 여자가 이걸주고 갔어。」

다혜가 내미는 봉투 속에는 현금 10만원과 편지 한장이 들어있었다. 현금은 명식이를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여름에 유리에게 주었던 수고비와 같은 액수였다.

「이 땅은 아직도 믿을수 있어。 아름다와. 정말 아름다운 땅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 다혜가 영문을 모른채 따라왔다.

「갑자기 왜 이래. 뭘 잘못 먹은거 아냐?」

「이따가 얘기해 줄께. 그런 일이 있어. 저 녀석 저녁 먹이고 푹 재워줘야 돼。」

「나도 알아. 유리라는 그 여자하고 무슨 일이 있었지? 설악산 가서 재미 실컷보고 딴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냐. 아름다운 일이란 것만 알아。」

우리는 을지로 쪽으로 걸어 내려왔다. 절뚝거리며 걷는 명식이의 발걸음에 힘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게걸스럽게 밥을 먹는 명식이 옆에 앉아서 설악산에서 벌어졌던 명식이와 서유리라고 하는 여자 얘기를 했다. 물론 명식이가 알고 있는대로만 얘기했다.

「명식씨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다혜가 이렇게 말했다. 밤을 우겨넣던 녀석이 크게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난 계속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웃었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精神문화원首腦 전격辭表

李文敎장관 다녀간뒤 高원장·金부원장제출 "政府기구改編의 하나"

學界 "研究방향·運營싸고 不和"

政府측 "人文·社會대립 機能마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高柄翊원장과 金大煥부원장이 23일 사표를 제출했다。이들은 李奎浩문교부장관이 22일하오 연구원을 다녀간후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해외여행중인 李浩宰한국학대학원장도 귀국즉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後任者 내년1월에 결정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高원장등 수뇌진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데 대해 학계에서는 연구방향과 운영을 둘러싸고 야기된 연구원 고위층간의 불협화음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李奎浩 문교장관은 23일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장및 부원장의 사표제출은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정부산하 기구에대한 개편작업의 하나였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정신문화원의 지위와 기능은 물론 예산상의 효율적인 운영문제가 재검토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 정부고위소식통은 이날 『정신문화연구원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파벌이 있어온데다 인문과학연구원들과 사회과학연구원들간의 대립, 스탭진과 고위층간의 알력등으로 사실상 기능마비상태에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소식통은 또 그동안 『이 기구의 기능을 현재의 진용을 그대로 두면서 회복시키기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표를 받게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식통은 이번 기구개편과 함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기구의 적정성과 예산및 기능의 효율성에대한 재진단 과정을 거쳐 새출발하게될것이라면서 후임인사는 내년초에가서나 선출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蘇·波에經濟제재를 美, 日·西方에 要求

【東京23日AP=聯】미국은 최근 일본과 여타 서방국가들이 소련및 폴란드계엄정권에 대해 일제히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일본의 有力경제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日本정부소식통들을 인용, 23일 보도했다。

새해外交 經濟·文化에 力點

새해目標 非同盟강화·韓日불균형 是正등

정부는 새해의 外交목표를 ▲韓半島안정을 위한 국제적 安保토대구축▲自主的統一기반조성▲전통적우방들과의우호증진▲非同盟적극외교▲經濟및 資源외교강화 ▲文化외교전개등에 力點을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함께 외교목표로 표방해온 安保·統一·經濟및 文化외교 강화를 새해에도 주요 외교목표로 지속 발전시키는한편 全斗煥 대통령의 訪美와 아세안巡訪, 南悳祐총리의 유럽巡訪등 올해의 갖가지외교 적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보다 구체적인 結實을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벌일방침을 세우고 있다。

내년은 더우기 韓美양국관계에 관한 修交1백년이되는 紀念的인 의미를 갖는데다 韓日관계역시 현안외교문제의 妥結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美日양국을 외교수행의 양대주축으로 삼아온 정부의 외교정책은 중대한 轉機를 맞을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특히 올해외상회담과 정기각료회담에서 타결되지 못한 韓日간의 經協문제는 종래의 不均衡했던 韓日관계를 근본적으로 對等·水平관계로 再정립한다는 次元에서 정치적타결을 시도할계획으로 있는데 日本측의 성의있는 자세에따라 빠르면 1월께로예상되는 사쿠라우찌(櫻內)신임日本외상의 訪韓을 계기로 進展여부가 드러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제3세계및 非同盟國을 상대로전개해온 對北傀우위확보와 非同盟외교가 내년9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열리는 非同盟頂上회담을통해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내년 한해는 우리의 對非同盟외교에 새로운 轉機가 될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82년의 외교정책에 보다 탄력과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산하외교안보연구원이 주동이되어 내년및 10년후 한국외교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국내정치학자, 외교실무가, 기업인들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10년후의 한국외교』(假稱)라는 마스터·플랜에 착수했으며 관계기관과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내년1월께 완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全斗煥대통령 黨비서실장 任命狀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3일상오 청와대에서 李宣基총재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과 羅碩昊정책위의장이 배석했다。

"北傀특공대 10萬명"

위컴司令官 "韓美군사력 混合유지긴요"

◇위컴사령관

【뉴욕22日=聯】존·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韓美연합군이 북괴의 전쟁도발시 이를 철저히 응징할수 있는 균형된 방위력을 갖추기위해 상호『군사적능력의 혼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위컴사령관은 이날 공개된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와의 회견에서 『이는 전쟁억지를 위한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같은 군사적능력의 혼합이 북괴와의 동등한 군비증강을 목표로 하고있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니터지 한페이지전면에 게재된 이회견을 통해 北傀가 중소분쟁을 이용, 양국으로 부터의 군사지원을 노린 흥정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따른 결과로 北傀는 지난수년간 공산권 제4위의 군대를 양성했다고 지적했다。

위컴사령관은 특히 북괴가 10만명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특공대를 보유하고있으며 이 특공대의 임무는 육·해·공3면에서 한국에 침투하여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살인, 파괴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관계 대폭好轉

레이건 美行政府서 自評

【워싱턴22日=聯】올해 韓美관계는 과거10년간의 그어느때보다도 좋아졌다고 레이건美행정부가 22일 자평했다。

레이건 대통령임기 첫해인 81년도의 대통령치적을 평가하면서 백악관공보국이 이날 하오 발표한 『레이건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과 성공적인 韓美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內 지위가 강화됐다고 말하고 아시아지역의 美맹방들은 太平洋세력으로 남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보고서는 또 韓美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이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태세와 지속적인 공약을 설명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새해살림 나아진다

한국갤럽面接조사 20세이상千5百명 43%樂觀·15%悲觀

景氣낙관 37%…歐美비관과 對照的

우리나라사람들은 『내년은 경제형편이 금년보다 나아져 생활이 훨씬 펴질것』으로 낙관하고있다。

내년도에대한 이같은 낙관적인전망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소장 朴武益)가 우리나라국민들의 내년도에 대한 전망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한국갤럽은 지난11월20일부터 30일까지 20세이상의成年 1천5백명을 전국에서무작위추출, 1대1의 개별면접을 통해 조사를실시했다。

한국인의 내년도에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歐美제국의 「비관론」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있는데 같은기간 똑같은 방법으로 국제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결과에따르면 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등은 『생활형편이금년보다 못해질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리고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내년의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좋아질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3·6%가 『좋아진다』고답변했으며 『나빠진다』가 15·2%, 『비슷하다』가 34·2%로 나타났다。

또 『경제가 나아질것인가』라는질문엔 『나아진다』가 37·6%, 『어려워진다』가 29·9%, 『비슷하다』가 27·8%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업률의 증가』여부를묻는 질문엔 『증가한다』가 42·4%, 『감소한다』가 26·3%, 『비슷하다』가 24·0%로 밝혀져 생활형편의 낙관적인전망과는 대조를 보이고있다。

또 『노사분쟁의 증가』를 묻는 질문에는 『증가한다』가 40%로 나타났으며 『감소한다』가 21·1%, 『비슷하다』가 25·7%로 되어있다。

『국제간의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대부분(52·6%)이 『많아진다』고 예상했으며 『비슷하다』가 19·4%, 『적어진다』가 10·9%로 나타났다。

한편 西歐제국의 국민들은 전체24개국가운데호주·일본·그리스를 제외하고는『82년의 생활형편』과『경기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있으며, 『실업률증가』에 대해서는 그리스와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 82년의 세계』에 대해서는 24개국중 23개국이 국제분쟁이 심각해질것으로내다봤다。

『10년안에 세계대전이 일어날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인들▼34·4%로 가능성을 크게보고있지 않으나 미국·일본·호주등 국가는 50%이상으로 그가능성을 크게보고있다。

한국 갤럽은 조사결과를 분석,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70년대이후 우리경제가 크게 성장해왔다는점에서 한국인은 내년도전망을낙관적으로보고있는것 같다』고말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보아 한국인의 낙관론과비관론의 갈림길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訪比趙紫陽, 北傀不安해소"

美紙, 對美비난·관계개선노력

【뉴욕22日=聯】중공수상 趙紫陽의 북괴공식방문은 중공이 인도·파키스탄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뉴욕·타임즈紙가 22일 보도했다。

타임즈紙는 北京주재 외교소식통들의 말을인용, 평양을 방문중인 趙紫陽이 북괴가 소련에 밀착돼서는 안된다는 중공의 입장과관심을 북괴측에 전달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문은 또 趙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킴으로써 동북아에 불안을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에대한 이같은 비난이 미·중공간의 우의에 중대되고있는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국민支持 대규모沈默示威

노르웨이서

【오슬로22日AP=聯】노르웨이에서는 22일정오를기해 5분동안 폴란드국민을 지지하기위한 대규모 침묵시위가벌어져 이 시간동안 노르웨이 전국은 사실상 활동중지상태에 들어갔다。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르웨이인들이 참가한 이날침묵시위가 끝난후 망명한 폴란드인들과 약50명의 노르웨이인들은 노르웨이주재 폴란드대사관앞에 모여 폴란드의 계엄사태에 항의했다。

蘇聯 체코軍이 波 진압支援說

【스톡홀름22日UPI=聯】소련과 체코軍이 폴란드계엄軍에 협력, 계엄령에 저항하는 폴란드노동자들을 분쇄하라는 지시를 받은것 같다고 스웨덴의 폴란드자유노조대변인이 22일 밝혔다。

야쿱·스웨치퀘대변인은 21일 벨기에에 도착한 한 소식통이 바르샤바주재 소련대사관과 특별한 관계에있는 다른소식통들에게서 들은말을 인용, 그같이 밝히고 이전언은 이 소련군은 심각한 소요가 계속되고있는 발트海연안의 항구들에 투입되고 체코軍은 국경부근의 실레지아지역에서 폴란드보안군을 지원할것임을 시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首都圈에 깨끗한 물 供給

八堂댐 광역2단계사업 어제完工

서울강남지역을 비롯, 城南, 水原, 安養, 半月, 果川등 수도권의 급수사정이 좋아졌다。

하루 2백60만톤 공급규모의 八堂댐 수도권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이 23일 완공, 준공식을 갖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申秉鉉부총리, 金周南건설부장관, 朴英秀서울시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수도권광역 상수도사업은 지난79년6월 1단계공사를 끝내 서울강남및 城南일부지역, 仁川, 富川, 金浦지역에 하루 1백20만톤씩 물을 공급해왔으며 이번에 2단계공사가 끝나 서울강남의 나머지지역등에 하루1백40만톤씩 추가로 공급할수있게된것。

◇漢江쌍동이橋 오늘개통 서울의 새명물이될 第一漢江橋쌍동이 아치교가 24일준공, 개통된다。第一漢江橋 확장공사는 1백71억원을들여 3년만에 완공한것으로 교폭이 20m 4차선에서 40m 8차선으로 두배로넓혀져 漢江교량에서의 보틀네크현상을 완전해소하고 또강남북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에도 기여하게된다。서울시는 第一漢江橋와 연결되는 上道터널도 개통한다。

社会漫評

안주고안받기 울시다…

地平線

靑色은 藍草로 물들이지만 남색보다 푸르다。얼음은 물로 되어있지만 물보다 차다。먹줄처럼 곧은 재목도 휘면 둥근 바퀴가 된다。그후에 나무가 마르면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나무는 먹줄을 긋고 대패질을하면 곧게되고, 쇠붙이는 숫돌에갈면 날카로와진다。이처럼 사람은 매일 반성을 되풀이하고 학문에 정진하면 지혜가늘고 나쁜일은 안하게된다。동서남북 어느지방에 태어난 아이라도 뱃속에서 나올때의 울음소리는 같다。다만 커가면서 서로다른풍습에 젖고 교육에따라 달라진다。—이말은 後天的교육이 인간형성에 얼마나 큰영향을 끼치는가를말하는 荀子의 勸學篇에나오는 유명한 귀절이다。▼서울시교위는 22일 서울교육상 올해수상자로 長安국교 洪文久교장등 5명을선정, 상장을 수여했다。초등교육부문은 透徹한 교육관과 지도력으로 학교교육발전에 공이큰 洪교장과 教職倫理確立에 힘쓴 宋德永新龍山국교교장, 중등부문은 교육행정에 非凡함을 보인 金恩圭東洋공업전문대학장과 女性禮節교육에 指針을 세운 春愛 무학여고교장, 사회교육부문엔 不遇兒·障礙兒지도에힘쓴 趙秉文 한국구화학교장이 뽑혔다。교육에 반생을 바친 이들의 노고는 말할것 없이 크다。▼철없는 꼬마들과 함께지내면서 배움의 빛을열어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자칫하면 탈선하기쉬운 10대를 건전하게이끌어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수고도 수고려니와 말못하는 어린이들을 자식처럼 아끼고보살펴준 구화학교교장선생님들 그 모두에게 표창장과 상금으로 보답이 다될수는없다。이번시상은 조금이라도 이 스승들에게 보답하려는 정성의 그일부에 불과한것이다。다만 그들에 교사상이 뛰어난 평교사들이 한사람도 안끼어있는 것은 좀 섭섭하다。▼地平子의 집이 어린이도서관근처에있어 가끔 꼬마들의 행렬을보게된다。씩씩한 여선생님 인솔하에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들이섞여 …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497-1841
MILLER REFRIGER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쭉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5,500 아스킹: $18,950 네트: 년 $120,000
렌트: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종합보험

김 홍 팔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波軍政、對국민 宥和조치

聖誕前夜 통금해제·省內여행허용

◇레이건 만난 폴란드前大使 로무알트·스파조프스키 前駐美폴란드대사가 22일 레이건美 대통령을 만난다음 백악관을 떠날때 부인 웬다 스파조프스키여사가 레이건대통령을 안고있다. 【워싱턴22日UPI電送=聯合】

軟禁바웬사 가족面會
記協간부·知識人석방
戒嚴업무꺼린 陸軍、民兵隊와충돌 가능성

【빈22日 UPI·聯合】 폴란드 계엄당국은 계엄선포10일째인 22일 가톨릭교도들인 폴란드국민이 전통적인 크리스머스 자정미사에 참석할수있도록 오는24일밤부터 25일새벽까지 하룻밤동안 폴란드전역에 걸쳐 계엄하의 현통금을 일시 해제하고 22~28일까지 폴란드국민의 전통적 성탄절친지방문을 위해 자택이 소재한 省내에서 자유로이 여행토록 허용함과 아울러 계엄령하에서 체포된 9명의 지식인들을 석방함으로써 對국민유화자세를 취했다.

바르샤바방송은 이날 폴란드 계엄당국이 국민에게 보내는 이같은 『크리스머스 선물』을 발표하면서 바르샤바에서 가택연금상태하에있는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가족들과 면회하고 한 가톨릭신부와 함께 미사를드리도록 허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폴란드 기자협회간부 크리스토프·클링케르、영화감독 에르지·마르루세프스키등 9명의 지식인들이 석방되었으며 이들의 석방은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석방될 것임을뜻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크리스머스이브 자정미사가 전국에 실황중계되고 크리스머스에는 바르샤바의 聖십자가 성당에서 범자를 위한 미사가 역시 실황중계된다고말했다.

【파리22日 AFP=聯合】 폴란드육군은 소련으로부터 충성심을 의심받아 계엄업무집행에 있어 특수보안군의 뒷전으로 밀려나있으며 또한 계엄업무수행을 꺼리는 폴란드육군과 과격민병대간에 수일내 충돌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런던과 본의 보도들이 시사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런던에 입수된『믿을만한 보도들』을 인용,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가 폴란드사태를 완전 장악하지 못하고있으며 실레지아 그다니스크 브로클라프등지에서는 계엄통치에 대한 강력한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에서는 서독정보당국의 측근소식통이 『앞으로 수일안에』 폴란드육군과 과격한 민병대간의 충돌가능성을 예측하고 폴란드군사정권은 지금까지 파업진압등 계엄업무 수행에 특수보안군과 민병대만을 동원하고 있으며 폴란드육군은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소련의불신때문에 뒷전에 물러나 있다고말했다.

◇휴식하는 波難民수용소의 한가족 빈남부 트라이스키르헨의 폴란드난민수용소에서 한난민가족이 매트리스에 몸을기대어 쉬고있다. 사진전면에 보이는두터운 판지를 오려만든 독수리모형에는 솔리다리노스크(자유노조)의 이름이 쓰여져있다. 【트라이스키르헨22日 AP電送=聯合】

레이건、눈물글썽
亡命波大使만나

【워싱턴22日 AP=聯合】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은 22일 백악관집무실에서 폴란드軍事압제에 항의, 미국으로 망명한 로무알드·스파조프스키前駐美폴란드대사부처와 감격적인 회담을 갖고 이들을 위로했다.

베긴首相 美行政府비난
뉴욕·포스트紙
「시나이카드」노려

【워싱턴23日=曺淳煥特派員】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合倂을 공식비판한 美 행정부를 베긴 이스라엘수상이 전례없이 통박한것은 치밀한전략적 계산이 내포된것이라고 이스라엘사정에 밝은 뉴욕·포스트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포스트지는 명년4월 시나이반도가 이집트에 반환되고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요르단江 서안에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세우기위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방침이 섰다는것을 베긴이 터득한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를 반환한 후에는 미국에 더의존치 않을수 없게 되는데 베긴은 그 이전에 미국에 떠밀리지 않으려고 미국과 맞서 시나이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극도로 팽팽해진 美·이스라엘관계가 앞으로 2~3개월안에 아물지 않으면 명년 4월까지 시나이반도를 순조로운 이집트반환은 어려울것이라고 분석했다.

美、軍縮협상中斷 검토
波사태關聯 국가안보회의 再召集

【워싱턴22日 UPI·AP=聯合】 레이건美 대통령은 22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폴란드사태를 집중협의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에드윈·미즈백악관고문은 레이건행정부가 폴란드사태와 관련하여 취할 일련의 정치·경제·외교및 안보적 차원의 방안들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진·로스토군비관리군축국장은 폴란드계엄사태와 관련, 크렘린당국에 미국의 불만을 분명히 표시하기위해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에관한 미소군축협상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고 밝혔다.

미즈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이 폴란드 국민들의안전을 크게 우려하여 여러가지로 도움방안을 검토하고있으며 곧 이와관련한 모종성명을 발표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레이건、내일 演說
波關聯 美입장천명

【워싱턴22日 AP=聯合】 레이건 미 대통령은 23일밤9시(한국시간 24일상오11시) TV를통해 전국에 중계될 폴란드사태에관한 연설을 할것이라고 백악관의 한대변인이 22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폴란드사태에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한편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민들의 즐거운 휴일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波、航空通信을허용

【코펜하겐22日 =聯合】 폴란드는 22일새벽 돌연 폴란드국내의 항공망과 세계의 주요 항공통신망간의 교신연락을 부활했다고 덴마크의 관계당국자들이 22일 말했다.

軍·聖職者 坑內로
炭鑛占據 광부설득

【런던22日 AP=聯合】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에 항의, 1주일째 탄광을 점거한채 파업중인 3천명의 광부들을 설득하기위해 폴란드 군관계자들과 가톨릭성직자들이 수군데 坑內로 들어갔다고 22일 바르샤바방송이 보도했다고 런던에서 청취된 바르샤바방송은 이와함께 수미상의 파업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대한 카토비체제철소를 점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BBC방송은 이 제철소의 파업노동자를 8천명으로 보도했다.

海外 亡命者 1천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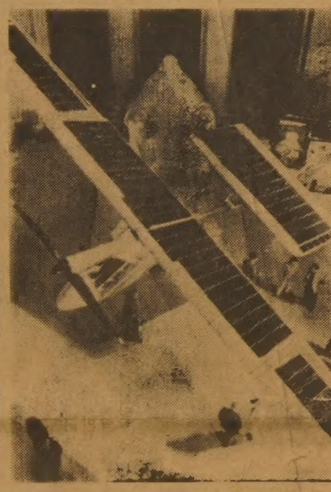
【파리22日 AFP=聯合】 지난13일 비상사태선포이후 해외로 탈주했거나 해외체류를 결정한 폴란드人이 1천여명을 넘고 있어 폴란드人의 해외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의 해외망명자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인물은 지난19일 가족들과 함께 정치적 망명을 요청, 레이건 대통령의 허락을받은 로무알드·스파조프스키 주미폴란드대사이다.

이밖에 외국항구에 정박중인 선원들과 해외여행자 바티칸시티순례자들이 해외망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몇달간 폴란드의 정치·경제상황이 점차악화일로를 걷자 해외망명을결심한 새로운『망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教皇 送年메시지
波위기 平和위협

【바티칸시티22日 AP=聯合】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22일 그의조국인 폴란드와 기타지역에서의 위기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경고하고 폴란드의 동포들이 더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世界최초의 太陽熱항공기 美필라델피아의 프랭클린연구소에 전시되고있는 세계최초의 태양열이용 장거리 항공기. 이항공기는 동연구소의 메인홀전장에 매달려 전시되고 있는데 비행기끄리 왼쪽부분에 벤프래클린동상이 보인다. 【필라델피아UPI電送=聯合】

실마리 못푼 將軍被拉 미스터리
—惡名높은 伊붉은旅團의 正體는
反核무드 편승 反美활동…北傀·쿠바등서 兵器 支援
美CIA·伊警察도 束手無策…"背後엔 蘇있다"주장

인사이드

동그라미안에 그려진 5각의 붉은 별(『붉은여단』의 상징)이 美육군의 진짜별하나를 나꿔채갔다. 이탈리아극좌도시게릴라 붉은旅團이 지난17일 납치해간 제임즈·L·도지어美육군준장은 지난78년5월 처참히 살해된 알도·모로 이탈리아 수상과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인가.

22일 이탈리아 안사통신사에 『도지어장군에 사형이 선고됐으며 이날밤(한국시간23일새벽4시) 시체를 한시골마을에서 발견될 수있을것』이라는 전화가 붉은여단소속임을 자처하는 괴한으로부터 걸려와 수사진을 긴장시키고 있다.

안사통신사 베이루트지국에 걸려온것은 『보안상이유때문』이라고 괴한은 밝히고있는데 美국무성은 납치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붉은여단행적으로봐서 이 안에 도지어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것만은 부인할수 없다.

한 수사관은 『붉은여단은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 목적을 달성한 후 살해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붉은여단이 이탈리아국외의 인물을 테러대상으로 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여단은 납치사건후 첫 성명을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 기구)와 美제국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서독의 赤軍派 IRA(북에이레 공화군) ETA(바스크 분리주의 테러단) 등 유럽의 각도시 게릴라단체들과의 「反제국주의공동전선」형성을 촉구했다. 성명에서와 같이 붉은여단은 현재서구에 만연해있는 反美·反核무드에 편승, 본격적인 反美테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구의 테러단과 국제적인연대관계를 모색하고있다.

이스라엘정보기관이 포착한 바에따르면 3주전 국제테러단들이 스위스의 로잔에서 회동, NATO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이탈리아국영TV방송이 보도했다.

산드로·페르티니이탈리아대통령은 『도지어 납치사건은 국제테러단과 연결된 것이 확실하다』고 라브美대사에게 전했다.

미국은 8명의 美CIA(중앙정보국)요원과 테러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팀을 사건현장에 급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찰은 베로나 등 이탈리아북부지방의 도로를 차단하고 헬機와 군견등을 동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를 잡지못하고있다. 수사당국은 붉은여단이 수사망을 피하기위해 도지어준장을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국외로 옮겼을 가능성이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스위스의 남서부지방은 서독과 이탈리아중간지점으로 피신이 용이해 적군파등 국제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고있다.

지난9월 서독적군파의 미군기지공격및 유럽주둔미군사령관 크로젠대장습격, 10월 IRA의 영국해병대사령관 프링글중장폭탄투척사건 등 연이은 나토고위장성에대한 테러사건은 이미 서구의 테러단체간에 공동전선이 구축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낳고있다.

적어도 미국은 테러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레이건 대통령은 22일 TV회견에서『최근 서구전역에 배후조종된것』이라면서 소련에 포구를 돌렸다.

美데일리·메일紙는 사설에서『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전세계의 좌익테러단이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北傀 쿠바 리비아등 소련위성권들로부터 범죄지원을 받고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썼다.

이번 도지어납치사건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국제테러리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종래의 논쟁차원을 넘어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 같다. 【崔海雲기자】

◇「남편을 돌려주오」… 도지어장군 부인이 딸과함께 TV에 출연, 붉은여단에 납치된 남편을 되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베로나(이탈리아)UPI電送=聯合】

도지어 被拉事件
"屍體 23일새벽에 발견될듯"
장난電話많아 경찰 搜査에혼란

【베로나23日UPI·聯合=特約】 일련의 익명장난전화가 도지어장군피납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수천명의 경찰수사진을 혼란시키고있다.

그중 가장 경찰을 놀라게 한것은 『도지어장군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며 시체는 23일 새벽 4시까지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 이탈리아 ANSA통신에 걸려온 전화였다.

또 22일에는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섞어쓰는 한남자가 ANSA통신 알파인지국에 전화를 걸어『도지어장군이 트렌토근처 알파인계곡의 눈벌리에 붙잡혀있다』고 허위제보를한바있다.

◇낙하산탄 샌터클로즈 썰매대신 낙하산을 등에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샌터클로즈. 【페리스(캘리포니아)22日UPI電送=聯合】

새홍콩總督 유드卿
駐中共 大使 역임

【홍콩22日路透=聯合】 영국의 저명한 중공문제전문가인 에드워드·유드경(57)이 22일 새 홍콩총독에 임명됐다.

지난74년부터 78년까지 중공주재 영국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유드경은 11년간 홍콩을 통치한후 오는 4월말 물러나는 크로퍼드·머레이·매클로스현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하게된다.

레바논 緊張완화에
하비브、蘇도움要請

【예루살렘22日 AFP=聯合】 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는 이달초 맘만에서 소련부외상 미하일·시텐코와 비밀회담을 갖고 레바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스라엘라디오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아랍소식통들을 인용, 이두사람이/레바논사태와 중동분쟁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하비브특사가 레바논의 평화를 보장하고 레바논의 베카계곡에 설치된 시리아군의 지대공미사일의 철수를 위해 소련이 하페즈·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징역 千3백89년
★美法廷, 스키복면强姦犯

지난3년간 美12개州를 종횡무진하면서 81회(본인주장)에 걸쳐 강간및 폭력을 일삼은 이른바 「스키복면의 강간범」 존·시모니스(30)가 최근 7건의 강간범죄가 더 드러나 15회 종신형및 징역 1천3백89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4건의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8회 종신형및 징역 2천4백6년형을 받게될 운명에 놓인 이 희대의 강간범은 한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반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같은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 【배튼루지(루이지애나)=UPI】

東南亞여성 매매
★日경찰 깡패團束강화

일본지바현경찰은 최근 야꾸자(조직깡패)들이 동남아시아지역여성을 데려와 사창가로 팔아넘기거나 무기와 마약을 들여오는것을 막기위해 나리따공항경찰과 협동으로 이들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했다.

금년들어 필리핀과 태국·대만·하와이등지로 모종의 임무(?)를 띠고 출장을떠난 야꾸자가 지난해보다 1백39명이 더 늘어난 5백35명에 달했다는것. 【나리따=經】

映畵피막 人氣끌어
벨기에서 輸入제의

제43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ISDAP상(비경연부문)을 수상한 영화 「피막」이 유럽시장에 수출될것 같다. 프랑스한국문화원이 영화진흥공사에 알려온바에 따르면 벨기에의 한 영화사가 전유럽의 판권으로 수입하겠다고 제의했다는 것. 제작사인 世耕興業은 수출가격을 절충중이라고 밝혔다.

「피막」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3대륙영화제(비경연부문)에서 호평과 함께 오는 1월15일부터 열리는 환상영화제 출품요청도 받았다.

메아리
「더욱 가난하게」

「그곳을 놓지고 돌아가게될 나의 집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든든한 곳이었다. 기름진 식탁과 쾌적한 常溫이… 이웃을 잊게하는 甘味에의 중독이 독버섯처럼 되어있는 處所…」

세밀에 한 여류작가가 「그렇게라도 다녀오지 않고서는」 배겨 나기가 어려워 다녀왔다는 어느 精神박약아의 모여사는 곳을 돌아보고난뒤에 쓴 수상의 한 귀절이다. 최근 그리스도교에 귀의하여 영렬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소문에 들은 문인 X、그는 이 수상을 쓰고나서 「自己貶勞의방편」이었다고 「고백」한다했다. 그러나 그 고백속에는 가난하고 가난한 마음이 銀鱗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역겨울이만큼 훈훈한 김이 감도는 空間이 있는가 하면 엿보는 담벼락 하나 너머에는 希望이 얼어붙고 앉는 寒冷한 생활의 터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社會다. 아직은…

그래서 많은 人士들이 慈善가 되자 고아원을 찾고 양로원을 찾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나섰다. 어느 방송은 이웃을 돕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지금 전국에 전파를 날렸다. 고마운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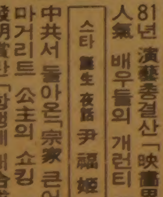
거리에는 크리스머스·캐럴이 흘러나오고 가두 상점에는 한해의 따뜻한 정이 담겨갈 선물꾸러미가 선을 보이고 있다. 하느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이 이토록 고맙고 흥겹고 더러는 사람을 들뜨게까지 만드는지…. 해마다 찾아오는 날이지만 해마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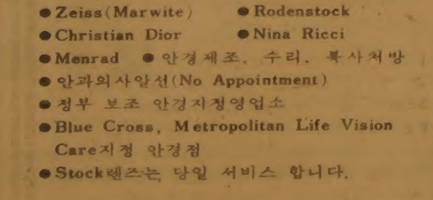
그러나 정말 모두가 빠짐없이 다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 들뜨게라도 된다면 오죽 좋으랴마는 바로 「이웃」가운데는 아직 이런 흥겨움이 차단되어 있고、차단될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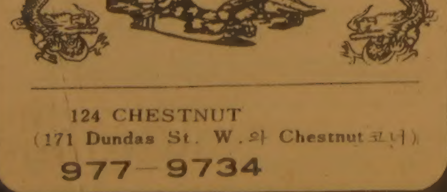
올해는 유엔에서 「국제 신체장애자의 해」로 정하여 모든 사람이 불우하고 불운한 우리의 이웃을 각별히 意識토록 만들었다. 세계 40억인구중 4억이 어떤 형태로든 「장애자」란 것이다. 정말 4억뿐일까? 이웃의 불우를 보고도 이를 같이 덜어주지 못하는 유복한 이웃이있다면 그 또한 「장애자」는 아닐지. 사실 누구 말처럼 인류는 心身 어느모로든 分明 장애자이다.

이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를 위해 1백50여회의 행사가 베풀어지고, 복지법이 개정되며 시설을 늘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통계는 지난 7년간에 늘어난 장애자 복지시설이 고작 30개였다고 가리키고 있다. 이동안에 교회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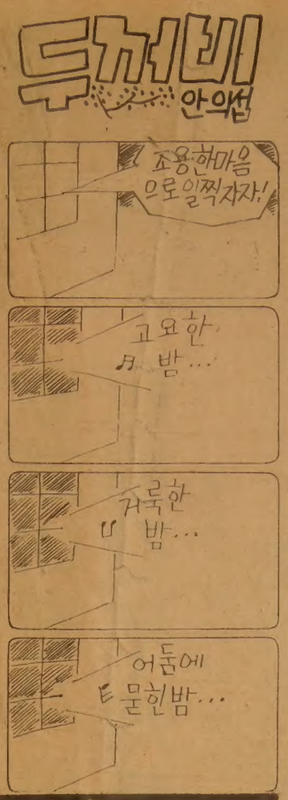
養老院에서 떨고있는 우리의 어버이들, 고아원에서 고운 눈망울이 젖어있을 우리의 새싹들, 이 거룩한 날에나마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듯、사람이 사람을 더 사랑할수는 없을까? 더 豊饒해져도 마음은 더욱 가난하게 가지고서….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 27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복혜숙〉
홍콩 스타 鄭美羅양 시집간다네
21일 은퇴하고 28일 친구 오빠와 約婚
碧眼처녀가 「孤兒사랑」 20년
81년 演藝총결산 「映畵界」편
人氣 배우들의 개런티 明細
스타 誕生 夜話 尹福姬편
中共서 돌아온 「宗家 큰어른」
마거리트 公主의 쇼킹 傳記
發明賞탄 「항생제 새合成法」
李美淑과 全永祿의 뜨거운 사이 眞相
50代 外國人 신랑과 40代 富家 신부의 스위트 홈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압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
전화 : 531-2236(B), 282-2369(R)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 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4촌妹兄 청부殺人 미수

怨恨관계 轢殺기도 一黨5명중 셋檢擧

청부살인을 의뢰받아 승용차로 대상자를 치어죽이려[던] 일당5명중 3명이 범행직전 잡혔다. 경찰은 또 공범2명과 이들에게 4촌매형의 살인을 의뢰한 처남을 수배했다.

서울麻浦경찰서는 23일 金鍾出씨(35·광업 서울麻浦區合井洞357의1) 金成圭씨(20·운전사·경북榮州市休川洞642의362) 金海東(20·운전사·경북 榮州市 榮州3洞75)등 3명을 살인예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襄龍植씨(33·경북 榮州市)·황무석씨(29·〃)등 2명과 이들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한 李貞安씨(23·서울 西大門區 延禧洞)등 3명을 살인예비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22일 하오8시30분께 서울 麻浦區合井洞 합정로터리 부근에서 주범 李씨가 살해를 부탁한 李씨의 사촌매형 金재민씨(46·사업·서울麻浦區城山洞23의18)를 승용차로 치어죽이려 金成圭씨가 운전하는 서울3마 4413호 마크Ⅳ승용차에 金海東씨와 함께타고 金赫出씨가 근처다방에서 金씨를 불러 내기를 기다리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李씨는 金씨등 2명이 23일 새벽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의하면 주범 李씨는 지난12일 상오10시께 서울鍾路區樂園洞 예전다방에서 동업자인 金赫出씨에게 평소 금전관계와 집안일로 원한이 있는 사촌매형 金씨를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죽여달라』고 제의, 이를 수락한 金赫出씨가 같은날 하오9시께 집으로 찾아온 고향인 榮州Y고교후배인 襄龍植에게 하수인물색을 부탁했다.

襄씨는 이튿날 榮州에 내려가 평소 자신을 형님이라며 따르는 황무석씨를 통해 金成圭씨와 金海東씨등 운전사들을 하수인으로 끌라 범행키로하고 21일 밤차로 함께 상경했다. 이들은 22일 상오8시께 麻浦區合井洞로터리부근 서울여관 310호실에 함께 투숙, 이날상오10시께 金赫出씨와 合井洞로타리부근 다방에서만나 이날하오 8시께 金씨를 전화로 다방으로 불러낸뒤 金成圭씨와 金海東씨가 승용차로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나오는 金씨를 승용차로 치어죽인후 뺑소니사고로 위장하기로 범행계획을 세웠었다.

◇必死의 탈출 불이난 만포면옥과 맞붙어있는 부일갈비 지배인 白大華씨(37·매달린사람)와 종업원 金有福씨(38·옥상)가 이불깃을 찢어만든밧줄로 필사의 탈출을 꾀하고있다. 이들은 옥상에 있던프로판가스통을 옮기기위해 5층옥상으로갔다가 불길이 치솟자 계단으로 내려오지 못했는데 급조한 밧줄을타고 내려와무사했다. 【부산=聯合】

마지막尙宮 보도에 大邱서 誠金보내와

「조선왕조의 마지막상궁 李命吉할머니」(한국일보23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의기사를 읽고 23일 大邱청과물시장대표 鄭大龍씨(69·大邱市北區七星洞1가276)가 10만원을 한국일보大邱지사에 보내왔다.

鄭씨는 앞으로도 李할머니(89)의 생계를 돕기위해 매달5만원의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南浦洞에 큰불

釜山 4명火傷 1億피해

음식점 버너爆發…불길치솟아 強風타고 商街번져 20점포타

【釜山=聯】23일상오10시30분께 부산中區南浦洞2街25 만포면옥(주인 김용조·42)에서 석유버너가 폭발, 인근 환철제과 왕자불럽등 7개업소가 전소하고 평화인쇄등 6개업소가 반소되는등모두 20개업소 1천여평을 태우고 2시간만인 12시30분께 꺼졌다. 경찰추산피해액1억원.

이불로 만포면옥 주방에서 일하던 주방장 배명석씨(46)와 종업원 노기찬군(18)등 4명이중화상을입고 인근중앙병원에입원, 치료중이다.

이날 불은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던중 석유버너가폭발, 삽시간에 번지면서 일어났는데 이 일대가 50~60년된 목조건물로 밀집상가를이루고 있으며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않는바람에 초동진화에 실패, 피해가 늘어났다.

이날불을 처음발견한 대진설비사소속 정비공 신용운씨(47)에 따르면 인근 부일갈비집 옥상에서 배관설비작업을 하고있는데 만포면옥뒤편에있는 주방쪽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와함께 불길이 솟았다는것.

불이나자 만포면옥과 맞붙어있는 서울신탁은행 부산남지점에서는 현금과 예금장부 입체를 부산7다5529호 트럭으로 옮기는등 소동을 빚었으며 간선도로인 南浦洞과光復洞일대의교통이 완전차단돼큰혼잡을이루었다.

화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입원중인 주방장 배명석씨(41)가 이날 주방아궁이에서 석유버너 스위치를 잡고 끄집어내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버너성능을 조사하는 한편 배씨의 실화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한편 만포면옥은 지난달말 소방시설점검을 받은 것으로 돼있으나 정작 불이났을때 비치하고 있던 2대의 소형분말소화기등이 작동이 안된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女子의 마음

教師아내의 긍지

윤상이 사건으로 얼룩졌던 한해를 보내며 교사의 아내로서 느꼈던 분노와부끄러움을 다시 생각하게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속담과 같이 어느 한교사가 저지른 엄청난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교사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던가.

남편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이다. 공립학교에비해 전근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이학교는 교장, 교감선생님을 위시한 모든 교사가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교무실에서보다는 훨씬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의견들을 나누며 문제학생들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신는걸 볼때마다 제자에대한 선생님들의 깊은 애정을 실감하곤한다.

【진해시송학동23의7 박성갑씨댁】

尹宗鉉 論說主幹 1일 우체국장에

尹宗鉉한국일보논설주간은 22일 光化門우체국 1일국장으로 취임, 성탄및 연하우편물이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이날 光化門우체국에는 인기가수 朴京姬양도 1일판매원으로 창구근무를 했다.

京水복선개통 4년6개월만에

京水복선(永登浦―水原간 32.3㎞)이 23일상오 10시개통됐다.

철도청은 이날 서울역구내 1번홈에서 尹子重교통부장관과 安昌和철도청장등 철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지난 75년 제4차5개년사업으로확정된이공사는 3백47억원을 투입해 77년6월에착공, 4년6개월만에 완공된것.

前科11犯에 「聖誕의 빛」

吳勝夫씨、崔南順修女 도움으로 「人生變身」

篤志家나서 백내장도 수술 외아들과도 9년만에 再會

11번의 전과(前科)가 있는 사람을 거들떠 본는이도 없을것이다. 전혀 「인간」이 될희망이 없다고 보는게 사회통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사자는 따뜻한것을 주고 받아본 기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셈이다. 그러나 전과11범 吳勝夫씨(48)는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수녀를 만나 마음의 안식처를 얻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느 독지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육신의 빛도 되찾았다. 또 헤어졌던 아들과 재회, 혈육의 정까지 재확인할수 있었다.

◇『崔수녀님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은인의 사랑때문에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됐다』며 밝게 웃는 吳勝夫씨와 『오직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일 따름』이라고 말하는 崔南順수녀。

"社會좀먹는 毒버섯 안되겠다" 悔恨·「人間외면」딛고 靈魂구원

『이제 전과기록은 더이상 갱신되지 않을것 입니다. 이제 더이상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 되지 않겠읍니다』 吳씨에게 있어서 이 재생의 계기는 그 누구의 성탄절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 될것이다.

서울 永登浦구치소에 미결수로 구금돼있는 吳씨는 절도전과11범에 다시 절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죄수。

매주 화요일마다 구치소에 전교활동을위해 오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원」(서울 城北區 貞陵洞 山1의15) 崔南順수녀(43)를 만나게 된것이 변신의 계기가 됐다.

「전과11범」을 차갑게 바라보는 사회의 눈과 악의 유혹속에서 실의와 절망에빠져 있던 吳씨에게 崔수녀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재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다.

특히 崔수녀가 지난10일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그동안펴온 재소자인권보호에 대한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후 『바람이있다면 백내장으로실명직전에 있는 永登浦구치소 재소자 吳씨의 수술비를 도와줄 독지가를 구하는일』이라고 말한것(한국일보 12일 11면보도)이 계기가 돼 육신의 병까지 고칠수가 있었던것.

지난11일 崔수녀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꼭 돕고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崔수녀가 약속장소에서 만난 이 전화의 주인공은 끝내 자신이 가톨릭신자라는 사실외에는 밝히지않고 수술비및 치료비일체를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려는 이 독지가의 태도에 崔수녀는 크게 감동했고 이사실을 俞炳烈구치소장(50)에 알렸다.

지난 7월 永登浦구치소에 이감되면서 백내장 증세가나다나기 시작, 이미 왼쪽눈은 완전 시력을잃고 오른쪽눈마저 백내장이 퍼져갈때 吳씨는 두눈을 움켜쥐고 감방벽에 머리를 찧으며 회한과 절망에 휩싸여 나날을보냈다.

고향인 충남 論山郡 夫赤面 夫人里에서 농사를 짓다 19살때 가출, 大田에서 친구의 꾐에 빠져 소매치기조직에 들어간일. 그때 처음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년복역생활의 첫번째 교도소생활을 시작한일. 지난1월 마지막 소매치기를 한게 들통이 나 다시 붙잡혀 지금의 썩고 문들어진 육신만이 남게된과거가 주마등처럼스쳐가며 吳씨를 절망에 떨게했다.

그러나 吳씨는 지난10월께부터 崔수녀를 만나기시작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실명이라는 업보도 저질러온 죄의 댓가로서 「하느님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 됐다.

지난16일 하오3시 서울鍾路區 공안과의원에서 원장 公英泰박사의 집도로 왼쪽눈 수술을 받고난직후 吳씨는 崔수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진실로 천주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사회가 나를 버리지않은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吳씨가 수술후부터 1주일간 병상에서 계속 감사기도를 드리는것을 보고 崔수녀는 물론 계호원차 나와있는 교도관 柳寅紀씨(45)、담당간호원 朱熙貞양(21)모두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11번씩이나 죄를 지었는지 믿어지지않는다』며 吳씨의 「영육의재생」을함께기뻐했다.

『吳씨의 수술결과는 좋아 앞으로 1주일마다 통원치료를 받고 3개월후면 완전히 시력을 회복할것』이라는게 원장 公박사의 말.

吳씨가 퇴원하던 23일 상오, 吳씨에겐 또 하나의 경사가 겹쳤다. 유일한 혈육인 외아들 東熙군(21)이 大田에서 포장마차를 경영하며 자립하고있다가 이날 구치소의 연락을받고 달려와 아버지품에 안긴것이다. 東熙군이 13살때 헤어진후 9년만의 재회였다.

東熙군은 『아버지、이제 제가 모시겠읍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吳씨 역시 아들을 끌어안으며 『죄많은 아비를 용서하라』고 울먹였다.

이날 간호원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구치소로 향한 吳씨는 『2심에서 어떠한 형벌을 받더라도 자포자기하지않고 죄댓가를 치른뒤 새사람이 되어 출소하겠다』면서 1백만원이 넘는 거액의 치료비를 대주고도 이날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않은 은인에게 고마와했다. 【[illegible]기자】

日 勤業은행 한국인職員 出勤 보이코트

다른 日系銀도 加勢할 움직임

근로조건개선과 차별대우 시정을 요구하며 사표를 낸 일본第一勸業은행서울지점한국인 행원26명전원이 24일부터 출근하지않기로결의했다.

이은행 崔真姬양(26·노조여성부장)등 한국인 직원26명은 23일 상오『차별대우에 굴복하면서 더이상 근무할수 없다』는 결의서를 지점장 佐野晃郎씨(50)에게내고『23일중 은행측이 ▲의료보험제도개선▲한국인 행원에 대한 결재권부여▲약속된 주택자금지불등 사태수습을위한 성의있는 해결방안을 강구치않을경우 24일부터 전원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은행의 한국인행원26명은 지난10일 한국인남자직원 8명이 은행측의 차별대우에 항의, 사표를 냈다가 17일 수리되자 이들에게 동조, 사표를 내고 은행의 공신력과 고객을 위해 31일까지 기한부출근을 하고 있었으나 은행측이 사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않고 계속 요구를 묵살하자 이같이 결의하게된 것이다.

東京은행·미쓰비시은행·후지은행등 국내에 들어와있는 일본계은행 한국인직원 1백50여명은 23일하오6시 서울汝矣島전국금융노조회관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第一勸業은행 한국인직원의 출근거부에 보조를 같이하는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대한 진정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키로했다.

쥐포먹은 아이 絶命

大田、高熱·구토…1명은重態

【大田=聯】23일상오4시께 충남大田市中區內洞13 李貞淑여인(46)집 안방에서 쥐치포를 사먹은 李여인의 장녀 英蘭양(13)이 고열과 구토증세를 일으키다가 숨졌고 차남 英喆군(11)은 중태에 빠져 忠南大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응급가료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남매는 전날밤9시께 가족들이 집을 비운사이 동네구멍가게에서 쥐치포4마리를 사먹은후 바로 고열과 함께 심한구토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식중독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리기위해 英蘭양 남매가 먹다 남긴 쥐치포1마리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는 한편 大田시중에서 판매중인 쥐치포를 잠정적으로 모두 판매금지토록 해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키로했다.

한국일보 詩壇

겨울 꽃 나무

黃錦燦

밖에는 눈이 내리고
방안엔 촛불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꽃나무는
겨울의 꽃 나무는
봄이 오면 벌글 보람을
고르지 않은 기후에도
안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성탄절 부근
이색 성가의 물결은
바람이 되어 거리를 넘치고
아가의 의지처럼
처마끝엔 고드름이
구원을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화롯불에 밤을 구우며
어린 손녀에게
아가 예수가 탄생한 이야기를
[illegible] 속으로 들려주고 있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녀는
베들레헴의 풍경을
눈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꽃나무가
겨울 꽃나무가
거기에서 꽃을 마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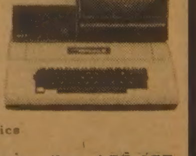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기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프로野球 스카웃 開戰

연고지별 大學·實業선수와 入團·등급交涉

서울 釜山 大邱는 가려뽑고 光州 大田 仁川은 人材부족

프로야구 6개구단은 23일부터 본격적고교출신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선수스카웃작업에들어갔다. 연고지별 스카웃원칙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둘러싼 구단끼리의 스카웃경쟁은 사실상 있을수없다. 그러나 구단마다 실업또는 대학선수들에대한 입단교섭과 등급책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된것으로 보인다.

三星의 스카웃대상인 大邱지역출신 선수중에는 黃圭奉·李善熙등 노장투수와 포수 李萬洙, 내야수 裵大雄·具永錫·咸學洙·徐定煥·吳大錫, 외야수 鄭鉉發·許奎沃·鄭丘旺등 현역 실업호화스타들이 줄을 잇고있어 알찬 멤버구성이 기대된다.

釜山의 롯데역시 崔東原, 沈載元 배터리와 내야의 金貞洙、金一煥、金用熙、鄭學守, 외야의 金成琯、柳斗烈、朴庸成등 베스트9의 비교에서는 손색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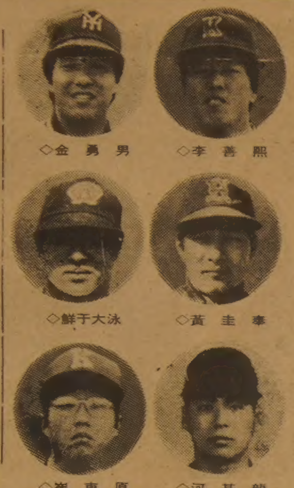
仁川 三美社는 기교파투수 任昊均과 곧 제대하게될 포수 金鎭雨의 배터리가 안정적이나 야수와 타력에서다소 미흡한 감이있다.

光州의 해태는 金勇男、姜晩植、金城漢등의 투수진에 비해 포수감이부족하고 야수들의 기복이심하다.

MBC2, 斗山1의비율로 나뉘게되는 서울지역에는 투수로 河基龍、朴相悅、鮮于大泳, 포수로 鄭宗鉉、曺鳳鉉, 내야수로 金在博、金仁植、金龍達、朴鍾勳, 외야수로 金宇烈、李海昌、宋榮奎등이 있으며 斗山의 본거지인 大田출신으로는 투수 金東成, 포수 金卿文, 내야수 申慶植、崔聖甲등이있다.

大田、仁川、光州의 경우에는 팀구성에 필요한 선수의 절대량이 미흡한 편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스타팅·멤버를 뒷받침할 선수층이 얕아 불안한 형편이다. 구단에 따라서는 내년고교졸업예정자중 吳命錄(경남상투수)、金正洙(광주진흥투수)、林東求·張彩根(광주상포수)(군산상유격수)등 유망신인들에대한 입단교섭도 예상된다.

아마에서 프로로 탈바꿈하는 롯데의 경우에는 소속선수 21명중, 연고지釜山지역출신이 4명밖에없어 나머지19명에대한 대책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있다. 롯데는 이들이 다른 프로또는 실업팀에 이적을마친후 사표를받고 잔류자에게는 일반직 진로를 마련한후 팀을 해체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대표로뽑힌 李海昌、崔東原에대한 보상책은 아직 마련되지않고있다.



◇金勇男 ◇李善熙 ◇鮮于大泳 ◇黃圭奉 ◇崔東原 ◇河基龍

◇서울·MBC·斗山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黃泰煥	29	[illegible]	한전
″	[illegible]	28	중앙고	롯데
″	梁[illegible]	28	성남고	″
″	鄭淳明	27	충암고	한화
″	河基龍	26	배재고	상은
″	朴相悅	26	동 상	포철
″	[illegible]	26	경동고	롯데
″	金賢洪	25	선린상	″
″	柳鍾[illegible]	25	장충고	제일
″	車[illegible]	25	휘문고	롯데
″	鮮于大泳	24	서울고	제일
″	申君植	23	선린상	성대
″	李吉煥	22	선린상	연세
捕	[illegible]	28	성남고	한화
″	崔正基	26	충암고	롯데
″	李浩榮	26	선린상	″
″	鄭宗鉉	23	″	한양
″	曺鳳鉉	21	충암고	인하
內	洪在鎬	28	중앙고	한일
″	金仁植	28	동 상	롯데
″	李光國	28	″	한화
″	金在博	27	대광고	″
″	金龍達	26	″	한전
″	柳志烜	26	″	상은
″	鄭永基	25	충암고	롯데
″	金光洙	22	선린상	농협
″	趙忠烈	22	″	연세
″	朴鍾勳	22	신일고	고려
″	具千書	18	″	상은
外	金宇烈	32	선린상	제일
″	尹東均	32	동 상	포철
″	李鍾道	29	중앙고	제일
″	宋榮奎	29	장충고	농협
″	李海昌	28	선린상	롯데
″	尹夢龍	28	중앙고	한일
″	崔正雨	27	배문고	한전
″	裵泰旭	26	대광고	한일
″	柳濟龍	25	휘문고	상은
″	楊世鍾	23	장충고	제일
″	李根植	23	충암고	한양
″	鄭[illegible]	22	선린상	포철

◇大田·斗山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宋容成	25	세광고	농협
″	金泰鎬	24	대전고	포철
″	金[illegible]	23	″	″
捕	洪淳萬	24	″	포철
″	金卿文	23	공주고	고려
內	金[illegible]	25	대전고	한일
″	成基淳	22	″	동국
″	崔聖甲	20	북일고	농협

◇大邱·三星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黃圭奉	29	경북고	한화
″	李善熙	26	″	포철
″	曺圭植	24	대구상	제일
″	朴英辰	23	″	성대
″	裵晟煥	23	경북고	영남
捕	孫相大	27	경북고	롯데
″	孫祥得	25	″	포철
″	李萬洙	24	대구상	한양
內	裵大雄	27	경북고	포철
″	具永錫	27	″	상은
″	金漢根	26	대구상	롯데
″	咸學洙	26	경북고	포철
″	徐定煥	26	″	″
″	李三烈	26	대구상	농협
″	金暉旭	25	경북고	한화
″	朴貞煥	24	″	포철
″	吳大錫	23	대구상	한양
外	鄭鉉發	28	경북고	롯데
″	鄭丘旺	28	″	한화
″	許奎沃	25	대구상	롯데
″	宋[illegible]	24	대구상	포철

◇釜山·롯데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崔玉圭	29	부산상	농협
″	金文熙	26	부산고	한전
″	崔東原	23	경남고	롯데
″	李潤[illegible]	23	부산상	한일
″	盧相守	23	″	″
捕	沈載元	28	부산고	한[illegible]
″	車東烈	25	경남고	제일
內	許哲九	30	경남고	한일
″	金貞洙	28	부산고	롯데
″	金一煥	28	″	한화
″	李成得	28	경남고	한일
″	金用熙	26	″	포철
″	金容哲	26	부산상	한일
″	趙浩成	23	″	제일
″	郭東[illegible]	23	″	고려
″	林楨勉	23	마산상	농협
外	金成琯	29	경남고	롯데
″	柳斗烈	26	마산상	한전
″	崔榮華	26	부산고	″
″	朴庸成	23	마산상	한일
″	嚴泰燮	23	″	″

◇仁川·三美社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任昊均	26	인천고	한전
″	印浩鳳	24	″	″
″	金在峴	22	동산고	포철
″	吳世仁	22	″	영남
″	宋[illegible]	21	심석종	한일
″	柳産[illegible]	20	동산고	상은
捕	琴光玉	25	″	″
″	金鎭雨	23	인천고	성무
″	金鎭喆	23	″	포철
″	崔榮桓	22	동산고	영남
內	趙興雲	28	인천고	한화
″	金浩仁	27	″	″
″	李哲聖	25	″	한전
″	朴明善	25	″	″
″	張貞起	24	″	″
″	許 雲	23	동산고	중앙
″	孫[illegible]	22	인천고	연세
″	金慶男	22	″	인하
″	宋慶燮	21	인천고	인하
外	劉[illegible]三	26	동산고	농협
″	朱在昌	23	″	연세
″	梁承瑄	22	인천고	포철

◇光州·해태

	선수	연령	출신고	소속
投	金[illegible]日	32	군산상	한화
″	沈相守	25	광주일	농협
″	金勇男	24	군산상	한화
″	姜晩植	24	광주일	롯데
″	金城漢	22	군산상	동국
″	陳甲[illegible]	22	광주일	원광
捕	楊宗秀	27	군산상	한전
″	朴田燮	21	″	동국
內	金奉淵	30	″	한화
″	[illegible]昌起	30	″	제일
″	河泰[illegible]	27	″	″
″	車榮華	25	광주일	롯데
″	金[illegible]	24	″	한전
″	李[illegible]	23	″	원광
外	金準桓	26	군산상	상은
″	金鍾潤	24	″	제일
″	金光石	23	광주일	롯데
″	金[illegible]	21	군산상	동국
″	金一權	26	″	한양

金義明 긴데쓰入團

【東京22日=聯合】교포야구선수 金義明(18)은 22일 日本프로야구팀 긴데쓰(近鐵)에 정식입단했다.

背番28의 유니폼을 입고 이날 오오사카(大阪)의 미야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金선수는 『몇년후엔 반드시 홈런王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投打양면에 능한 金선수는 타자로서 대성하기로 일찍부터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긴데쓰에서의 수비위치는 내야수이다.

계약금 5천5백만엔에 연봉 3백80만엔을 받기로 한 金선수는 『어떤선수가 되고싶으냐』는 질문에 『어린애들까지 긴데쓰의 28번 유니폼을 입고싶어 할 정도의 선수가 되겠다』고 답변했다.

2시간20분 以內 645명

80~81년 世界마라톤선수

한국선수 4명뿐

80~81년 세계마라톤은 2시간20분이내 선수가 모두 645명으로 밝혀졌다.

대한육상연맹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대륙별로는 유럽이 278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北美가 216명, 아프리카 49명, 아시아 47명, 大洋洲 37명, 南美 18명의 순이다.

그러나 北美가 美國과 캐나다 2개국뿐으로 가장 많은 선수층을 가진 나라로 꼽히고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日本이 47명중 90%인 42명, 北韓이 4명, 中共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나의 이력서 元一漢 ㉓

<題字·元一漢>

延坪島서 巡威島까지

바위틈서 험한波濤에 휩쓸려

꿈의 보트「검은오리」號는 延坪島에서의 꿈같은 밤을 지내고 한국어선위의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잠이 깼다.

이들 고기배는 분주히 닻을 올리고 항해준비를 서둘렀다. 우리의 작은돛은 출발하자마자 바람을받아 자연스럽게 배를 灣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海州灣이 끝나는 육지의 반도밑 바싹 다다랐을때 거기에는 바위로된 작은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섬들 사이를 헤치고 「검은오리」號는 순조롭게 헤엄쳐 나갔다.

그러나 선장인 아버지는 다른 선원들이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배가 나가는 앞을 똑바로 지켜보았다. 「Breaks Ahead」(바로앞에 부딪칠지 모르니 주의하라)라는 元漢慶박사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때는 우리들의 식사가 미처 끝나지않았을 때였다.

『반마일가량은 죽은듯이 항해를 계속했다. 지도를 힐끗 보았을때 거기에는 바위가 없었으나 부서지는 파도는 여전히 배앞에서 포말을 이루었다. 활짝열린 바다는 이지점에서 썰물이 일고 있음이 분명했다.

바람이 없는데도 우리의 돛은 마구 흔들려서 똑바로 나가질못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두척의 배는 전연 요동치지도 않았고 저만치 앞서가는 돛단배도 파도에 휩쓸리는것 같지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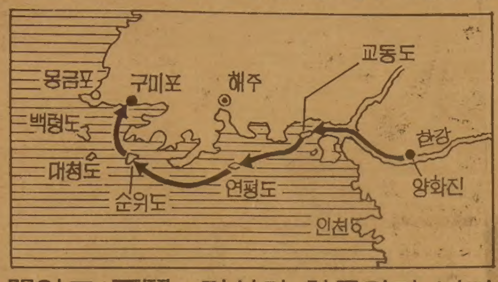
아버지의 YACHTING誌기고가 없었다면 나는 당시의 상황을 일일이 기억해 내지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검은오리가 요동치는것을 참다못해 DUCK가보다 HELL·DIVER라고 부르는게 옳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헬·다이버란 논병아리과에 속하고 물속깊이까지 파고들어가 생선을 잘 잡아먹는 물새의 이름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아버지는 자신이 노를 꽉 붙들고 모두에게 구명복을 나눠주었다. 오리아닌 이 물새는 파도에 휩쓸려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서 때로는 곤두박질을 쳤다.

이 파도속에서 보트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맞은편 섬으로 다가가는 길밖에 없었다.

우리가 항해하려는 섬 오른편에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바위가 있기때문에 접근해서는 안되도록 돼있으나 우리의 선장은 그걸 알지못했다.



모두救命服입고 死鬪…간신히 침몰위기 넘겨

아버지는 한국어선에게 도움을청해 그 항로를 가서는 안되고 섬의 왼쪽으로 우회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때 친절한 어부가 아버지에게 일러준말은 『바위섬 미앞으로 가면 됩니다』였다. 미앞은 左舷, 미뒤는 右舷의 뱃사람 전문용어로서 아버지도 이말을 항해직전 배웠기때문에 뜻이 알쏭달쏭했다는 것이다.

항해의 필수조건으로 PORT가 左舷, STARBOARD가 右舷, BOW는 船首, STERN은 船尾로 누구나 알고있다. 그러나 左舷은 「미앞」, 右舷은 「미뒤」, 船首는 「이물」, 船尾는 「고물」이라는 뱃사람고유언어를 터득치 않고서는 올바른 항해가 가능했을까.

아버지가 다행히 뱃사람들이 쓰는말을 더듬거려서나마 알았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못했더라면 바위틈에 끼고 말았을 것이다.

곤두박질하는 작은 보트가 바위를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오자 뱃길은 다시 순조로와졌으나 파도와의 싸움은 언제 부닥칠지 몰랐다. 우리는 巡威島까지 도착한것이다.

파도가 심하기전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했으나 24시간동안 지체하고 말았다. 바위근처의 샘에서 맑은 물을 만나는 그기쁨 또한 어디에 비길 것인가.

한국食糧위기 날조 對南虛僞 선전加熱

【서울=聯合】北傀는최근그들선전기관들을통해 마치 식량부족으로 韓國이 굶주리고 있는것처럼 날조선전하는가하면 이같은 식량위기가 『美帝의 植民통치』때문이라고 誹謗하는 등 韓美이간책동은물론 韓國民들의 反美감정을 선동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陸上人의밤 盛了

81년을 마무리하는 陸上人의밤이 23일하오5시 플라자호텔22층덕수홀에서열렸다.

이자리에는 張翼龍육상경기연맹회장을 비롯, 많은 육상인들이 참가, 금년 한해를 회고하는 환담과 88년올림픽에 대비한 육상인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한편 핸드볼인의밤도 23일 코리아나호텔 22층 스테이트룸에서 金宗河회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한가운데 베풀어졌다.

구독신청 538·2861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4譜 56~80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徐能旭 <0勝2敗>
黑(7段) 徐奉洙 <1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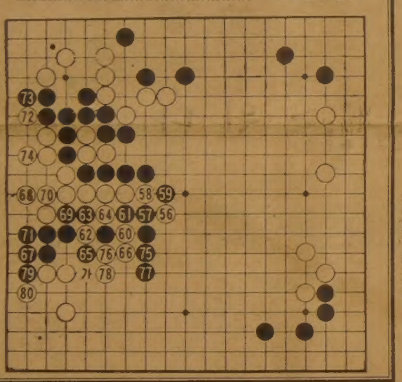
徐7단은 첫판을 姜哲民6단에 패하여 순탄한 스타트였는데 다음 河燦錫7단에 분패하여 1승1패. 따라서 이번이 도전권획득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고비이고 한편 徐6단은 姜敏4단과 鄭壽鉉4단에 연패하여 시드組殘落이 문제로 되어있다. 더구나 지금은 상대가 徐7단이다. 그야 물론 徐6단은 상대를 의식하지않고 전력투구하는 棋士이므로 이점은 안심이지만 자칫 헐기에 치우칠까 염려되었는데 本譜에서는 그런 杞憂가 현실화하고있다.

白56으로서 黑을 한때 궁지에 몰아넣는가 싶었고, 黑이 기세상 어쩔수없이 57、59로 나와끊었어도 白60、62가 준비된강수. 그렇지만 좌변黑이 끊겨버렸으니 徐7단은 때이른 비상시에 봉착한 느낌이었다. 徐6단의 기세가 한껏 오르고 그런만큼 黑은 고전.

白、可惜한 逸機

그런데 白72、74가 돌이키지못할 완착이었다. 아마 徐6단은 좌변黑을 요리할 자신이 생긴나머지 본의아닌 방심을 한 모양이다. 만약 72로 우선76에 단수를치고 黑「가」때 62자리에 패를 걸어볼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다. 이때는 패감이많기 때문에 白이 유리했고 어쩌면 그것으로 역전극이 벌어졌을 법했다.

나의완착은 상대의 호착을 부르는 법. 당장 黑75、77의 멋진수로인해 무엇보다 중앙일대에 막강한 黑세가 형성되었다. 뿐아니라 白쪽은 78의 국후에 徐7단도 白72의 과오를 지적하고 白을 위하여 못내 아까와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좌변의 黑대마가 과연 무사할지가 문제는 문제이다. 【一凡】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8-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임상엽	주일 낮1:00 저녁 7:3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의 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 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8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풍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527-482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삐라
5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남자 스토아 헬퍼구함
FULLTIME
☎ : 447－2116 MR. 윤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7－098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베이뷰 & 윈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구 혼

구 혼 : 31세남, 유학생으로 현재대학원 재학중임
〈전공 : M. B. A.〉
☎ : (213) 383－2518 〈L. A. 저녁시간요〉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6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6 김 진 환

여행사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억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 이 동 환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월진함)

회계사무소

R.I.A. ACCOUNTING & TAX **김 인 규**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영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락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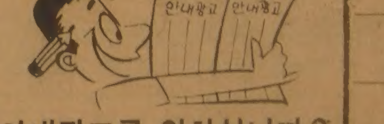
기 타

ZAP SUREKILLER 366－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 · 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 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숙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2줄 1칸 …… 3 회 …… $ 10.00
●2줄 1칸 …… 5 회 …… $ 13.00
●2줄 1칸 …… 10 회 ……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바다에서 플룻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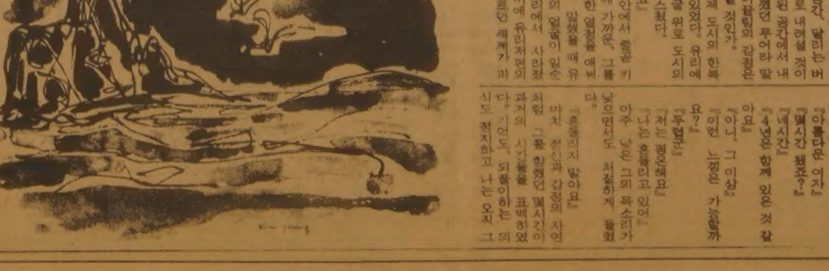
金梁順 作
鈴錫 畵

몸을 앞쪽으로 끌어당기자 먼저와 같은 그와 나의 자세가 되었다. 버스는 곧 목적지에 당도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 달리는 버스에서 밖으로 내려설 것이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그에게 느꼈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이끌림의 감정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버스는 이제 도시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두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휘휘 스쳤다.

『다 왔군요』

내가 버스 안에서 줄곧 키워왔던 환상에 가까운, 그를 향한 불안정한 열정을 애써 마무리짓듯이 말했을 때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이 일순 흔들리며 유리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유리저편의 환상처럼 흐르던 세계가 파괴되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평행의 자세를 취했다.

그때 그의 왼쪽 손이 내 오른편 어깨 위에 가벼이 놓였다. 그러나 그 작은 무게와 가벼운 행위가 내 온몸을 내리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손가락을 펼쳐 내 어깨의 모서리를 움켜 쥐었다.

몇장 수표에 음악을 팔고 몇잔의 술에 나를 내던졌던 타락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그에게 침례당하는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나를 저 깊숙한 바다에 잠기게 하는 걸까. 나는 마치 바다의 심연으로 미끄러지듯 무저항의 정신이 되었다. 그 손은 유혹의 손, 욕망의 손, 남자의 손이 아니었다. 신처럼 모학 석화된 나의 슬픔을 무너뜨려 강으로 흐르게 하는 거대한 손이었다.

나는 내 오른손을 사선이 되게 들어 내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마음은 지극히 평온하고 안심되었다.

『제가 피폐한 여자로 보이죠?』

『아름다운 여자』

『몇시간 됐죠?』

『네시간』

『4년은 함께 있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

『이런 느낌은 가능할까요?』

『두렵군』

『저는 평온해요』

『나는 흔들리고 있어』

아주 낮은 그의 목소리가 낮으면서도 처절하게 들렸다.

『흔들리지 말아요』

마치 정신과 감정의 자연처럼 그를 향했던 몇시간이 과거의 시간들을 표백하였다. 기억도, 되풀이하는 의식도 정지하고 나는 오직 그에게 온전히 나를 집중시켰다.

『참으로 긴 시간 나는 싸웠어. 처음엔 내 아내의 병(病)과 싸웠고, 다음엔 죽음의 그림자와 싸웠고, 그리고 내 자신과 싸웠어. 그리고 그 싸움들에 전부 패배했지. 죽음으로의 통로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가, 서서히 그 생명과 아름다움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켜보아야 한다는 나의 책임이 형벌로 느껴지기까지 했어. 진실로 사랑하였던 여자의 죽음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사랑과 증오가 무시로 넘나들지. 그녀의 육신이 꺼져가고 있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나도 허물어지고 있었어. 다시는 살 수 없으리라, 내 몸에 살아있는 자의 위태로운 느낌이 다시는 살아나지 않으리라 했었지. 나는 죽은 자였어. 그런데 나는 흔들리고 있어.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유희야』

『유희라고말하지말아요』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2ND CLASS MAIL NO. 5268